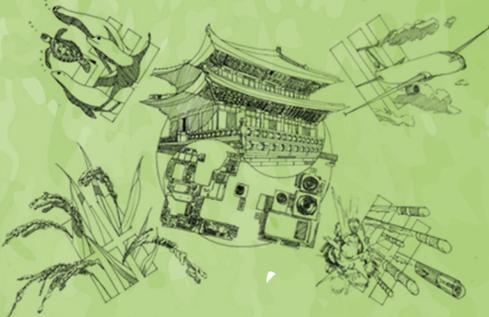


Dasom Saarang



다솜사랑
DASOM
KOREAN SCHOOL

2020~2021
동권 제35호



다솜 한국학교

www.dasomks.org

다솜사랑

Dasom Sarang
2020-2021 다솜한국학교 교지
(통권 제35호)

다솜한국학교 Yearbook
발행인/편집인: 최미영
편집위원: 권미정, 권민혜, 박은경, 안지은, 원은경
디 자 인: 김소연, 안지은
사 진: 김원구
표지 다솜사랑 글씨 디자인: 최하은
발 행 일: 2021년 8월 (통권 제35호)
주 소: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홈페이지: www.dasomks.org
이 메 일: info@dasomks.org
인 쇄: Better Yearbook (1-888-550-8604)

다솜사랑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서니베일 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의 교지로서 연간 1회 출판하며 본 한국학교의 역사 기록을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본 교지에 게재된 글이나 사진 등은 다솜한국학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무단 복제나 사용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Dasom Korean School,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04	인사말 _ 교장 최미영
	05	이사장님 격려사 _ 이사장 전남진
	06	축사 _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윤상수
	07	축사 _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 원장 우창숙
	08	2020~2021학년도 다솜한국학교 연혁
	09	2020~2021학년도 다솜한국학교 학사보고 및 수상자 명단
각반 소개 및 학생 작품	10	기쁨반 _ 교사 안지은
	20	충성반 _ 교사 권미정
	28	온유반 _ 교사 원은경
	46	화평반 _ 교사 권민혜
	54	열매반 _ 교사 박은경
학생 및 학부모 글	72	2020~2021학년도 졸업생 글 모음
	74	2020~2021학년도 졸업생 부모님 글
	76	기타 학생 글과 작품
이모저모	78	한국 역사문화 강의
	82	다솜의 자랑, 보조교사들의 이야기
	86	2020~2021학년도 다솜한국학교 행사 모음
	94	2020~2021학년도 보도자료 모음
	106	다솜한국학교 교사 및 이사진
	107	다솜 온라인 등록 안내
	108	역사문화 캠프 광고

우리 학생들이 100% 한국인, 100% 미국인이 되기를 바라며

교장 최미영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모든 분들께 오직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1년 동안 온라인 상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직접 얼굴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화면으로 서로 만나고 이야기 하며 수업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끊기는 등의 사고 없이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매시간 초조하기도 했지만 우리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걱정은 사라지고 또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었기에 교장인 저도 30분 정도 매주 수업을 하였고, 그 후에는 각 반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수업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하심과 학생들이 열심히 즐겁게 공부하는 장면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를 배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 일까요? 네, 바로 지금입니다. 일주일에 3시간 공부로, 게다가 온라인 수업으로 무엇을 얼마나 배우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학생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성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다솜은 우리 학생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되고 정체성을 키워가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아시안 혐오 범죄나 차별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언론에서 듣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실시된 인종차별 및 혐오 대응 교육에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 학생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뿌리에 긍지를 가질 때 혐오 범죄나 차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학교는 한글만 배우는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역사인식을 갖고 리더십을 키우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의 뿌리 교육과 정체성 교육은 지속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했던 김영옥 대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한국인, 100% 미국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서로에게 많은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모든 다솜 가족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여름 방학 보내시고 오는 가을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솜사랑 35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다솜한국학교 이사장 전남진



먼저 ‘다솜 사랑’ 교지의 35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팬데믹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교지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에 남김으로 학습자료로 또는 후대에 다솜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35호가 발간될 때까지 쉽 없이 꾸준히 교지를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 (Determination & Perseverance)와 열정 (Passion)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다솜이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는 교지에 실린 학습 내용을 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풍부하고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 뿐만 아니라 정체성 교육을 위한 노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풍속, 문화, 선인들의 지혜, 나라를 빛낸 선구자들의 전기 등, 다양하게 한국을 알리고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을 소개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교지는 다솜의 정체성이요 자랑입니다. 다솜이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이 교지에 실린 학생들이 그들의 글과 배웠던 것들을 회상할 때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발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다솜한국학교의 개교 17주년을 기념하는 교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 윤상수



다솜한국학교의 2021년 교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학교 관계자와 이사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의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다양한 교내외 행사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솜한국학교는 차세대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와 매체를 활용하여 가르치고 출판 활동도 열심히 함으로써 북가주 지역에 귀감이 되어 오고 있으며, 다른 학교들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만큼 행복한 학생이 없다고 보통 말합니다. 다솜한국학교의 선생님들의 열정과 전문성은 학생에 대한 사랑과 학문에 대한 사랑이 더해져서 다솜한국학교를 온전하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가장 모범적이고 행복한 학교로 자리매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한국학교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솜한국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총영사로서 다솜한국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을 만나 얘기 나누며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소중한 주말 시간을 우리 차세대 교육을 위하여 나누어주신 귀교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지가 다솜한국학교의 활발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풍성한 교육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최미영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다솜한국학교 선생님들과 이사회의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즐겁고 역동적인 교육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며...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 원장 우창숙



캘리포니아의 언덕에 자연의 역동성을 불어넣어 푸른 초목과 깨끗한 하늘이 무한 감사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미국에서의 만남을 환영해 주시고 3년 가까이 함께 해 주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말마다 다솜한국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차세대교육에 헌신해 오신 선생님들의 사랑과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1년 동안 학사일정을 순조로이 마치고, 교지를 발간하는 등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교직원들은 항상 차세대들에게 역사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정체성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고, 이사회 및 현지 동포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북가주 지역 한글학교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육원 원장으로서 이 지역의 한국학교 관계자 분들의 열정에 여러 번 감동하였고 그들의 자기연찬의 노력에 놀랐습니다. 이러한 한국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의 씩 없는 노력이 있기에 미주지역의 동포사회가 더욱 더 활발하게 미주지역의 주역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학교야말로 이 지역의 한인사회를 선도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다솜한국학교의 최미영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의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 요소라는 인식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교육활동이 이 곳 다솜한국학교에서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솜한국학교는 관계자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씩 없는 노력의 결실로 교지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노력과 학생들의 깊은 이해를 위한 선생님들의 그 동안의 헌신과 열정이 교지 곳곳에 고스란히 담길 것이고 교지를 풍성하게 채울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즐겁고 역동적인 교육 활동이 다솜한국학교에서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솜한국학교 2020~2021학년도 연혁

2020년 가을학기	
2020년 8월 21,22,26,27,28일	교사연수회 개최 (2020~2021학년도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에 사용할 플랫폼 중심으로 연수회를 개최하였음)
9월 9일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주최: 재외동포재단) 공모전에서 장하진 학생 초등부 우수상 및 다솜한국학교는 한글학교 특별상 수상
9월 9일	수업 자료 픽업일: 수업 자료를 산호세한인장로교회 주차장에서 배포
9월 11일	Back to School Night : 학부모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9월 12일	온라인 개강식 및 수업 시작, 교사 회의
9월 12일	북가주 온라인 교사 연수회 참여
9월 19일	아침 조화와 속담 수업 후에 각 반 수업 (아침 조회 담당: 최미영 교장)
9월 26일	교사 회의
10월 3일	추석 행사 (강의: 안지은 교사, 박은경 교무, 권미정 교사)
10월 10일	역사문화 강의 I (주제: 세계를 누빈 재미동포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강의: 최미영 교장)
10월 10일	교사 회의 및 교내 연수회
10월 24일	대한제국 칙령 41호 반포 120주년 기념 독도의 날 행사 (강의: 최미영 교장)
11월 21일	역사문화 강의 II (주제: 직지와 의궤를 전 세계에 알린 박병선 박사) (강의: 원은경 교감)
11월 21일	교사 회의 및 교내 연수회
12월 12일	역사문화 강의 III (주제: 100% 미국인인 동시에 100% 한국인 김영옥 대령) (강의: 최미영 교장)
12월 19일	수업 후 겨울 방학 시작
12월 19일	보조교사 사은회 및 <이중언어로 배우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한국인의 삶> 출판기념식
12월 23일	교사 대면회의 및 원은경 교감 선생님, 박은경 교무 선생님 근속 15주년 표창장 수여
2021년 1월 23일	겨울 방학 후 개강, 겨울방학 숙제 및 프로젝트 수행
1월 23일	다솜한국학교 주최 한국어 특강 (제목: 한글의 감정, 강사: 조현용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월 30일	가을학기 종강, 성적표 배부, 교사 회의
2월 2일	SF 한국교육원 주최 UCC 공모전에서 이남현, 이준건 은상 수상 (제목: 태극기)
2월 5일	수업 자료 및 교구 픽업: 산호세한인장로교회 주차장
2021년 봄학기	
2월 6일	봄학기 개강, 교사 회의
2월 13일	설 행사 (강의 권미정 교사, 권민혜 교사)
2월 20일	역사문화 강의 IV (주제: 차별을 이겨내고 올림픽 금메달 2관왕이 된 새미 리 박사) (강의: 최미영 교장)
2월 26일	재외동포문학상 및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상장 전수식 @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장하진 학생 초등부 우수상 및 다솜한국학교는 한글학교 특별상 수상, 윤지유 학생 교육부 장관상 수상)
2월 27일	삼일절 102주년 삼일절 계기 수업 (강의: 최미영 교장)
3월 13일	개교17주년 기념식 및 발표회
3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는 캘리포니아의 K-12 학생들이 배울 아시아, 흑인, 라틴계 및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와 분투 및 기여를 알리는 인종 학 수업에 관한 모델 커리큘럼(ESMC, Ethic Studies Model Curriculum)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본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님이 청원서를 보내고 공청회에서 발언하였음.
3월 19일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This is Korea)" UCC 공모전 시상식: 이준건, 이남현 학생 은상 수상
3월 20일	화평반과 열매반에서 NAKS 표준 평가시험 실시
3월 27일	아시아 계 인종 차별 및 혐오 대응 교육 실시 (강의: 최미영 교장)
4월 1일	최미영 교장 SF 교육원 주최 북가주, 유타, 콜로라도 지역 교사 연수 실시 (제목: 아시아인 증오범죄 증가 대응 및 학생 교육 방안)
4월 3일	역사문화 강의 V (주제: 자주, 독립, 민주국가를 꿈꾼 서재필 박사) (강의: 박은경 교무)
4월 13일	최미영 교장 SF 교육원 주최 북가주, 유타, 콜로라도 지역 교사 연수 실시 (제목: 인종학 모델 커리큘럼 한국학교에서의 수업 방안 및 적용)
4월 17일	제17회 북가주 구연동화대회 시상식: 이준 학생 은상 수상
5월 22일	2020~2021학년도 화상 종업식 및 졸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개근상: 영소정, 박세희, 장예림, 장예진, 안아민, 윤재윤, 윤지용, 한서진, 나예준, 박소울, 윤세인, 윤지우, 장시은, 조다나, 조세린, 박채린, 윤지유, 윤지은, 장우주, 장하진 (총 20명) • 2021학년도 졸업생: 전시현(특별), 정지우, 이남현, 이준건(수료) • 현재 10학년 이상 재학중인 보조교사 중 80시간 이상 봉사한 학생들에게 이상장 상 및 장학금 수여: 전시현, 유은서, 박주희, 강태희, 권민호, 한동진, 박희희 • 대학 입학 보조교사에게 장학금 수여: 전시현, 유은서, 박주희 •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전시현, 유은서, 박주희, 강태희, 한동진, 박희희 • SF 총영사상: 권민호 • 보조교사: 전시현, 유은서, 박주희, 강태희, 권민호, 한동진, 박희희, 박시은
8월 15일	교지 <다솜사랑> 통권 35호 발행

다솜한국학교 2020~2021학년도 학사 보고

반 명	교 사 명	2020~2021학년도 학생 명단
기쁨반	안지은 (보조교사: 박주희, 유은서)	명소정, 박가은, 박세희, 박연지, 이주환, 이호윤, 장예진, 장예림, 강건우
충성반	권미정 (보조교사: 권민호, 박희보)	안아민, 윤재윤, 윤지웅, 이준, 이준다니엘, 슐타니가브리엘, 한서진
은유반	원은경 (보조교사: 한동진, 박시은)	김유주, 김이룬, 나예준, 박소율, 신주원, 윤세인, 윤지우, 장시은, 조다나, 조새린
화평반	권만혜 (보조교사: 강태희)	남소은, 박소은, 박채린, 안아라, 오태양, 윤지유, 윤지윤, 김강현
열매반	박은경 (보조교사: 전시현)	강소은, 남하은, 박준우, 이권우, 이남현, 이준건, 장우주, 장하진, 정지우
보조교사	최미영	강태희, 유은서, 전시현, 박주희, 권민호, 박희보, 박시은, 한동진

다솜한국학교 2020~2021학년도 수상자 명단

졸업생	전시현(특별), 정지우, 이남현, 이준건(수료)
이사장상 및 장학금	전시현, 유은서, 박주희, 강태희, 권민호, 한동진, 박희보
졸업 장학금	전시현, 유은서, 박주희
1년 개근상	명소정, 박세희, 장예림, 장예진, 안아민, 윤재윤, 윤지웅, 한서진, 나예준, 박소율, 윤세인, 윤지우, 장시은, 조다나, 조새린, 박채린, 윤지유, 윤지윤, 장우주, 장하진 (총 20명)
모범상	명소정, 박가은, 박세희, 이주환, 이호윤, 장예림, 장예진, 김유주, 김이룬, 안아민, 윤재윤, 윤지웅, 이준, 한서진, 나예준, 박소율, 신주원, 윤세인, 윤지우, 장시은, 조다나, 조새린, 김강현, 남소은, 박소은, 박채린, 안아라, 오태양, 윤지유, 윤지윤, 강소은, 남하은, 박준우, 이권우, 이남현, 이준건, 장우주, 장하진, 정지우 (총 39명)
15년 근속교사상	원은경 교감 선생님, 박은경 교무 선생님
대통령 봉사상(PVSA)	전시현, 유은서, 박주희, 강태희, 한동진, 박희보
SF 총영사상	권민호
SF 교육원 UCC 대회	이준건, 이남현 은상 수상 <제목: 태극기를 통해 표현된 대한민국의 역사>
제17회 북가주구연동화대회	이준 은상 수상 <제목: 다함께 영차, 영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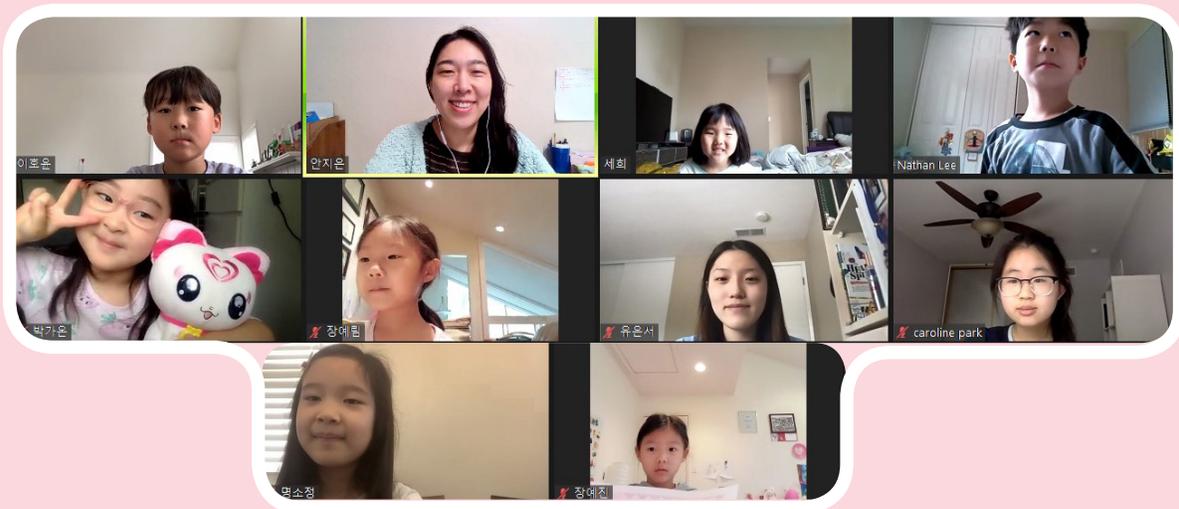
기쁨반

2020~21학년을 온라인 수업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다솜의 기쁨반 선생님이로 세우시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학생들과 성실한 보조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솜의 교사로서 2년째였던 이번 해에는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였고 팬데믹 상황까지 더해져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더욱 귀하며 소중한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쁨반은 가장 어린 학생들로 편성이 되어 총 9명의 학생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팬데믹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직접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마이크를 켜 둘 수 있는 학생들은 켜 두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이야기 꽃을 피우는 학생, 집에서 만든 멋진 작품들을 들고 오는 학생들, 엄마와 baking 한 이야기, 집에서 키우는 나무 이야기.....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보따리를 풀고 싶어 하던 기쁨반 학생들이 기억이 납니다. 세 시간의 시간이 짧게 느껴지던 순간들이 지나고 지나.....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도 향상되었고 학생들의 몸과 마음도 성장하였음을 느낍니다. 1년의 시간 동안 함께 웃고 열심히 공부한 우리 기쁨반 친구들! 건강하게 여름 방학 보내고, 우리 다음엔 네모난 화면 밖에서 환하게 웃으며 만나요!



담임 교사 _ 안지은



기쁨반 단체사진



손유희
달팽이

손유희
월화수목
금토일



손유희
곰 다리 4개
새 다리 2개



다솜 생일
축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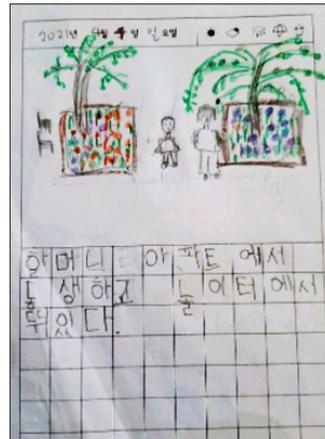
기쁨반



강건우



[그림일기] 동생과의 즐거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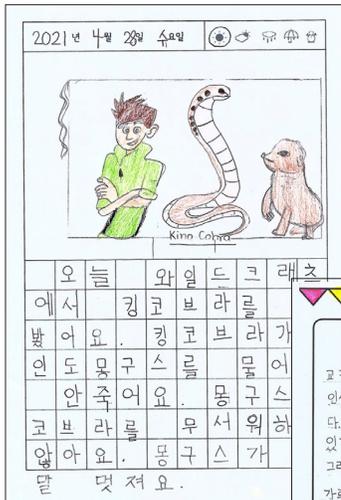
[그림일기] 할머니 댁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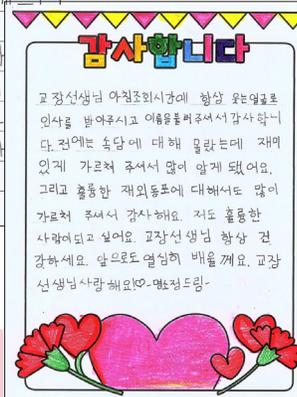
[종이 한복 인형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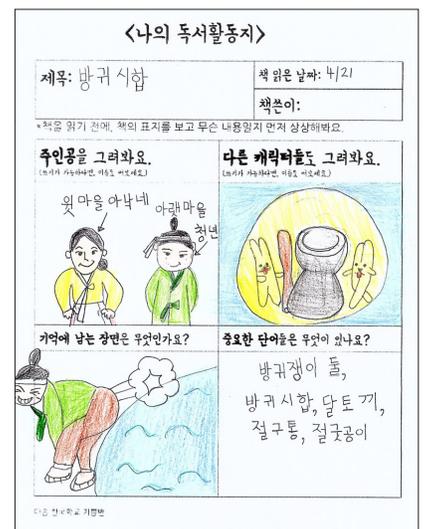
명소정



[그림 일기] 맛있는 몽구스



스승의 날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독서 활동지] 방귀시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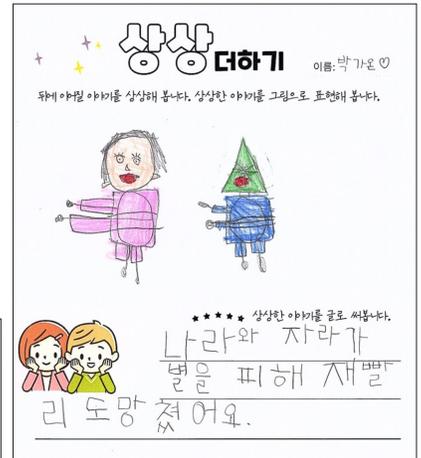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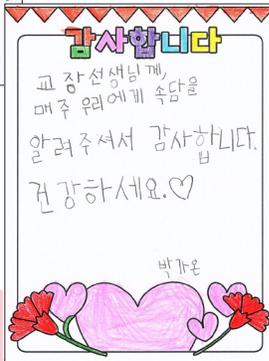


박가운



[그림 일기] 캠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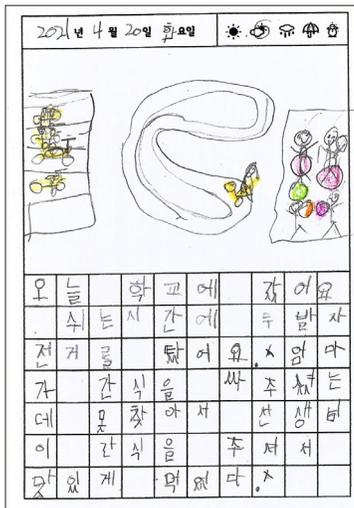
스승의 날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상상 더하기] 우주인 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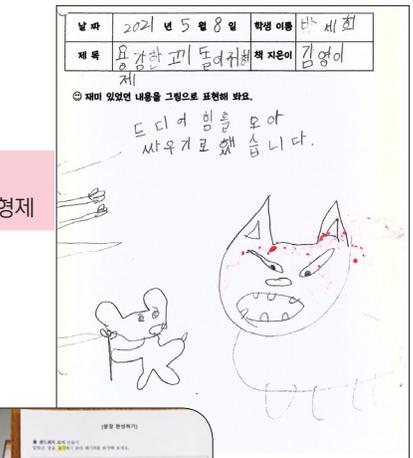


박세희



[그림 일기] 학교

롤 샌드위치 만들기와
문장 완성하기



[독서 감상화]
용감한 괴물이 쥐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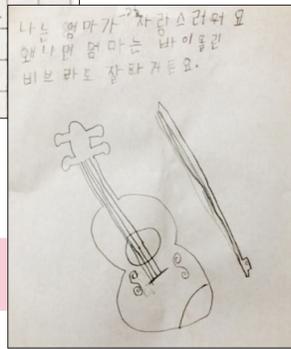
기쁨반



박연지



[그림 일기] 공원에서 보낸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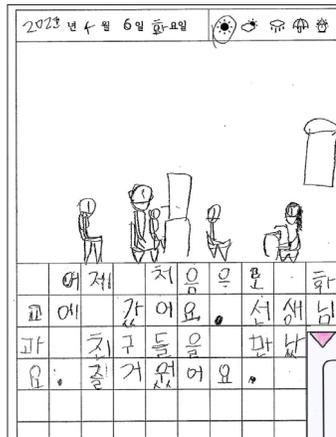
[짧은 글짓기] 자랑스러운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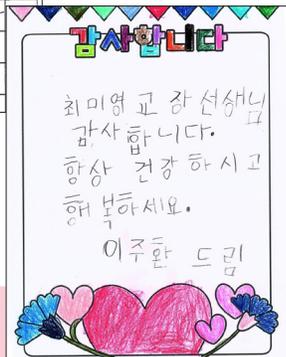
[독서 감상화] 살금살금 호기심쟁이



이주완



[그림 일기] 학교



스승의 날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상상 동물 만들어 보아요!

빈칸에 넣을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사자의 동물을 만들어 보아요.

- 길다 뚱뚱하다 뾰족하다 기늘다 길쭉하다
- 가름하다 날렵하다 작다 크다 납작하다 세모나다
- 둥글둥글하다 둥글납작하다 두껍다 네모나다

- 내 날개는 크다 -
- 내 다리는 날렵하다
- 내 얼굴은 둥글둥글하다
- 내 뿔은 뾰족하다

이름: 이주완



여러분이 만든 사자의 동물을 그려 보아요.

[내가 만든 상상 동물]



이 호 윤

2021년 5월 2일 일요일

제 목	: 캠	핑							
권 구	본	과	목	동	장	세	선		
	내	가	캠	아	장	은			
스	포	어	간	장	어				
코	리	다	만	만	세				
이	야	기	프	하	크	노	앗		
다	나	기	프	이	진	난			

[그림 일기] 캠핑

상상 더하기 이호윤
 왜냐하면 상상을 하면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고 표현해 본다.

***** 상상하기를 꼭 써봐라.
 큰 힘이 될 거 믿어...
 내가 상상할 수 있을지
 하고 드릴 것 같아를 그리고서서
 큰 힘이 될 거 믿어...
 그러면 우주선 안에서 친구들과 놀 수 있을지
 믿기 때문.

[상상 더하기] 우주인 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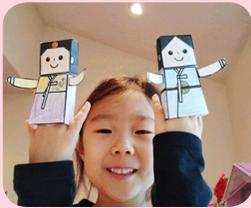
☀ 독서 감상화 ☀

날 짜	2021	년 2월 3일	학생 이름	이호윤
제 목	달콤한 말에 빠진 보물나무		책 지명	이규희

☺ 재미 있었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봐요.

누워서 나무에게 달콤한
 말을 해서 나무가 주는
 선물은
 달콤한 침향에 빠져 살게
 해 주었다.

[독서 감상화]
달콤한 말에 빠진 보물나무



장 예 림

2021년 2월 2일 일요일

엄	마	와	캠	케	익	마	들
었	어	요	재	미	있	었	어
요			두	개	먹	었	어

[그림 일기] 컵 케익



[독도 삼각책]

상상 더하기 이호윤
 왜냐하면 상상을 하면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고 표현해 본다.

***** 상상하기를 꼭 써봐라.
 나라 는 뽕 허진
 벌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자라는 슬퍼서 울었어요.

[상상 더하기] 우주인 자라

기쁨반 특별활동



가을: 허수아비 만들기

동화책 '가을을 파는 마법사'를 읽고, 눈을 지키는 마법사 아저씨 허수아비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만들기

누구보다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기쁨반 학생들이 트리장식을 함께 만들면서 가을학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쁨반
특별활동



봄: 손바닥 꽃 화분 만들기

봄을 맞아, 식물(꽃)의 구조인 꽃잎, 줄기와 뿌리를 함께 공부하고 손바닥 모양으로 종이를 오려 꽃을 만들고 종이컵 화분에 꽂아 주었어요.



강건우



명소정



박가은



박세희



이주환



이호윤



장예림



장예진

기쁨반
특별활동



아버지 날: 카네이션 만들기

5월 8일 아버지 날을 맞아, 감사와 존경의 꽃말을 가진 빨간 카네이션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명소정



박가온



박세희



장예림



장예진

총성반

올해는 그동안 총성반 친구들이 열심히 쌓아온 한국어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해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팬데믹으로 특별한 때를 보내며 집에서 한국어 사용이 늘어나기도 했고, 결석과 지각없이 한국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었던 이유도 있겠지요. 온라인 수업만을 통해서 얼마나 배우고 익힐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글을 발표하고 의견이나 경험담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총성반 학생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컴퓨터를 마주하고 앉은 우리 친구들은 모두에게 주어진 작고 네모난 화면을 통해서 받아쓰기와 종이접기, 직접 만든 레고나 함께 심은 잔디 화분까지 나만의 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림일기의 소재를 직접 준비해서 발표하는 것을 좋아했던 아민이, 수업이 재미있다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을 즐겨했던 준. 특히, 준이는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렸던 콧노래가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어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묵묵히 수업에 집중하며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모두에게 모범이 되어준 지웅이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부분들을 성실하게 해낸 재운, 그리고 총성반의 미소 담당이자 늘 앞장서서 책을 읽어주었던 서진이까지 온라인이지만 서로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어 게임을 멋지게 진행하여 친구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준 민호 선생님과 크래프트와 그림 그리기 등 수업을 위한 준비에 열의를 보여주었던 비비 선생님, 두 분의 보조 선생님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 채워주었던 시간들까지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며 학기를 마칩니다. 만약, '성실상'이 있다면 우리 총성반 친구들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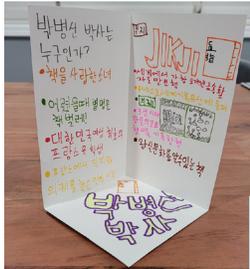
담임 교사 _ 권미정



총성반 단체사진



윤재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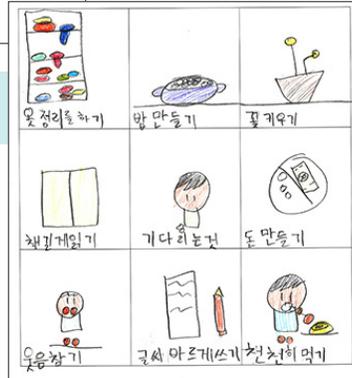


[삼각책 만들기]
내가 존경하는 재외동포



[책과 함께 나 알아가기]
나의 걸모습

[책과 함께 나 알아가기]
내가 할 수 있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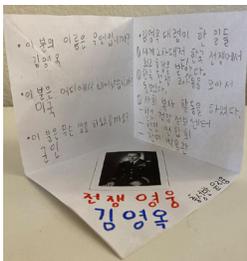
<일기 쓰기> 제목: **스케이트 보드**
2021년 3월 7일 **요일** 날씨: **맑음**

나는 스케이트 보드를 타기 시작했어. 앞으로 가는걸 해봤는데 조금 무서웠고, 위험해 보여서 빨리 갈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차고에서 조금씩만 가는걸을 연습했어. 15분 지났을때 멈추지 않고 엄청 많이 갔어. 재미있었어.

[그림일기]



윤지웅



[삼각책 만들기]
내가 존경하는 재외동포



[책과 함께 나 알아가기]
나의 걸모습



[책과 함께 나 알아가기]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일기 쓰기> 제목: **맛있는 수박**
2021년 4월 26일 **요일** 날씨: **바람이 많이 불어**

어제 코스코에 안경을 고치러 갔다. 안경을 고치고 쇼핑을 했다. 수박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나는 제일 큰 수박을 사고 싶었는데 아바가 다른 수박을 사자고 하셨다. 오늘 저녁을 먹고 수박을 먹었다. 아바가 수박을 자르실 때, 맛있게 보았다. 지윤이가 제일 먼저 수박을 먹었는데 정말 빨리 먹었다. 그래서 '수박이 아주 맛있구나' 생각을 했다.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수박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다.

[그림일기]

충성반
활동사진
모음



안 아 민



윤 지 웅



윤 재 윤



이 준



한 서 진

설날: 종이인형 만들기



아민이는 떡을 길~게 썰었어요



윤 지 웅



윤 재 윤



이 준



안 아 민



어떻게 맛있게 먹지?



한 서 진

설날: 가래떡 썰기, 가래떡 요리하기

충성반 활동사진 모음



동화읽기: 괜찮아 괜찮아

충성반 활동사진 모음



안아민



윤지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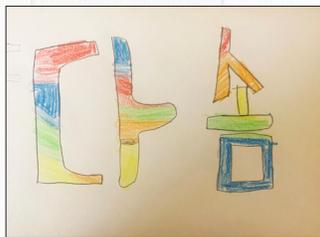


한서진



윤재윤

잔디 키우기



안아민



윤지웅



한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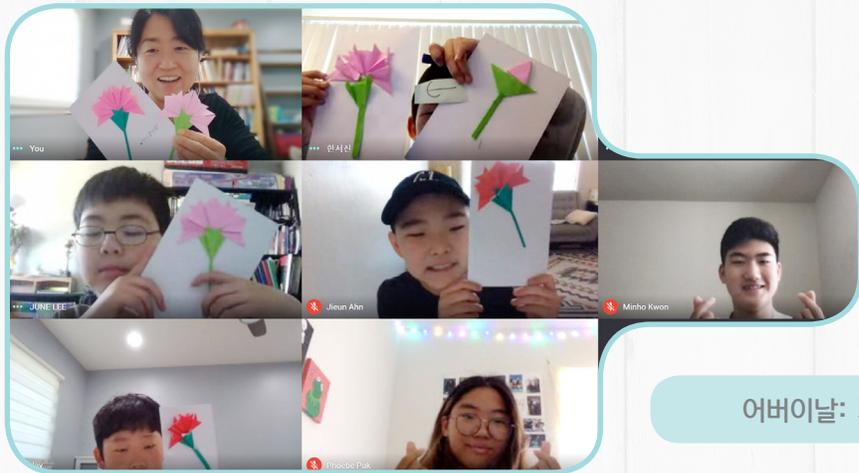
이준



윤재윤

다솜 17주년 개교기념일

충성반
활동사진
모음



어버이날: 카네이션 만들기



발렌타인데이: 하트 막대 사랑 만들기



거북선 만들기

온유반

올해는 코비드-19로 인해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개강식을 하게 되었고, 다솜한 국학교에 처음으로 등록하여 사전에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는 온유반에서 온라인으로 만나고 수업을 하게 되어 조금은 아쉬운 마음과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을학기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온유반에서는 매 단원의 주제별 짧은 글쓰기와 발표하기 훈련을 통해 깊은 생각과 표현력 그리고 발표력까지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또한 올해 역사문화 교육 대주제인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 공부를 통해 여러 재외동포 인물들의 삶을 역할 모델로 배우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멋진 재미한인이 되고 싶다는 다짐과 목표도 세웠고, 개교 17주년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공부한 재외동포 인물과 삼일운동 관련 인물 중에서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골라서 씩씩하게 발표해 주어 무척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온유반 친구들이 멋진 재미한인 리더뿐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과 함께 봉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랑스러운 세계인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매주 건강한 모습으로 온라인 수업에 출석하여 성실히 공부해 준 우리 멋지고 어여쁜 온유반 친구들, 유주, 이룬, 예준, 소울, 세인, 지우, 시운, 다나, 새린,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수업 슬라이드와 동영상 화면 공유로 신실하게 섬겨준 한동진 보조 교사, 매주 조회 시간에 재미있고 유익한 속담 수업 지도와 온유반 수업을 참관해 학생들을 격려해 주신 최미영 교장 선생님, 자녀들의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협력해주신 학부모님들 덕분에 2020-2021학년도를 대면 수업 못지않게 알차고 보람되게 잘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팬데믹 기간 가운데도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다솜 가족 모두를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담임 교사 _ 원은경



온유반 단체사진

온유반 시간표

교시	시간	학습 내용
1교시	9:30~10:10	전교생 조회 (체조, 숙담, 역사문화)
2교시	10:10~10:50	한국어 (10분 간식 및 휴식)
3교시	11:00~11:40	한국어 (10분 휴식)
4교시	11:50~12:30	역사문화 및 특별활동



개강 첫날 수업

V, ㄹ 받침 + 려면
 C + 으려면

가다	→	가려면
먹다	→	
듣다	→	
줍다	→	
만들다	→	
놀다	→	



문법 및 표현을 배워봐요



주막 주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전래동화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



김유주

다솜한국학교 17주년 개교기념식 발표회

날짜: 2021년 3월 13일 | 이름: 김유주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개교기념식에서 경험한 일과 느낀 점을 보세요.

개교기념식에서 Zoom 미팅에 들어가는 걸
잘 기억해요. 그리고 다른 반들은 비디오로만
있었고 우리 반은 유명 한 사람들이랑
발표했어요. 발표할 때 긴장했어요. 다들
난후에는 안심되었어요.

[글쓰기] 다솜한국학교 개교기념식

*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가장 더 하고 싶었나요?

비가 오는 데우산이 없어요, 영마도 없어요.

* 어떤이 전통하면 어떤 사람과 함께 비를 맞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엄마를 기다릴거예요. 엄마 가을꺼니가.

* 비를 사는데 어떤 어떤 상황? 하고 생각하면 어떤들은 어떤 말을 하게 하려고 할까요?

어떤 상황을 사후에 어떤의 한 아이를 사려 말했는데 해의 남달라.

[그림책 프로젝트] 이까지 거!

안창호는 누구인가?

새 계층은 본 독립운동가, 교육자, 정치가, 사상가입니다.

권위권력형의 신민주주의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안창호기념사업회 조직함.

국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
중국과 러시아에 독립운동 기자,
일본과의 독립선언을 준비함.

독산선생님 생애를 접함.

독산선생님 생애를 접함.

1. 독립운동의 지도자요, 서울에서 죽을 것이라.
2. 서로 사랑하면 살 것 아닐지.
3. 죽음이 낫, 작은 일이 낫, 정서적 것이라.
4. 독립운동가 대가라. 그러나 독립운동가의 정신은 언제든 살아야 한다.

독산 안창호 소개 포스터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

She was an organizer for the protest on March 1 1919.

Even though she is dead she is still remembered and admired today and because of her bravery and her patriotic spirit, a statue was made in her honor.

When she was protesting Japanese soldiers arrested her and threw her into jail.

She was put to death at the age of 18.

[내가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언어

나그네 호랑이 한 마리, 구덩이, 울고 있다, 문예를 읽다, 잡아먹다, 약속을 지키다, 변변하다, 길가, 황소, 소나무, 토끼 한 마리, 함정에 빠지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 한 마리를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는 것을 봤어요. 나그네는 호랑이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나그네는 호랑이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호랑이를 잡으려고 했어요. 토끼는 나그네에게 다시는 위험한 약속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야기 요약

[독후 감상화] 토끼의 재판

하나님이 아담 이브를 만들었고,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담 아브가 악수를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벌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이가 들고 죽게 되었다. 죄안 짓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영생을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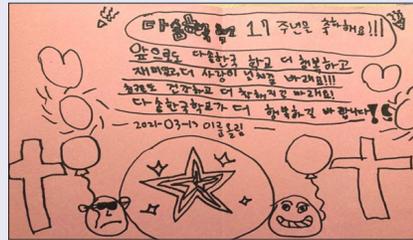
성서 이야기 _ 부활하신 예수님



김이룬



내안에 나



다시나님이 설교말씀을 해주시고 이사장님과 교장 선생님이 축하 인사를 해주셨다. 반별로 사진과 영상 프리젠테이션으로 여러가지를 준비해서 발표했다. 우리반은 존경하는 재외동포에 대해 직접 발표했는데 나는 박병선 박사에 대해 소개했다. 그리고 다솜한국학교 17살 생일을 축하한다고 은유반 친구들과 함께 인사도 했다. 다솜한국학교가 17살이나 된다니 나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고 오래돼서 신기했다. 다른 반 발표들이 재미있었고 나도 발표를 해서 긴장되었지만 마치고 나니 기분이 후련했다. 개교기념식은 처음이라 기대됐었는데 뜻깊은 시간이었다.

[글쓰기] 다솜한국학교 개교기념식

직지와 외규장각 의궤를 세계에 알린 박병선 박사

프랑스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 유력생으로 책과 역사를 사랑한 역사학자였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외규장각 의궤를 찾다가 한국의 고서 작지를 발견한다.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를 발견하고 세계에 알렸다.

프랑스가 억압한 외규장각 의궤 반환에 평생을 바쳤다.

내가 박병선 박사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녀가 우리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노력하여,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찾고 세상에 알렸기 때문이다. 나도 박병선 박사처럼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며, 배우고 공부할 것이다.

[내가 존경하는 재외동포] 박병선 박사

다름은 실남에 하는 일입니다. 그림을 색칠하고 무슨 일인지 <보기>와 같이 문장을 써 넣으세요.

<보기> "설날에는 고운 설빔을 입습니다."

	설날에는 고운 설빔을 입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습니다.
	설날에는 윷놀이를 합니다.

설날에 하는 일

2. 학교, 집, 그 외 장소의 환경 상태는 어떠한? 각 장소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메모해 보세요.

	학교	집	그 외 장소
환경 상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물과 전기를 아껴주고 있어요.	소방화 등 일화용품이 많이 있어요.
환경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최대한 분리수거를 실천해요.	사탕은 10분마다 꼭 내보내고, 2.쓰지 않는 용기는 뽑아내요.	과도에 갈매장 버리기를 꼭 해요.

점점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같은 화환과 거품을 만들 위해서 작지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쓰레기든 쓰레기통에 잘 버리고, 퇴출은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집에서는 물과 전기를 아껴야 합니다. 샤워할 때는 10분 이내에 끝내서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쓰지 않는 거품과 풀러는 뽑아서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갈때 장바구니 꼭 챙겨 가면 비닐봉투를 사줄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나 종이컵도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보호하여 우리 모두 깨끗한 지구를 만들려면 좋겠습니다.

[글쓰기] 환경보호



박소울



내안에 나

다듬한국학교 17주년 개교기념식 발표회
 날짜: 2021년 3월 13일
 이유: 박소울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새미리

개교기념식에서 감명한 일과 느낀 점을 써 보세요.

내가 다듬한국학교에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 중에서 나는 새미리 라는 사람이 인상 깊었어요. 새미리는 연습하러 올 때마다 다이빙 코치와 함께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수업을 할 때도 코치님의 피드백을 받아서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연습 후에 항상 많이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코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없었어요. 이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어려웠어요. 다음엔 큰 무리로 잘 발표하고 싶어요.

[글쓰기] 다듬한국학교 개교기념식

여기에서는 무엇이 '금덩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동화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산골 마을, 풀은아, 나무를 하든, 땅을 팔든, 눈코 뜰새 없이 일하든, 살림살이, 깨니, 짐을 정리하든, 양반, 큰집을 하든, 주인, 시은하, 길을 나서든, 고향집, 도착하든, 땅머리가 지든, 아뵤밤을 목하든, 착스럽하든, 말을 통통거리려든, 주인, 은혜를 갚하든

할기야 상심할지든 그다지 나가지지 않았어요.

양반 잠깐 명숙세요.

점은이는 썩스럼게 웃었어요.

점은이는 방을 통통 걸었어요.

점은이는 남자에게 용덩이를 건네 주었어요.

주인이 금덩이를 주었어요.

주인이 금덩이를 방에 두고 있는 것을 찾았어요.

점에는 도둑 못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왔어요.

점은이는 하룻밤에 잤어요.

점은이가 부엉이에게 편지를 써서 온다고 했어요.

[전래동화]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

새미 리는 누구인가?

새미 리 박사는...

- 1920년 프레즈노에서 태어났어요.
- 미국 최초의 아시아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 의학박사예요.
- 다이빙 코치예요.

새미 리 박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 매주 수요일만 연습하고도 금메달을 이겼어요.
- 공부도 잘하는 의사 다이버이었어요.
- 인종차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분이였어요.

새미 리 박사를 통해서...

-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점을 배웠어요.
- 다이빙을 은퇴하고 코치로 제자를 양성한 점
-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점을 본받고 싶어요.

[내가 존경하는 재외동포] 새미리 박사

제목: 가을이 계속되면 좋겠어
 지은이: 캐스린 홍이
 독서일: 2020년 11월 19일

가을에 친구들이랑 놀아서 재밌게 놀아주는데 겨울이 되어서 말만 하고 한태조이로 붙어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다시 놀아서 슬퍼했어요.

읽고 난 후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독서 감상문] 가을이 계속되면 좋겠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

제가 아파 앓고 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설날 덕담 나누기

'안창호' 삼행시

안창호가 오렌지 농장에 갔어요.
 창문 옆에서 오렌지를 찾았어요.
 호수가 농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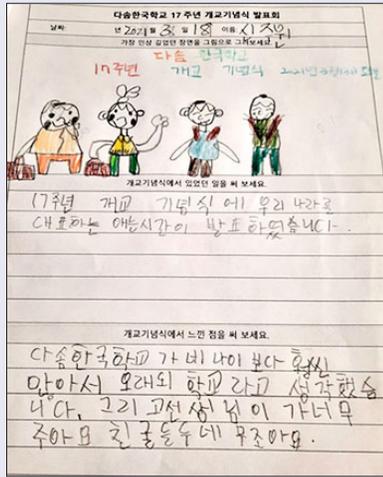
안창호 삼행시



신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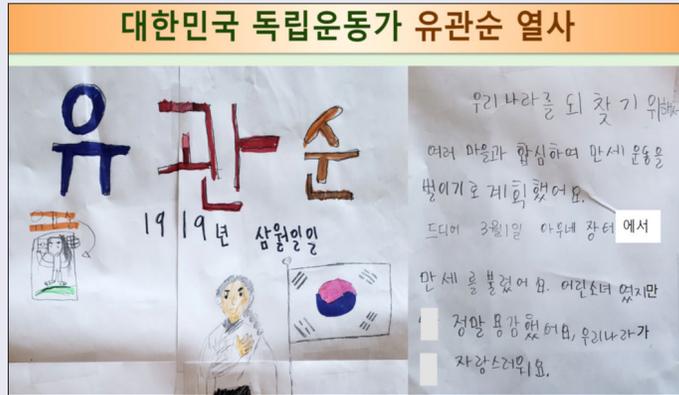
내안에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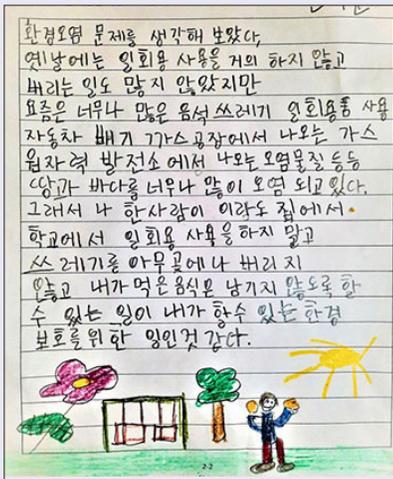
[글쓰기] 다솜한국학교 개교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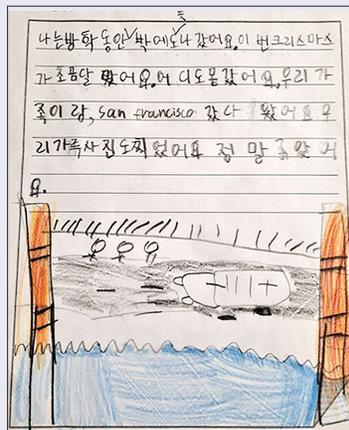
박병선 박사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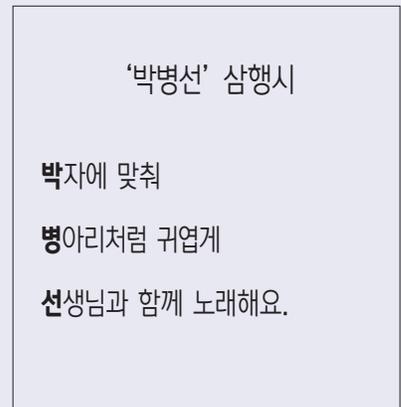
[내가 존경하는 재외동포] 유관순 열사



[글쓰기] 환경보호



[일기쓰기] 겨울방학



‘박병선’ 삼행시

박자에 맞춰
병아리처럼 귀엽게
선생님과 함께 노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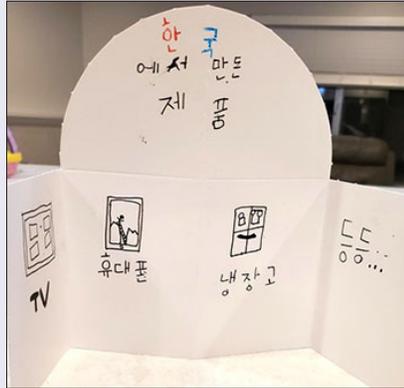
박병선 삼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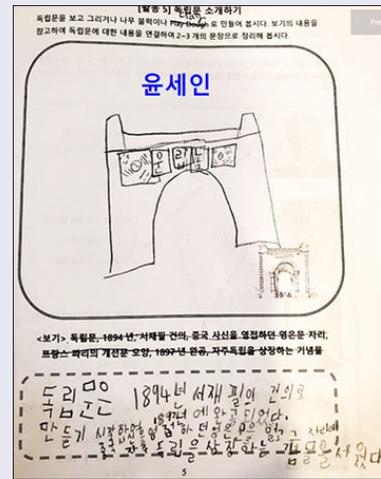
윤세인



내안에 나



한국제품 소개하기



독립문 소개하기

김영옥 대령이 한 일

한국 전쟁에서 싸웠어요.
북한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겨서 남한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도와주었어요.

내가 김영옥 대령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군인으로써 용감하게 전투를 잘 해서입니다.

김영옥 대령이 군인으로써의 일을 훌륭히 잘 해냈던 것처럼,
나도 내가 맡은 일을 아주 잘 해내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재외동포] 김영옥 대령

3. 학교, 집, 그 외 장소의 환경 상태는 어떠한가? 각 장소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예로써 보세요.

	학교	집	공원
환경 상태	나무가 많다. 인도교통을 많이 쓴다. 주거	태양열 에너지 사용. 친환경 용품 사용. 음	쓰레기가 많다. 안전한 나무가 많다. 중간
환경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학교에 걸이개구리 자전거대박기	전선하기, 공이 이기려서.	쓰레기 줍기

3. 예외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를 주제로 글을 써 보세요.

학교에는 나무가 많아요. 하지만, 학교에 걸이개구리
인도교통을 많이 써요. 중간에요. 학교에 걸이개구리
자전거. 타고가면 좋아. 집에서는 태양열
에너지를 쓰고, 전기차를 운전하
고 있어요. 경주하고 좋아해요. 서울도, 공원은
쓰레기가 많아요. 나무가 많아요. 중간에요.
쓰레기를 주워서 더 깨끗하게 만드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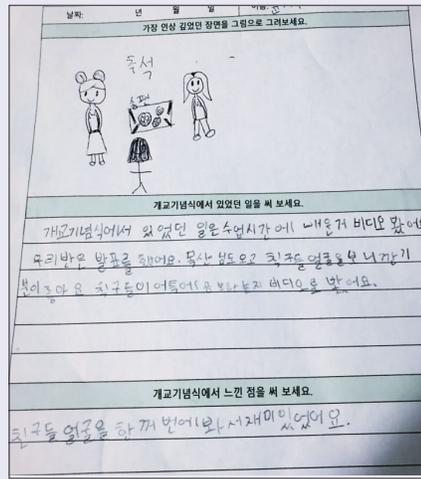
[글쓰기] 환경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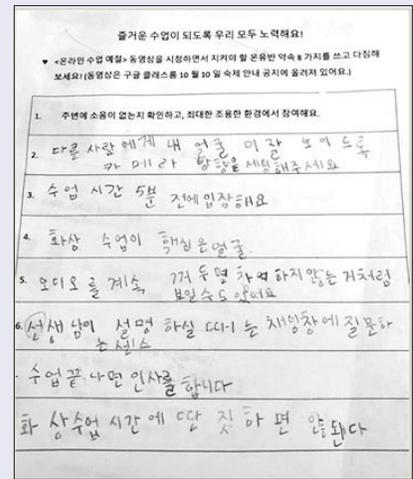
윤지우



내안에 나



[글쓰기] 다솜한국학교 개교기념식



온라인 수업 예절

박병선 박사님
박병선 박사님이 직지와 의계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찾았어요.

박병선 박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인 의계를 가져오려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요.

다짐
박병선 박사님처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재외동포] 박병선 박사

2. 학교, 집, 그 외 장소의 환경 상태는 어떠한가요? 각 장소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메모해 보세요.

	학교	집	그 외 장소
환경 상태	쓰레기가 많다	불이 꺼져 있는 방이 많다	자동 관에서 나오는 마연.
환경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재활용을 잘 해야 돼요	기름을 끄고 나가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닙니다

[글쓰기] 환경보호

3.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를 주제로 글을 써 보세요.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쓰레기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전등을 잘 끄고 너무 많은 일회용품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환경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은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 주어야 합니다.

'박병선' 삼행시

박병선 박사님은 병이 있었지만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셨습니다.

박병선 삼행시



장 시 은

자랑스러운 재미동포 김영옥 대령

김영옥 대령은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입니다.

내가 김영옥대령을 좋아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특별히 한국전쟁에서 많은 전쟁 고아를 돌봐주셔서 너무도 존경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재외동포] 김영옥 대령

1.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의 영상을 보면서 알아 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5K9N1b88w>



2. 학교, 집, 그 외 장소의 환경 상태는 어때요? 각 장소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메모해 보세요.

	학교	집	그 외 장소
환경 상태	1. 필요없이 종이를 많이 쓴다. 2. 필요없이 테이프를 많이 쓴다.	1.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2.세탁물에 세제를 자주 쓴다.	1.식당에서는 일회용포장을 많이 사용한다. 2.음료수 일회용컵을 많이 사용한다.(예: 스타벅스, 티스푼)
환경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1.A4 종이를 재활용 한다 2.학교에 비용을 아끼는다.	1.음식은 먹을만큼만 요리해서 남기지 말고 먹는다. 2.빨래는 한꺼번에 모아서 빨아 최소한의 세제를 사용한다.	1.식당에서는 재활용할수있는 포장재종을 사용한다. 2.음료수를 먹고실용팩은 자신이 사용하는 텀블러에 담아서 사먹는다.

3.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를 주제로 글을 써 보세요.

저구가 많은 쓰레기들과 많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온난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배달음식을 많이 먹고 해서 일회용품 쓰레기도 넘쳐나고 수많은 마스크 사용으로 동물들도 많이 죽어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각계나마 환경보호에 힘쓰기 위해서는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를 결해야 하고 버리는 마스크는 끈을 꼭 잘라서 버려 동물들의 발이나 목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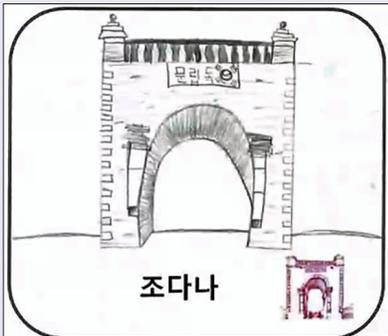
[글쓰기] 환경보호



조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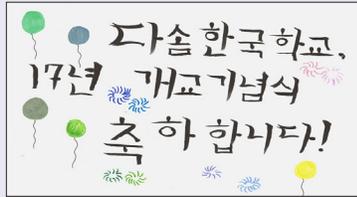
내안에 나



조다나

<보기> 독립문, 1894년, 서재필 건의,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영문문 자리에 프랑스 파리의 개신교 모악으로 독립문을 만들었어요. 자국 독립을 상징하는 기념물이에요. 독립문은 1971년 완공됐어요.

독립문 소개하기



먼저 기쁨반이 박병선 박사님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충성반은 동화책을 읽었어요. 그림도 그렸어요. 다음은 우리 온유반 차례였어요. 우리는 다른 반처럼 동영상으로 하지 않고 직접 발표를 했어요. 발표하기 전에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진정하려고 해도 잘 안 됐어요. 제 차례가 끝난 후에는 마음 편히 다른 발표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반 다음에는 화평반 상주 기르기 동영상 발표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열매반이었어요. 발표하는 것과 발표 듣는 것이 둘 다 아주 재미있었어요.

[글쓰기] 다솜한국학교 개교기념식

[활동 4] Design My Own Decoration 나만의 훈장 디자인하기

훈장은 나라와 사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국가 원수가 수여하는 메달이나 빛이 같은 것입니다. 사진에 있는 훈장을 보고 나만의 훈장을 디자인해 봅시다. 누구에게 왜 주고 싶은지를 말해 봅시다.



나만의 훈장 디자인 하기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Sammy Lee 새미 리 박사



출생지: 캘리포니아 코스타노

출생: 1920
사망: 2016



새미 리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민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되셨어요.



새미 리는 연년올림픽(1948)과 올림픽올림픽(1952)에서 다이빙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최고의 아버지가 선수에게 주는 메달인 실버볼도 받았어요. 새미 리는 올림픽 다이빙 선수들의 코치도 했어요.

재가 새미 리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성공했어요.



지도 새미 리처럼 모든 일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요.

[내가 존경하는 재외동포] 새미리 박사

환경을 보호해야 해요. 왜냐하면 지구가 우리 집이니까요. 학교에서 환경 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에어컨을 틀고 일회용품을 쓰고 쓰레기는 바닥에 버려요. 그래도 학교 버스를 타고, 물을 아끼기도 했어요. 우리는 환경 보호를 위해 선풍기를 쓰고 일회용품 대신에 재활용품을 쓸 수 있어요. 쓰레기도 치울 수 있어요. 집의 환경 상태는 좋아요. 에어컨을 틀지만 재활용품을 많이 써요. 그리고 물을 아끼고 나무도 심었고 불도 아껴요. 환경을 보호하려면 에어컨을 안 틀고 선풍기를 쓸 수 있어요. 음식점에서 좋지 않은 환경 부분은 에어컨을 틀고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머그잔을 쓰고 불과 물을 아껴요. 환경을 더 보호하려면 선풍기를 쓰고 재활용품을 쓰고 최대한 음식을 남기지 않는 노력을 하면 돼요. 여러가지 노력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전기차를 타고 태양광 에너지를 쓰고, 일회용품을 자제하고 쇼핑백을 항상 써요. 이런 작은 행동이 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글쓰기] 환경보호



조새린



내안에 나

겨울 방학에 나는 엄마와 다나과 부쉬드노엘을 만들었어요. 먼저 머랭 비섯을 만들기위해 계란 흰자와 같은 양의 설탕을 넣고 섞은뒤 그 머랭을 비섯처럼 만들어서 오븐에 넣고 기다렸어요. 나중에 머랭 비섯 위에 코코아 가루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는 부쉬드노엘의 나무 부분을 만들었어요. 부쉬드노엘의 나무가 오븐에 있을때 크립을 만들었습니다. 다 합쳐고 먹어봤어요. 아주 맛있었어요!

[글쓰기] 나의 겨울방학



기쁨반이 먼저 발표했어요. 비디오였고 귀여웠어요. 충성반이 다음이었고 동화책 비디오를 발표했어요. 창의적이었어요. 화평반은 상추를 기르는 비디오를 발표했어요. 상추 기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열매반의 발표도 재미있었어요. 다른 반 발표가 재미있고 좋았어요. 제가 발표할 때 긴장됐어요. 왜냐하면 실수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발표를 마친 다음에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어요.

[글쓰기] 다솜한국학교 개교기념식

조새린

<보기> 독립문, 1894년, 서재필 권의,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 자리,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모양, 1897년 완공, 자주독립을 상징하는 기념물

서재필의 권의대문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 자리에 1894년에 지어졌으며,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독립문은 1897년에 완공하고 자주독립을 상징하는 기념물이에요.

독립문 소개하기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박병선 박사님

Dr. Park Byeong Seon
출생(born): 1923
출생지(birthplace): 서울
사망 (died): 11/23/2011

박병선 박사의 업적
Dr. Park Byeong-Seon's accomplishments

직지 Jikji
박사님은 오랜동안 연구한 결과, 직지를 재발견해서 파리 도시 장외회에서 보여줬어요. 박병선 박사님은 프랑스가 의례를 정당하게 가지 못하게 아니라는 것을 알렸고, 의례를 할때 다시 물러주도록 만들었어요.

의궤 Uigwe
After countless years of searching she "rediscovered" Jikji and showed it in a book fair in France. She proved that Uigwe was not rightfully France's and got Uigwe back to Korea.

저는 박병선 박사님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의례를 한국에 다시 보내기 위해서 오랜동안 직지랑 의례를 찾으려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I respect Dr. Park Byeong-Seon because she spent countless years searching for Jikji and Uigwe, to try to return Uigwe to Korea.

저도 박병선 박사님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Like her, I will never give up.

[내가 존경하는 재외동포] 박병선 박사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학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이컵 대신 물병을 쓰면 좋아요. 학교에서 물을 아껴 쓰면 좋아요.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좋아요. 집에서는 에어컨보다 선풍기를 쓰면 좋아요. 불필요한 전원을 끄면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예요. 냉장고는 필요할 때만 쓰면 좋아요. 종이를 재활용하면 좋아요. 옷도 재활용하면 좋아요. 비닐봉지를 쓰지 말고 가방을 쓰세요. 쇼핑을 필요한 것만 해야지 물건 낭비하지 않아요. 다른 장소에 갈 때 가까운 거리면 걸거나 자전거를 타면 좋아요. 가솔린 자동차를 쓰지 않고 전기 자동차를 쓰면 좋아요. 그리고 나무를 많이 심으면 공기가 더 깨끗하게 돼요. 지구를 보호할 방법은 많아요. 모두 지구를 보호해 주세요!

[글쓰기] 환경보호

온유반
활동사진
모음



설날: 떡국 만들어 먹기

온유반
활동사진
모음



김이룬



나예준



박소울



윤세인



윤지우



신주원



장시은



조다나



조새린

독도 모형 만들기

온유반
활동사진
모음



김이룬



윤세인



나예준



박소율



윤지우



조다나



조세린



장시온

어버이날 상 메달 만들기

온유반
활동사진
모음



양말 가랜드 만들기

온유반
활동사진
모음



김이룬



박소율



윤지우



나예준



장시온



조다나



조새린

평화를 위한 '한반도기' 동상 만들기

온유반
활동사진
모음

한지 등 만들기

조
다
나



나
예
준



조
다
나

나
예
준

한지 등 만들기

조
새
린



김
이
룬



조
새
린

김
이
룬

한지 등 만들기

장
시
온



김
유
주



장
시
온

김
유
주

한지 등 만들기

박
소
울



윤
세
인



박
소
울

윤
세
인

한지 공예

화평반

성실함으로 무장하여 다양하고 즐거운 수업 시간을 함께 만들어온 화평반 친구들과 함께했던 1년은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화평반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오랫동안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COVID-19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진행된 온라인 수업이라 학생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수업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학생들 덕분에 종강이라는 곳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화평반의 개구장이 태양이, 만화를 정말 잘 그리는 즐거운 아라, 성실한 화평반 모범생 지유, 캘리그래피의 장인 지윤이, 조용하지만 성실한 박소은, 그림과 만들기 등등 재주 많은 남소은, 화평반 막내지만 최고의 농사꾼 채린이, 봄학기에 함께하게 됐지만 친화력 최고인 강현이, 든든한 강태희 보조 선생님. 각자 다른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보내면서, 서로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선생님으로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일 년을 보냈습니다. 화분 키우기 프로젝트를 통해 씨앗에서 싹이 트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다같이 웃고 다같이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주어야 씨앗에서 싹이 트고 열매가 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알고 학생들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풍성히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화평반 친구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교사 _ 권민혜



화평반 단체사진



김강현

화분 관찰 일기

화분 이름: Bob

씨앗을 심은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먼저 흙을 잘 풋어요. 그 다음에 구멍 파 가지고 씨를 심었어요. 마지막은 흙을 덮어났어요.

첫 싹이 나올 때 느낌은 어땠나요?

너무 신나서요!

화분을 키우면서 가장 즐거웠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쌈이 일곱 마리 퍼올 때 제일 즐거웠어요.



화분 키우기 프로젝트



남소은



화분 이름: 남도, 소도, 은도

Q 씨앗을 심은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A. 흙을 화분에 각채운뒤 손가락으로 구멍을 만들고 씨앗을 3개 넣고 1 문은 많이 뿌려 줬어요...

Q 첫 싹이 왔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A. 2주 넘게 대역이 없었던 토마토가 모처럼 왔을 거고, 드디어 나와서 행복하고 놀라웠어요.

Q 화분을 키우면서 가장 즐거웠던 이야기는 해주세요.

A. 제법 제 마음이 제일 즐거웠던... 거는 토마토를 두 번째로 옮겨왔고 내어 많이 자라서 제일 즐거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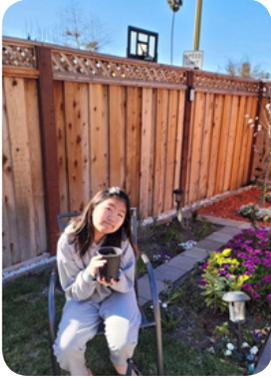
화분 키우기 프로젝트

속담 소개하기

어떤 속담인가요?	공든 탑이 무너지라
속담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공든 탑이 무너지라 의 뜻은 노력해서 만든거는 잘 부리지 않다는 말이에요. 또는 열심히 공부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위의 속담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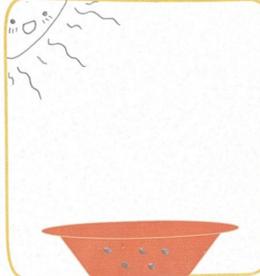
[속담 소개하기] 공든 탑이 무너지라



박 소 은

화분 관찰 일기

화분 이름: Lumpy



씨앗을 심은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화분을 준비 합니다.
 흙을 반 정도 한분에 담아요
 도마도 써서 흙 위에 놓아요
 흙을 화분 에가 두 채 줘요.
 물을 준답니다.

첫 씨앗이 나왔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아직 싹이 안났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화분을 키우면서 가장 즐거웠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첫 싹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때
 기대했는데, 아직 싹이
 만나와서 슬퍼요.



화분 키우기 프로젝트



박 채 린

화분 관찰 일기

화분 이름: 상춘이



- 씨앗을 심은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① 씨를 받아서 통에 넣어요.
 ② 물을 살짝 뿌려요.
 ③ 싹이 나면 흙에 옮겨심어
 요.
 ④ 사랑, 햇님, 물을 매일매일
 주기!!!

첫 씨앗이 나왔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첫 싹이 나왔을 때 기쁘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어찌게
 작은 씨앗에서 상춘이가
 나올까? 궁금했습니니다.

화분을 키우면서 가장 즐거웠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가 화분을 키우면서 가장
 즐거웠을 때는 상춘이가 매일
 매일 자라는 것을 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직접 키운
 상춘을 삼겹살과 먹을 때
 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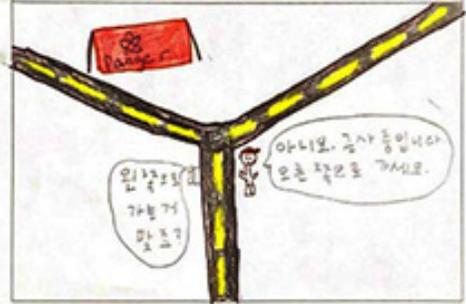
화분 키우기 프로젝트



속담 소개하기

어떤 속담인가요?	아는 길도 물어 가라.
속담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안고있는 것도 다시 한번 하는 것은 좋은 것이므로, 확실하고 실수를 안 하는게 중요해요.

위의 속담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속담 소개하기] 아는 길도 물어 가라

화분 관찰 일기



안 아라



화분 이름: Mrs. Tom A. Tom

서양을 심은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1. 화분에 흙을 3/4 넣었다.
2. 씨앗을 하나씩 흙위에 뿌렸다.
3. 그 위에 흙으로 덮었다.
4. 물을 조금씩 부려 줬다.

첫째 날 물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첫째 날 물을 때, 토마토는 실패하지 않아서 행복했어요!

화분을 키우면서 가장 즐거웠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루가 다르게 길어지는 줄기와 중심해지는 잎들만 보면의 줄이 많은 대리플라고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화분 키우기 프로젝트

속담 소개하기

어떤 속담인가요?	세살 버릇 여든 간다.
속담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어릴 때 CCH부터 가지고 있는 버릇들이 나중에 들어서도 그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
위의 속담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속담 소개하기] 세살 버릇 여든 간다



오 태 양

나의 화분 관찰 일기

화분 이름: 토마토

날짜: _____

관찰한 내용 상세하게 일기 작성

씨앗은 화분에 심었다. 이틀이 지난 뒤 씨앗은 조금은 길어졌다. 내가 물을 주면 에는 비닐 하판도 안 붙어 있었다. 그런데 토마토는 자라지 않았다. 물도 조금 주었다.

특별한 일과 특별한 말

화분에 씨앗과 토마토를 심은 후에 주었던 너도밤이 나고 있었다. 토마토가 어리면 얼마큼 같이 먹음 되고 있는데 신기하다. 다음엔 조금더 관심으로 주고 관찰해야겠다.

화분 키우기 프로젝트



윤지유



화분 관찰 일기

화분 이름: 동그스리 배그대그이 옛날 야옹

(양귀비꽃이)



씨앗을 심은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1. 화분에 좋은 것은 정도 넣어요.
 2. 씨끼 손가락을 손에 살짝 넣어서 구멍을 만들어요.
 3. 씨앗은 구멍에 넣고 여백을 덮어주듯이 흙을 살짝 덮어주세요.
 4. 물을 듬뿍주세요.
 5. "꼭꼭 관 잘라심"라고 말해요.
 6. 햇빛이 있는 곳에 화분을 두어요.

첫 씨앗이 나올 때 느낌은 어땠나요?

토마토 씨앗은 심고 첫 씨앗이 날 때까지 5주까 견뎌요. 보통 씨앗이 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7일정도라서 해서 기쁘게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뿌리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5주쯤 기다려서 드디어 첫 씨앗이 나왔어요! 너무 기쁘고 신기했어요. 이렇게 작은 씨앗에서 씨앗이 나온 땅콩만큼만 예쁜 토마토가 된 거라고 생각하니 신나고 기대돼요.

화분을 키우면서 가장 즐거웠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토마토와 매일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즐거웠어요. 물, 햇빛, 영양과 비료 먹으면서 자라는 것이 신기해요. 그리고 식물을 키우면서 이전엔 다 만드신 레시피가 대단 한 별미인 것 같네요.

화분 키우기 프로젝트

속담 소개하기

어떤 속담인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속담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사람은 살아 있을 때 훌륭하고 착한 일을 하면 후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거예요. 그리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는 뜻이에요.

위의 속담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속담 소개하기]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윤지윤



화분 관찰 일기

화분 이름: 심심



씨앗을 심은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1. 화분에 흙을 많이 넣고 손가락으로 작은 구멍을 만들어요.
 2. 구멍에 씨앗을 넣고 흙을 살짝 덮어주세요.
 3. 이제 물을 주고 기다려요.

첫 씨앗이 나올 때 느낌은 어땠나요?

처음으로 씨앗이 나왔을 때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내구심은 씨앗에서 잎이 나오게 신기했어요. 씨앗은 작고 귀여웠어요.

화분을 키우면서 가장 즐거웠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매일 부수는 친구가 생겨서 행복했어요. 심심이는 키가 컸고, 심심한 냄새도 났어요.

화분 키우기 프로젝트

속담 소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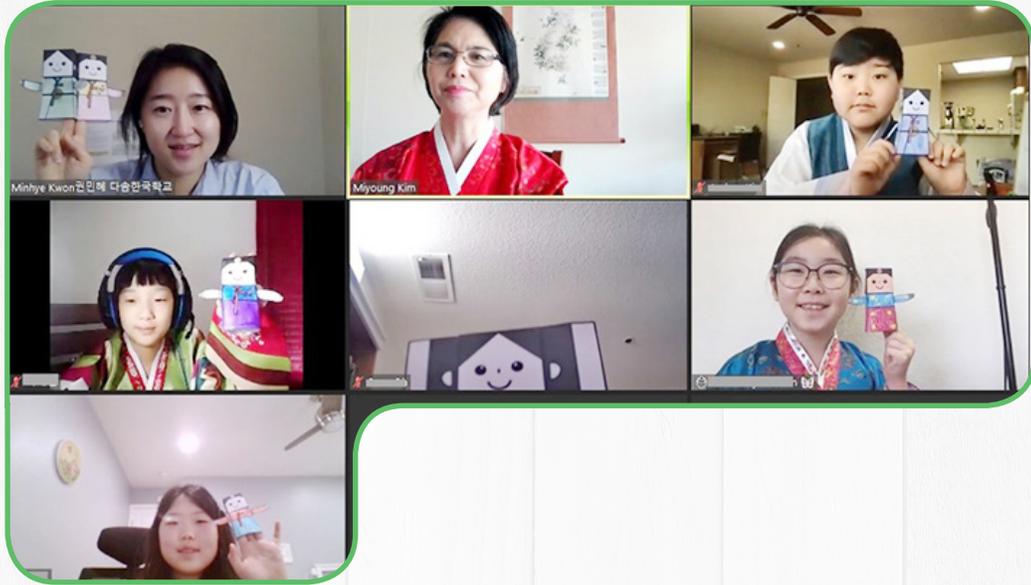
어떤 속담인가요?	우물 안 개구리
속담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넓은 세상에 경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작은 우물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위의 속담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속담 소개하기] 우물 안 개구리

화평반
활동사진
모음



윤지윤 설날 떡국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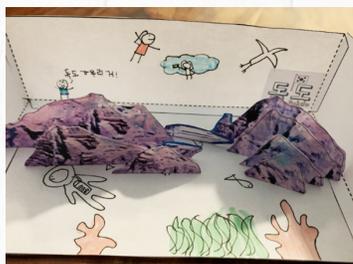
안아라 설날 인형 만들기



박채린 설날 떡국 만들기

설날 수업

화평반
활동사진
모음



독도의 날 수업

화평반
활동사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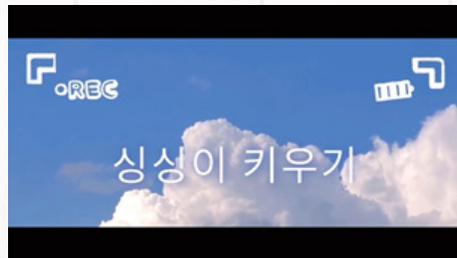
화분 이름표 만들기



윤지유



박채린



윤지윤

프로젝트 활동 영상

열매반

2020년 가을학기에는 새로운 반이 생겼습니다. 새로 생긴 우리 반은 사랑반부터 진급한 학생들이 기쁨반, 충성반, 운유반, 화평반을 지나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의 열매반입니다. 열매반은 정규학교 6학년에서 9학년에 재학중이며 한국어가 고급반 수준인 학생들이 9명 모여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주 토요일 아침, 온라인 상에서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도 하며, 글을 쓰고 작품을 만들며 선배간의 정과 배움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교사 _ 박은경

한국학교 보조교사계 최고의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 시현 선생님과 그 뒤를 이어 보조교사계 셋째가 될 지우, 남현이, 준건이가 술선수범하여 이론 형님(졸업생) 그룹 덕분에 동생들의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탁월한 센스의 글과 작품, 자신감과 솔직함으로 선생님을 미소짓게 해 주었던 소은이, 하은이, 하진이는 이름까지 비슷하여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여학생 그룹입니다. 다솜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온 우주, 준우, 권우가 출석, 과제, 새로운 경험에 대한 도전과 끈기, 책임감 면에서 매주 감동을 주었던 우트리오(세 명 모두 이름에 '우' 자가 들어갑니다) 덕분에 교사로서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름방학을 지나 동생들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는 졸업생들, 형이나 언니 덕분에 즐거움과 큰 도움이 되어 배움을 이어가겠다는 후배들의 서로를 향한 고백과 다짐이 따뜻했던 종업식 날의 기억이 열매반 학생들의 앞날에 힘과 축복의 연료가 되길 기도합니다.



열매반 단체사진



강 _ 강물처럼
소 _ 소리없이 흐름을 따르는
 조용한 성격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은 _ 은근 수다쟁이입니다.



남 _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하 _ 하늘을 빛나게 한다
은 _ 은하수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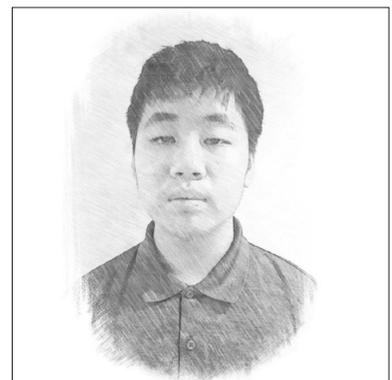
박 _ 박수를 칩시다
준 _ 준비되었나요?
우 _ 우리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이 _ 나라 저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친구에게 가보기를
권 _ 권하는
우 _ 우리 대한민국 만세!!!



이 _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 _ 남현이는
현 _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학교 학생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 _ 이빨을 드러내는 호랑이와
준 _ 준엄한 갈기를 뽐내는 사자
건 _ 건넌방에서 들리는 포효.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언어의 다툼



장 _ 장남은 아니지만
우 _ 우주는 가족을 가장 사랑하고
주 _ 주님을 사랑합니다



장 _ 장점이 많지 않지만
하 _ 하나를 고르라면
진 _ 진짜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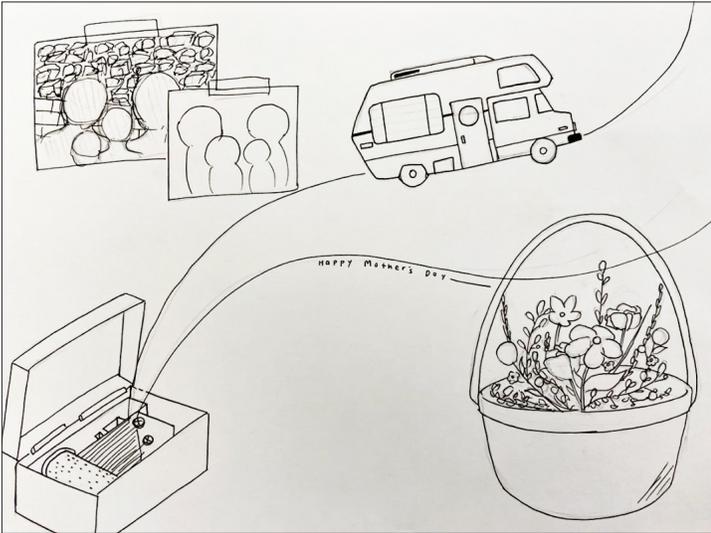


정 _ 정이 많고
지 _ 지해도 있는 친구를 만나면 좋은
우 _ 우정을 가질 수 있다

부모님 전기문 프로젝트

강소은 _ 저의 엄마는 1971년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엄마의 인생 첫 기억은 초등학교 졸업식이라고 합니다. 저의 엄마는 애완동물을 무서워 위해 가지고 키워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온 지 오래 되어가지고 옛날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졌지만, 그래도 계속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엄마가 개한테 쫓긴 적이 있어 가지고 개를 무서워 합니다. 아직도 무서워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학생이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였어요. 저의 엄마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지만 어렸을 때는 달리기를 했대요. 그리고 대학을 가서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첫 직업은 성인이 되어 회사의 구매팀에서 일을 했대요. 저의 엄마는 가족이 참 좋습니다. 1 남 4 녀가 있고, 그 중에서 첫째입니다. 형제 모두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기억은 아이들을 낳았을 때라고 했습니다.





남하은 _ 우리 엄마는 1978년 대구에서 아버지가 군인인 가정에서 태어나셨다. 두 자식 중에 막내로 부모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직업 탓인지 엄청 엄하고 보수적이었고, 어머니는 온화하고 자상하셨다고 한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무시 위했고, 나중에 자기는 꼭 자식들을 보수적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겨우 2살 차이나는 오빠가 있어서 그런지 자주 싸웠고,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나서 숨어서까지 싸웠다고 한다. 말 그대로 현실 남매였다. 하지만 친구들은 오빠가 없어서인지 엄마를 많이 부러워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때 엄마는 어머니와 함께 매주 토요일 교회 성전 꽃꽂이를 위해 꽃 시장에 가는 걸 가장 좋아했다고 한다. 지금은 어머니가 엄마와 함께 할 수 없어 꽃꽂이하는 어머니를 보던 기억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듯하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군인 일을 그만두시고 한 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이로 인해 가난해졌다고 한다. 어려움이 많아서인지 엄마는 하나님께 더 간절해졌고 중학교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성인(20대)이

되었다. 비록 대학교 때 하나님을 떠나 산 것과 꿈을 좇지 않고 돈을 따라 직장을 선택하였으나 좋은 신랑과 나를 얻었다고 한다. 내가 잘 먹지 않아 이유식을 2시간 동안 먹일 때가 힘들었다고 한다. 힘든 시기에는 간절히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한다. 그렇게 20대가 끝났다. 엄마는 남편과 딸 두 명과 좋은 시간을 보냈고, 우리 가족은 2017년에 미국으로 오기를 결심했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유럽 여행을 갔다. 어쩌면 다시는 못 갈 유럽이기 때문에 엄마는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캠핑카 하나를 대여해서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들을 돌아다닌 것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는 가족여행을 하지 못하였기에 유럽에서 함께 하는 여행이 더 특별했다고 한다.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실한 엄마를 생각하며 나는 더 열심히 엄마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살아야겠다.

박준우 _ 아빠를 인터뷰하고 나서 아빠와 저는 같은 점보다 다른 점이 많았어요. 아빠도 저도 콩밥을 싫어하고, 아빠도 저도 싫어하는 과목이 역사예요. 하지만 아빠는 24세에 첫 휴대폰을 가졌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아빠는 강아지, 새, 병아리 등 많은 애완동물을 키워봤는데 저는 아직 키워보지 못했어요. 저도 꼭 키워보고 싶어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로마인 이야기' 이고, 좋아하는 영화는 'Rocky' 래요. 제가 좋아하는 책은 'Life of Pi' 예요. 아빠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야구, 축구, 자전거와 낚시 등 밖에서 하는 놀이를 주로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수학 선생님이시고, 할머니는 가정주부셨어요. 아빠는 유럽을 다시 가보고 싶어하고, 저는 뉴욕에 또 한 번 가보고 싶어요. 아빠는 운동 중에 골프,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저는 축구가 제일 좋아요. 아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저와 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태어난 우리들은 아빠랑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많지만 아빠를 좋아하고 사랑해요.



이권우 _ 엄마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미국에서 일해보고 싶어 미국에 오셨고, 아빠는 어릴 때 꿈꾸었던 그림 그리기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 학교에 입학하셨어요. 그 후에 아빠가 졸업하고 석사를 획득해, 아웃소싱 매니저로 일하기 시작했고, 엄마는 간호사로 일하다가 아빠를 만나 결혼을 하셨고 저를 낳은 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간호사를 관두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하셨어요. 요즘에는 유치원 교사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아빠는 미팅도 많고 엄마는 매일 가르치러 가요. 매일 매일 엄마와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가끔씩 감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어야 해서 엄마는 빵 굽기를 취미로 시작해서 맛있는 빵과 케이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아빠의 취미는 권투, 줄넘기 같은 운동입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에게 이 훈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와 제 동생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했으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정말 발이 닳도록 노력해주셨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정말 훈장이 몇백, 몇천개라도 부족할 것 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부모님 인터뷰는 나에게 하나의 리마인더였다. 부모님도 사람이라는 것을,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의지할 수만 있는 존재가 아닌, 때로는 내가 나서서 돕고 위로해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모님에게 또 하나의 인생이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웠다. 나는 진정 부모님을 하나의 사람으로 대했던 것일까, 그저 짜증내고 화내며 하나의 물건으로 대했던 것일까. 부모님도 나처럼 상처를 받으며 속으로는 아파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웃음과 위로로 나를 보듬어주었던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준건 _ 최근 한국학교 프로젝트로 부모님께 어릴 적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부모님의 학교 성적이라던지, 취미라던지. 지금과는 달리 학생 때에는 꽤나 장난기가 많았던 아이였다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 라면을 끓여 먹었다니, 지금의 어머니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어머니의 가족들, 그러니까 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지금은 마냥 평화로워 보이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사이가 과거에는 꽤 좋지 않았던지, 외삼촌과는 싸우면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지. 어머니의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가 걸어왔던 길,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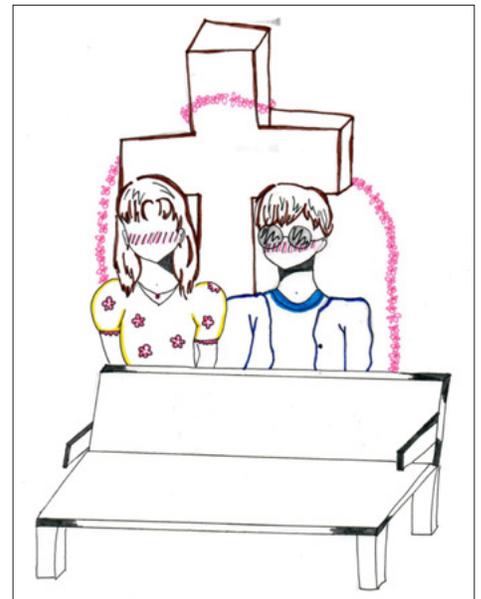
보통 부모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든직한 존재?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우리의 영웅? 어릴 때의 나의 부모님에 대한 인식이 그러했다. 내 아버지의 등만큼 넓은 것은 없었고, 내 어머니의 손처럼 따뜻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면서 부모님도 사람이라는 것을, 나와 같이 피와 살로 만들어진 유한한 생명이라는 것을 가끔 깨닫는다. 시간은 상대적이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1인칭이기에 다른 사람의 과거라 하면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물며 부모님의 과거란? 전지전능한 부모님이 한때는 세상물정 모르는 초등학생이었었다는 것은 함부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부모님들도 한때는 학생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자녀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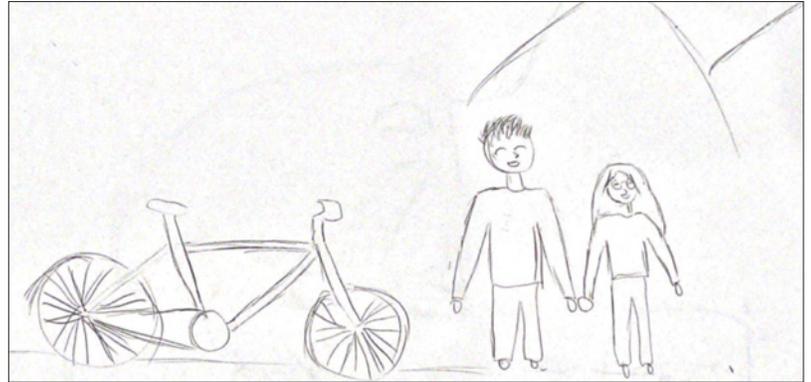
장우주 _ 몇 달에 한 번씩 오후 6시 쯤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저는 아빠랑 둘이 동네를 산책해요. 저희 가족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산책을 가족 취미로 즐겼어요. 하지만 저희가 크면서 바빠지다보니 산책을 옛날처럼 자주는 못해요. 저는 2-3학년 때부터 아빠랑 둘이서 산책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원래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빠랑 하는 산책은 좋아요. 산책을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제 고민들이랑 질문들을 아빠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빠는 저에게 아빠의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빠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교훈을 배워요. 제일 기억에 남는 2가지의 교훈은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빠의 삶 이야기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주세요. 아빠와 산책은 아빠의 삶 이야기와 모든 삶의 교훈이 있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대화와 배움을 갖는 시간이예요. 아빠를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배우고 제가 바른 어른으로 크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빠와의 산책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요즘 모든 게 컴퓨터 스크린 뒤에서의 삶인데, 산책할 때는 스크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아요. 이제 곧 고등학생인 저는 학교생활이 바빠져도 아빠와의 산책 시간은 만들 수 있어요. 아빠도 평일에 일하시면서 바쁘신데, 산책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세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모두 다 관계가 좋아요. 제가 아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감정 표현이 조금 서툴어도 저는 아빠와의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를 항상 응원해주신다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요.



장하진 _ 저는 가끔 엄마는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해요. 세대 차이도 있으니 당연히 했던 일과 좋아하는 것이 다르겠지요. 제가 엄마를 인터뷰했더니 엄마는 저와 달리 밖에서 많이 뛰어놀며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일을 했대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에게 “꼬마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춘기 시절 때는 힘들게 굴었다기보다는 아주 조용하고 밥도 안 먹고 우울했다고 하셨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선생님 놀이를 했던 우리 엄마는 커서도 똑같은 꿈을 유지하고 교육대학을 졸업했어요. 어렸을 적 꿈을 드디어 이루셨고, 역시 선생님이 되는 것이 엄마에게 행복을 주었다고 해요. 선생님이 되고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엄마는 그 곳에서 아빠를 만났어요. 신앙, 결단력, 그리고 유머가 결정적으로 엄마에게 어필했어요. 엄마는 오빠와 남동생만 있었는데 결혼해서 두 명의 딸을 낳으니 자매가 생겼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또한 제가 궁금했던 거 중에서 엄마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으면 좋겠냐고 질문했는데 답변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는 엄마가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니 우리 엄마가 아주 자랑스러워요. 저와 다른 점이 많지만 그래도 한 번 닮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지우 _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것은 항상 신기하고 색다른데요. 아버지에게 10개의 질문을 물어보면서, 재미있는 장난꾸러기 같은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제 아빠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무엇을 시키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고, 겁이 없어 무모한 행동들을 하면서 자주 다쳤어요. 아빠는 대학생 시절에 학생들을 어린 아이처럼 취급하는 대학 선생님을 보며 화가 나 수업 중에 뛰쳐나온 적도 있었어요. 전 이것을 듣고선 지금의 더 차분한 아빠의 모습과는 비교가 되어 놀랐어요. 친구들과 많은 장난을 치는 것을 즐기셔서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무서운 마스크를 써 사람들을 놀래킨 적도 있었습니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셔서, Plastic Model을 만드는게 가장 큰 취미였습니다. 아빠는 홍콩에 있는 영화배우 왕조현이 예쁘고 연기를 잘해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배우로 고르셨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철없으며 제일 재미있게 보낸 20대로 돌아가고 싶어하십니다.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겼던 아빠는 프랑스어 수업이 제일 좋으셔서, 해외여행을 간다면 프랑스를 가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아빠한테서 부모의 모습만 봐 와서, 어린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와 똑같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것을 즐기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아빠의 어린 시절과 친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열매반 자유글

강소은 _ 저는 필요한 물건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물건을 살 때는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거를 고릅니다. 저는 마음에 들면 무조건 사는 편입니다. 특히 옷과 신발 같은 거는 그냥 마음에 들면 꼭 사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해야 돼서 눈치를 조금 봅니다. ㅎㅎ 당연히 너무너무 비싸다면 못사요. 사실 엄마가 다 사주니까 뭐...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드는 거를 찾고 삽니다. 너무 비싸다면 다른 가게로 가서 비슷한 거를 사거나 아예 포기를 해요. 원하는 거를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πππ

남하은 _ 나의 식습관과 요리 경험

저는 밥을 잘 못 먹어요. 삼시세끼를 다 챙겨먹긴 하지만 조금씩 먹으니... 그래도 먹는 걸 아예 싫어하진 않아요. 좋아하는 음식도 많아요. 문제는 그게 다 불량식품이지만요. 저는 미국 음식보다 한식을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온 탕일까요? 미국 음식은 너무 짠 맛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반면에 한식은 다른 재료들로 짠맛을 줄여주니 먹을 때 큰 불편함이 없어요. 물은 보통 밥 먹을 때 아니면 자기 전에 마셔요. 운동 열심히 하면 마시지만, 요즘에는 침대에만 있어서 별로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식사할 때는 가족들과 예능이나 영화를 봐요. 제가 봐도 식습관이 좀 그러네요. ㅎㅎ 라면 이런 거 빼면 김치볶음밥이 저의 첫 요리 메뉴였던 것 같아요. 캠핑카 안에서 매콤한 김치볶음밥을 먹으면서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입김을 내뿜으며 정신없이 김치볶음밥을 먹었던 기억이 사라질 리가 없지요. 그때부터 제 김치볶음밥에 대한 사랑이 커져 갔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2년 동안 계속 엄마가 해주셨지만 갑자기 제가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가르침에 따라 정성을 다해 만들고 플레이팅도 했죠. 저도 그렇고 저의 온 가족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냄새는 괜찮았어요. 저는 빨리 김치볶음밥을 한 손가락 크게 떼서 먹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맛이 없었어요.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맛은 그렇다 쳐도 식감이 어마어마하게 별로였어요. 제 첫 요리 경험은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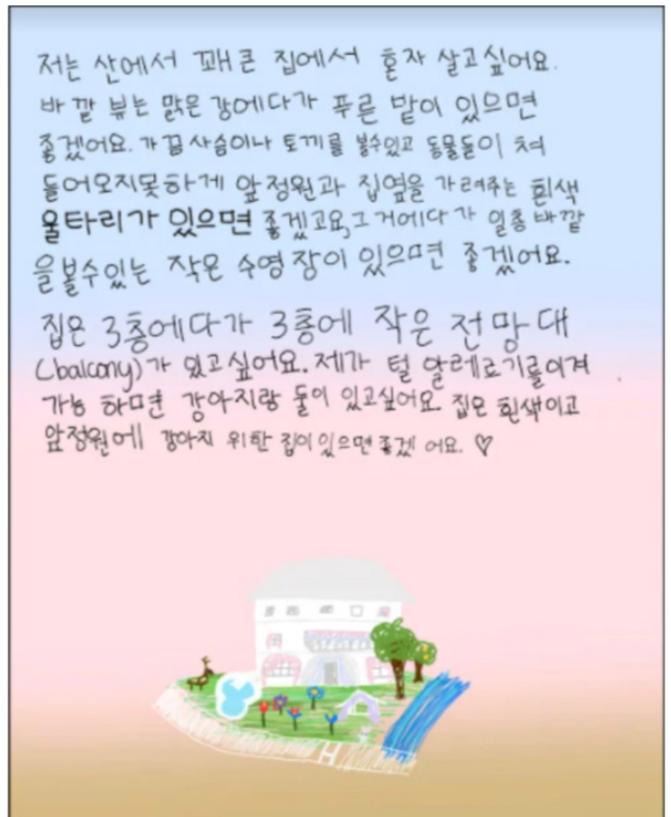
박준우 _ 저는 새로운 마우스랑 마이크가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해보고 샀어요. 새로 산 마우스와 마이크는 온라인 수업에 필요했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직접 고르니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은 제 생각에 요즘 기프트 카드가 좋은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어요. 실패한 경험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남현 _ 내가 필요한 물건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은 되도록 값이 싸고 가치가 높은 물건을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적게 낼수록 유리하고 많이 낼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적게 낼수록 돈을 많이 모으며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쌓이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본인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지만 돈을 아껴서 비싼 장난감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용돈을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많아 필요할 때 물건을 못 사고 있습니다.

이준건 _ 때는 5학년 겨울방학이었다. 수학 학원을 마치고 어머니 차를 타며 집으로 돌아오던 중, 전광판에서 상영중인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것”은 모나리자의 미소보다도 아름다웠고, 다이아몬드보다도 빛났으며 마치 하나의 자석처럼 내 시선을 움켜쥐었다. 내가 처음으로 “닌텐도 스위치”라는 것을 접한 때였다. 전에 3DS를 샀다가 어머니의 꼬드침에 넘어가 팔아버린 나로서는 조금의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흑빛의 표면에 번뜩이는 광채는 나를 넘어오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털을 시도했다. 곧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것을 사면 어떻냐는 내 말에 어머니는 능숙하게 전의 일을 꺼내며 허를 찔렀다. 나에게 과거의 업보가 너무 많았고 그것을 전부 바로잡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곧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과 아버지가 그 날짜를 실제로 두 달 담겨서 말해버린 탓에 어머니가 벽을 치면 칠수록 나는 초조해져갔다. 혼자서 비트코인까지 할 생각이었으니 말이다. 심부름 값을 대폭 인상해 하루에 3천원을 이론적으로 벌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락했고, 그때부터 나는 일하기 시작했다. 마치 찰리체플린의 영화 “모던타임즈”에 나오는 기술 자들처럼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동생을 돌봐주는 등, 똑같은 일과를 학교, 학원과 병행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3월달까지 해냈다. 생일이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한 나는 삼촌을 설득해내는데 성공하고, 약 5만원을 받는다. 세뱃돈 중 일부를 어머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은 충분히 모은 상태였고, 드디어 약 4개월만의 대장정 후에 “닌텐도 스위치”를 받아낼 수 있었다.

이권우 _ 제가 필요한 물건을 고를때는 적어도 믿음직한 소스 3개를 찾아 가격과 품질이 제일 좋은 것을 구매해요. 예전에 많은 시간을 들여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서 주었는데 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행복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트리에 달 장식품을 가격만 보고 덜컥 구매했는데 망가져버려 후회했어요. 품질이 너무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면 내가 가진 돈으로는 살 수 없어요. 또한 가격이 너무 싸도 빨리 망가질 수 있어서 피하려고 해요.

장하진 _ 내가 살고 싶은 집



이권우 베이커리



메뉴 이름: 베이글
 재료: 물, 버터, 소금, 이스트, 설탕, 강력분
 좋아하는 이유: 저는 빵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베이글도 좋아하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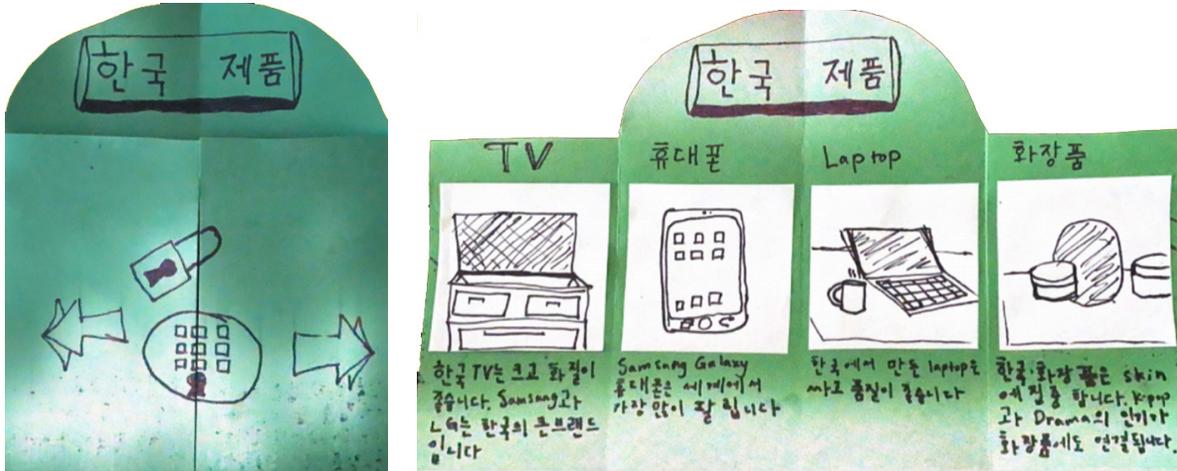
- 만드는 방법:
1. 밀가루가 담긴 그릇에 설탕, 소금, 이스트를 넣고 섞는다.
 2. 미지근한 물을 밀가루에 넣고 손으로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뭉친다.
 3. 실온의 버터를 반죽과 섞는다.
 4. 반죽이 매끈해질 때까지 치댄다.
 5. 뚜껑을 덮어 50분간 발효시킨다.
 6. 반죽을 세등분하여 베이글 모양으로 성형한다.
 7. 20분간 다시 발효 후 물에 살짝 데쳐낸다.
 8. 356도로 20분간 굽는다.
 9. 끝

영화 [미나리] 감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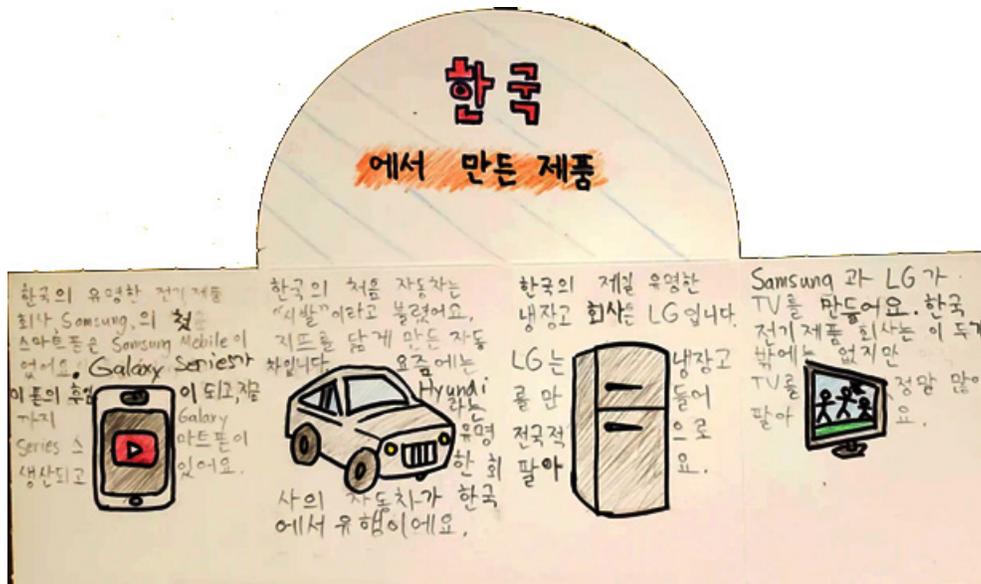
남하은 _ 내가 영화를 보기 전부터 많은 사람이 윤여정을 비롯해 미나리 영화 자체를 높게 평가해서 나의 기대치는 높아 있었다.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인으로서 힘든 것, 기쁜 것 등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에 미국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장면도 감정이입해서 봤다. 직업 문제, 가족간의 갈등 같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 처음에 제이콥은 자기 생각대로만 혼자 꾸려갔다. 미나리를 심으라는 순자의 말도 “생각해볼게요”라고 넘어갔다. 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농작물은 다 타고, 혼자 살아남은 순자의 미나리를 보고 자신이 아닌 순자가 성공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제이콥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가족의 의미인 “함께”를 찾는다. 그리고 데이빗과 함께 미나리를 수확하는 모습으로 막을 내린다. 혼자 힘들게 하려 하지 않고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걸어 나가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 같아 좋았다. 또 미나리와 데이빗의 가족처럼 모든 이민 가족들이 어딜 가든 잘 살아갈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것도 좋았다. 내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대단히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을 품게 해 주고 누군가에게 공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정지우 _ 영화 미나리를 보기 전에는 그냥 미국으로 이민을 온 가족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는 할머니와 주인공 데이빗의 관계가 변하는 것과 데이빗의 부모님과과의 관계가 인상깊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외면하지만 데이빗을 많이 사랑하시는 할머니는 데이빗에게 다가오고, 데이빗은 마음을 엽니다. 데이빗의 엄마와 아빠의 다른 의견 때문에 싸우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일보다 가족이 중요하지만 데이빗의 아빠는 일이 우선순위처럼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속상해하는 엄마와 성공을 해서 가족을 돌보고 싶은 아빠의 모습이 충돌하여 두 인물은 많은 감정들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영화 끝에 데이빗의 아빠는 불에 타고 있는 채소들을 꺼내다가 엄마를 먼저 꺼내 가족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인상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빠가 사실은 가족을 제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 같았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한국에 계신 친할머니가 생각나고 보고 싶었습니다. 미나리에 나오는 할머니의 웃기고 데이빗을 많이 사랑하시는 모습이 마치 제 할머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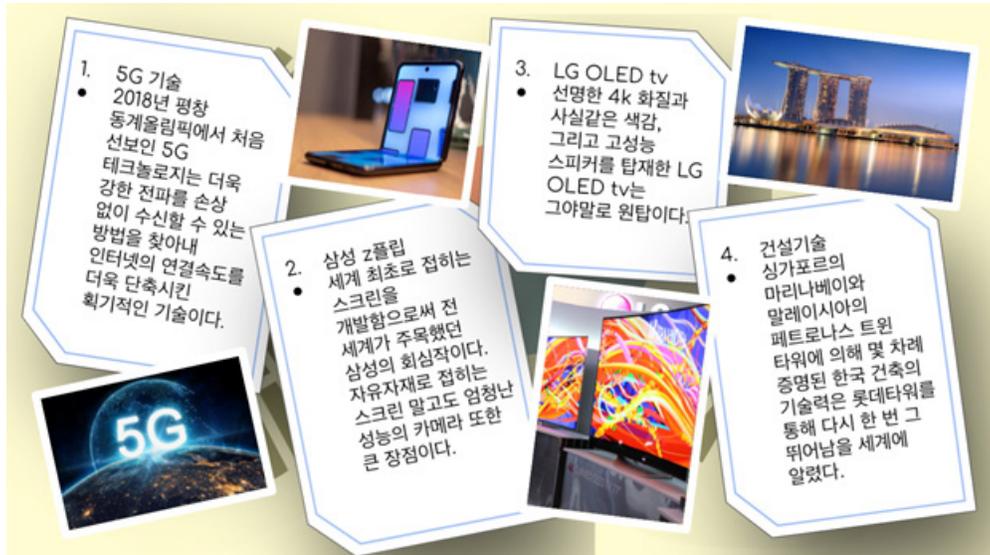




박준우



이권우



이준건

한국의 제품들: 음식

			
<p>한국의 대표 인스턴트 푸드를 파는 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p> <p>대표 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라면 - 치즈라면 - 카레 - 덮밥 	<p>농심은 과자와 인스턴트 푸드를 파는 꽤 큰 회사입니다.</p> <p>대표 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구리 - 신라면/신라면 불닭 - 짜짜구리 - Bowl Noodles - 새우깡 - 양파링 - 바나나칩 	<p>CJ 푸드는 다양한 한국음식을 미리 만들어놓은 음식을 파는 회사입니다.</p> <p>대표 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반 - 비비고 왕고자 - 비비고 김치 	<p>오리온은 과자를 만드는 한국에서 과자로 제일 유명합니다. 최근에 해외에서도 유명해졌어요.</p> <p>대표 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코 파이 - 고래밥 - 코롱칩 - 포마칩 - 오징어 땅콩

장하진



강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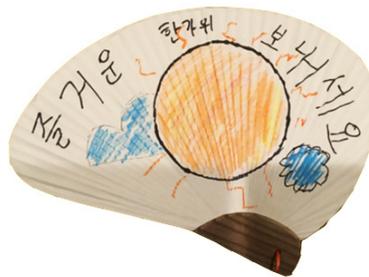
남하은



박준우



이권우



이남헌



이준건



장우주



장하진



정지우



남하은



박준우



이준건



이남현



장하진



이권우

재외동포인물 비교

김영옥



- 1919년 -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남
- 1941년 - 미군 입대
- 1943년 - 2차 세계대전 참전
- 1951년 - 한국전쟁 참전
- 1972년 - 전역 후 만민을 위한 단체인 통일당을 창당
- 2005년 - 세상을 떠남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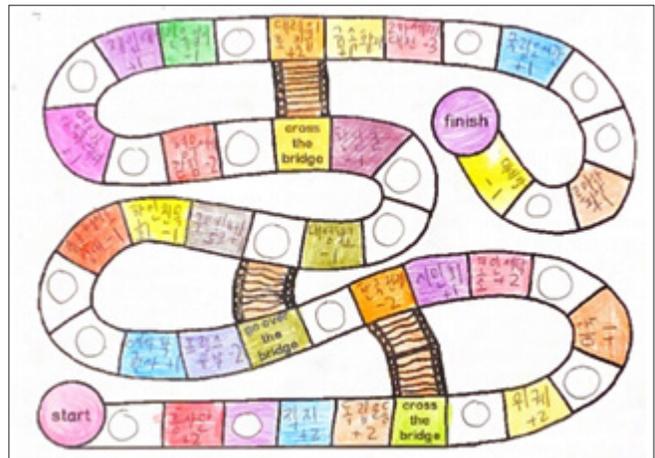
김영옥 대학과 세미리 박사는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재외동포로 친한 친구입니다. 김영옥 대학은 미군 입대를 자유행으로 격려했고 세미리 박사는 다의병 연습을 제대로 못하고 집을 살 때는 역시같이해서 가장할하는 안중 자병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포기하지 않고 이겨 냈습니다. 또한, 김영옥 대학은 참전으로 세미리 박사는 군의관으로 한국 전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둘을 한 학교가 있는 것도 공통점 중의 하나입니다.

새미리



- 1920년 - 캘리포니아 폰테르노에서 태어남
- 1932년 - 다의병 시작함
- 1947년 - USC 졸업. 인사가 됨
- 1948년 - 한인 통일회에서 공채당, 동계당 조직
- 1952년 - 필리핀에서 공채당 조직
- 1953년 - 한국에서 군의관으로 일함
- 1960년 - 유세 보지
- 2016년 - 96세로 세상을 떠남



박준우

직지



- 직지삼체요절/직지
-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 독일의 오토크의 성경책보다 73년 전에 인쇄됨
- 우리나라 학승들의 대표적인 학습지
- 박병선: 1972년 파리에서 일한 '책의 역사 종합전람회'에 직지삼체요절을 출품. 이 사실을 인정받아 직지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됨

박병선



외규장각 의궤



- '외규장각(外庫遺閣)'은 1782년 2월 장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규장각 의궤를 예법에 맞게 행하기 위한 전례를 기록한 책. 왕실과 국가에서 의식과 행사를 개최한 후 준비, 실행 및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한 책
-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이 약 340여 권의 책들과 같이 약탈
- 1975년, 박병선은 베르사유 분간 폐지 창고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돼 있었던 외규장각 의궤를 찾아냄

1923년 전주에서 삼남 이녀 중 셋째로 태어남

1950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

1955년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최초로 프랑스 유학

1972년 유네스코 직지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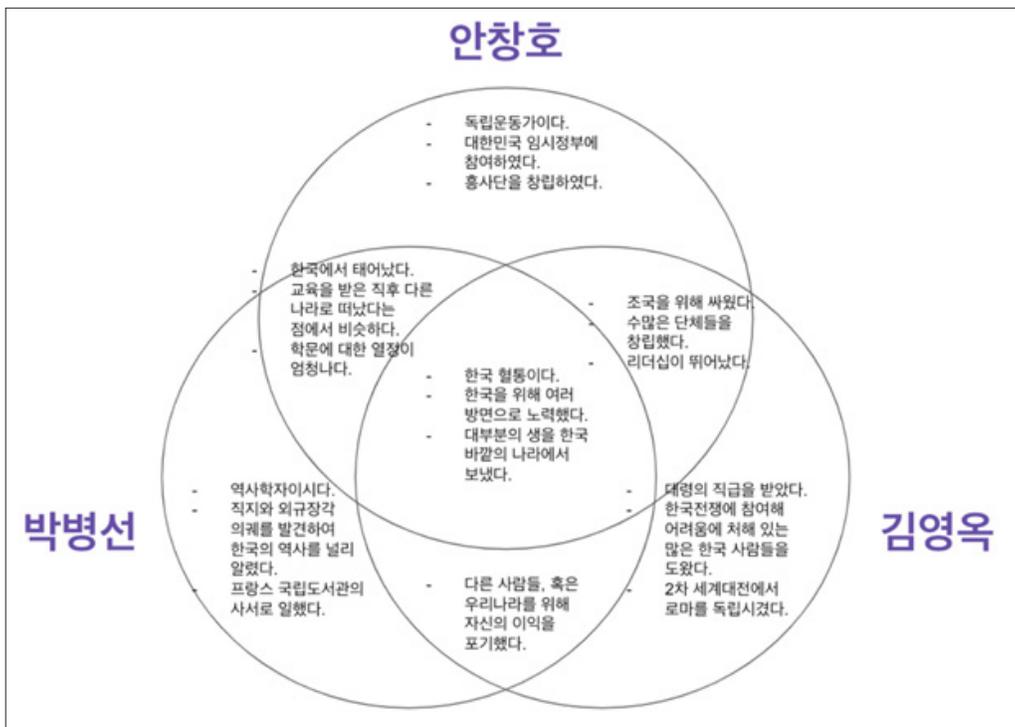


2011년 11월 프랑스 현지에서 83세로 사망하였고,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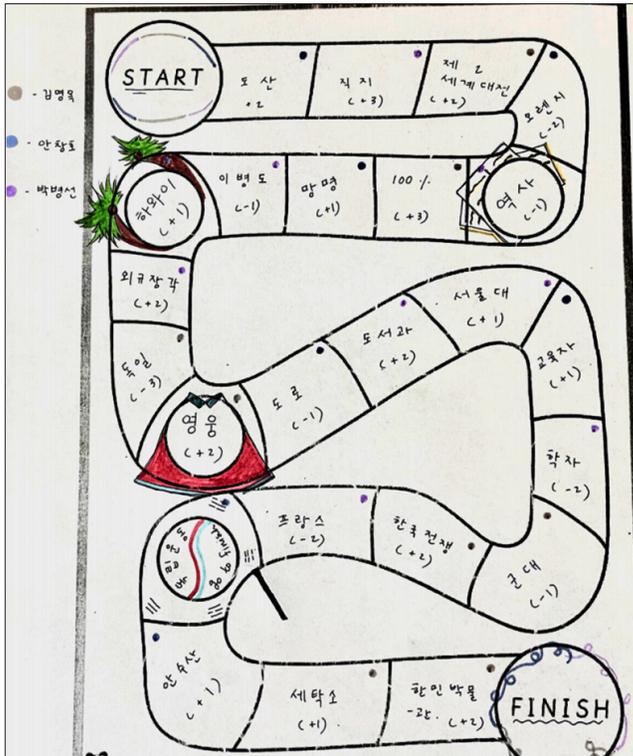
2011년 5월 27일 297책의 외규장각 의궤가 145년 만에 대한민국 정으로 돌아옴

1979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료, 외규장각에서 작업 착수

1975년 외규장각 의궤 발견



이준건



장하진

안창호

- 사망일: 3/10/1938
- 직업: 독립운동가
- 학력: 구제 학당

서재필

- 사망일: 1/5/1951
- 직업: 의사
- 학력: GW School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

• 독립운동가

• 한국에서 2년

• 재이교도

이 권 우

새 미 리



- 1919: LA에서 태어남
- 1920: 프레즈노에서 태어남
- 1941: 미군으로 활동함
- 1943: 2차 세계대전 참전
- 1947: 의사로 활동
- 1948: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땀
- 1951: 한국전쟁 참전
- 1952: 헬싱키 올림픽에서 금메달 땀
- 1953: 군의관으로 활동
- 2005: 죽음
- 2016: 죽음

김 영 옥



1919 1941 1947 1951 1953 2005

1920 1943 1948 1952 2016

tmi: 둘이 친한 친구였다.

남 하 은



자랑스러운 졸업생이 되었어요!



명예 졸업생 전시현

다솜에서 한국학교 학생으로 있었던 시간은 3년도 채 안되었지만, 공교롭게도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조교사로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으로서 늘 막내, 보조교사 시작할 때도 한참 막내였던 제가 어느덧 말년 병장(?)이 되어 졸업을 앞두고 있다니 감회가 참 새롭네요. 한국학교 보조교사로서 토요일 아침마다 봉사를 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었습니다. 때론 아무 사명감없이 단순한 의무감에 무거운 발길을 옮길 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뒤돌아 보면, 5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길고, 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다솜 안에서, 그리고 다솜을 통해서 성장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솜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동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좋은 교사로서의 품성과 덕망을 배워갔습니다. 0개국어인 어린 아이들을 하나하나 따뜻하게 보살피시던 여현주 선생님, 철없는 초등학생 남자 아이들을 엄청난 카리스마로 압도하시고 군기를 바짝 잡으신 원종은 선생님, 아이들과 때론 친구처럼 또 때론 어머니처럼 친근하고 털털하게 교제하신 장신복 선생님, 그리고 제가 5학년 아끼일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지금까지 쭉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박은경 선생님과 최미영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걸 주고, 또 많은 걸 얻은 만큼, 아무런 미련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솜이 계속해서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문화를 많은 아이들에게 널리 전하는 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졸업생 이남현

한국학교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좋은 선생님들도 만나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였으며 나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열심히 한글학교에 참여한 내 모습이 너무나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추석과 설날의 전통음식을 먹으며, 거북선과 같은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작품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린 친구들과 함께 윷놀이와 투호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저 자신만의 평소의 일상에서는 하지 못하는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들도 저의 기억에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샌프란시스코 한인 교육원 주최 UCC 대회에서 은상을 탄 것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 프로젝트는 준건이와 함께 정말 2주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는 노력으로 만들었으며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값진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좋은 경험을 토대로 향후 인생도 계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주에 학사모를 쓰고 졸업 사진을 찍었는데, 예전에는 한국학교 졸업이 아주 멀리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제 밤엔 그 생각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학교의 일들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보조교사로 열심히 일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학교 덕에 나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한걸음씩 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정말 모든 정성으로 저를 가르쳐주시고 저에게 항상 조언도 많이 해주신 박은경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께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생 정지우

다솜한국학교에 처음 왔을 때 원종은 선생님께서 한 학기, 이어서 박은경 선생님께서 3년 반 동안 오늘까지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제 한국어 실력이 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한국학교가 많이 달라져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다 보니 예전의 한국학교처럼 체육대회나 추석, 설날 활동을 못해서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한국의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 배우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학교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저에게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은 설날에 윷놀이를 하는 것과 팽이치기 놀이입니다. 윷놀이를 하며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를 외워 뿌듯해졌던 마음이 생각나고, 팽이치기를 매년 하며 너무 즐겁게 논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다솜의 어린 학생들도 저처럼 한국학교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며 한글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다솜의 자랑스런 졸업생이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졸업생 이준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선거, 그리고 각종 시위들과 사건 사고들까지, 모두에게 힘들고도 혼란스러운 2021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숙제, 어려워진 시험, 학교 스포츠, 그리고 복잡해진 인터넷 수업 때문에 일말의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다솜 한국학교는 하나의 안식처로서 다가왔습니다. 물론 처음 다솜한국학교를 접했을 때는 조금의 회의감이 들었는데, 이미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저에게는 그다지 필요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바쁜 고등학교 생활 중 한국학교에 참여할 시간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참여하기 위해 한국학교와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더 알고자 일단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내가 예상한 것 그대로였습니다. 속담들, 단어들, 심지어 역사까지 모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었고, 그다지 흥미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곧 12월이 되었습니다. 방학하기 며칠 전 남현이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바로 UCC 대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술에는 자신이 있었기에 한 번 해보기로 결정하고, 겨울방학의 반절을 투자해 성공적으로 시간에 맞춰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버클리 대학 학생도 참여했기 때문에 그다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수업 시간에도 나 자신을 예비 TA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상 먼저 나서서 대답하고, 다른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이끌어가며,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이 아닌, 내가 아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대화하며, 같이 성장하는 진정한 배움의 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학교 졸업을 앞두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 행동, 생각, 태도를 곱씹으며 평가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생산적인 한 해를 보낸 걸까. 시간만 허투루 보내다 삶을 허비한 게 아닐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짜내어 정리해 보니 만족할 만한 아니지만 그럭저럭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클럽도 몇 개 가입했으며, 배드민턴 팀의 일원으로써 활동했고, 성적은 대부분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솜한국학교를 중도 포기 없이 무사하고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지루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대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삶의 오아시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다솜한국학교를 알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나를 잘 이끌어주신 박은경 선생님께 감사하고, 또한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르치며 소통하는 시간을 만든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다솜한국학교를 잠깐 동안 떠나겠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TA로서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솜한국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을 보며...

글_강희경 (졸업생 이남현 어머니)



상투적이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다솜한국학교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우리 아들 남현이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가족은 2016년 3월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남현이는 한국에서 막 4학년을 3일 보내고 미국에 오게 되어 미국에 왔을 당시에는 한국어에는 자신이 있다는 착각을 좀 하였습니다. 또 남현이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들을 워낙 좋아하는지라 한국어는 잘 유지가 되었고, 오히려 미국 교육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한국 학교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은 처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던 우리 가족은 항상 다솜한국학교에 대해 듣고 있었고, 특히나 역사 교육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을 강조하는 교육방침이 마음에 들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참여해야지 계속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남현이가 토요일 오전에는 야구 연습, 경기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활동이 있던 터라 과연 한국학

교를 시작하면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모르되, 시작하게 된다면 끝까지 잘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에 온 지 2년이 지나서 각종 우여곡절 끝에 7학년부부터 드디어 한국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국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일찍 식사를 하고 시간 내에 학교에 보내고 다시 데려오고, 가끔 간식도 챙기고, 숙제도 챙기고 등등...아이도 힘들었겠지만, 엄마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설날과 추석 등에 한복을 입고 송편도 빚고 강강술래 등 하면서 다양한 체험도 하고 사물놀이도 배우고, 무엇보다 동영상 만드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진 남현이가 동영상반에 가서 흥미진진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족, 친구들, 동료들과 소통을 위해 나름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편인데 다솜의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친구가 한국에서도 추석에 한복 입은 것을 못 봤는데 미국에 있는 남현이가 한복 입은 거 보니 신기하다는 것을 보니, 정말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 남현이가 친구 준건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에서 주최하는 UCC 공모전에서 은상을 탄 순간이며 처음으로 영사관에도 가서 시상식의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사실, 상을 받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남현이가 자기가 좋아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정말 누구보다도 집중해서 열심히 해내는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이에 대한 믿음이 한층 더 커졌으며,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7학년부부터 9학년까지의 총 3년의 기간 동안 가르쳐 주시고 묵묵히 지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박은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이 모든 프로그램으로 아이를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헌신하시는 교장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보조교사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우리 남현이가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 하나하나 성장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되며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남현이도 많은 것을 배우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엄마로서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아직 저와 비슷한 이유로 한글학교 보내는 것을 주저하는 가정이라면 일단 꼭 시작해 보라고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시작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를 졸업하며...

글_이연희 (졸업생 이준건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다솜한국학교 졸업생 이준건 엄마 이연희입니다.

이번에 준건이가 다솜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면서 짧았지만 한편으론 코로나로 길었던 지난 1년의 한국학교 과정에서 느꼈던 것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와 아이들은 지금 3년째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큰 아이 준건이는 6학년 때 미국에 와서 한글 공부가 사실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여 한국학교에 다닐 생각은 하지 못하였는데, 사실 여기서 지내보니 한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 준건이를 설득하여 다솜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미국 교육 환경이 주는 훌륭한 점들을 마음껏 체험하고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 저는 항상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민 초반에 영어가 빨리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한편은 유창한 한국말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이분적인 욕심과는 반대로 여기 삶에 바쁘게 맞추다 보니 제 자신도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닐까 하는 게으름 섞인 이유에 길잡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작은 아이의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온 지 1년 만에 본인은 미국인이라고 하는 작은아이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과 우리의 뿌리와 조상에 대해서 더 열심히 얘기했고, 한국의 위인과 한국학교를 더 신경쓰기 시작했습니다. 준건이의 경우 한국학교 초반부터 확실히 분위기가 틀려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나와 밝은 표정으로 2년 만에 한글로 글짓기를 했다며 즐거워 하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글의 중요성 그 너머에 준건이의 정체성을 확신시켜주고 소속감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준 곳이 바로 그리운 한글로 하는 수업, 또 따뜻한 한국 선생님의 정이 아이에게 한국에서 느꼈던 그것 그대로 지난 1년 팬데믹으로 힘들게 지내던 그 순간에 아이에게 힘을 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국학교에서 한국과는 다른 개인 문화에 낯설어 하고 항상 조심하게 되어 움츠러 들어가는 것을 사춘기라 그런 걸까 하며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처럼 어른을 공경하여 미국 어른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혼란을 느끼는 준건이가 안스러워 저는 '여기 미국에서는 당당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저 자신도 외국친구와 우정과 관계를 맺어가는게 문화 차이가 있어 어느 정도 혼란과 당황함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며 어느 정도 익숙해진 준건이가 친한 친구들이 생겨 또래집단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지만, 워낙 미국이란 나라가 커서 항상 새로운 집단과 마주하게 되고 또 개인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학교에서 준건이가 느낀 한글의 중요성, 유대감, 우리문화와 역사의 힘을 영양분 삼아 미국에서 성장해 나갈때 항상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은 받아본 사람만 아는 것임을 압니다. 항상 너무 수고 하시고 학생들에게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께 너무나 훌륭한 일 하고 계시다고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본인이 아는 것을 나누고 우리 한국 아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학교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보조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응모 작품

세 개의 이름을 가지셨던 김구 선생님



화평반 박준우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은 검은색 안경을 쓰고 독립을 위해 일한 아저씨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동그란 안경을 쓰시면 김구 아저씨 같다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다 읽고 독후감을 쓰기 위해 책 속의 백범 김구 선생님을 생각하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꾼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사셨던 김구 선생님은 이 팬데믹 시대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지금 백범 김구 선생님이 살아 계셨다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창암이는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아기일 때는 젖을 얻어 먹어야 했고 조금 커서는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린 창암이는 글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가난하기도 하고 선생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암이는 공부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먼 길을 차도 없이 걸어야 했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보려 했지만 불공평한 세상에 열일곱 살의 창암이는 실망하였습니다. 어린 창암이를 생각하며 저와 비교해 보니 창암이에게는 미안하고 지금 저는 참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부모님이 운전해서 편하게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기만 하면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의 옆에는 가족이 있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저의 환경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컴퓨터도 배우고, 교회 형을 통해서 기타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저는 창암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지만 평소에 감사하기보다는 숙제는 하기 싫고 놀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창암아!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배우려는 마음과 열심을 칭찬해주고 싶어. 나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며 숙제도 컴퓨터로 하다 보면 가끔 힘들 때가 있는데 너를 생각해서 다시 힘을 내도록 할게.”

청년이 된 창수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동학에 들어갔습니다. 창수는 차별 없는 세상을 원했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1895년 일본은 우리 공곶에 쳐들어와서 국모를 죽였습니다. 화가 난 창수는 주막에서 만난 일본 사람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죽였다는 포고문을 써서 큰길가 벽에 붙이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얼마 뒤 창수는 집에서 당당하게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창수는 거침없이 일본

사람을 죽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일본 사람에게 호통까지 쳤습니다. 저는 창수의 씩씩함과 용기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용기있게 행동하는 창수가 참 멋있습니다.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흑인과 아시안이 여전히 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누나가 어렸을 때 학교에 혼자 아시안이라서 차별을 당했습니다. 피부가 검은 친구가 누나에게 아시안이 많은 곳으로 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 누나는 그 친구에게 너는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시안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유없이 맞고 차별을 당하는 것이 심해지고 있어서 뉴스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100년 전에 창수가 원했던 세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했습니다. “창수형! 차별도 당하고 나라까지 일본에게 무시를 당하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인종차별이 남아있어. 여러 나라 민족들이 모여 사는 미국이니까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는 걸 기억하고 나도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나도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용기있게 말하고 씩씩하게 옳은 일을 하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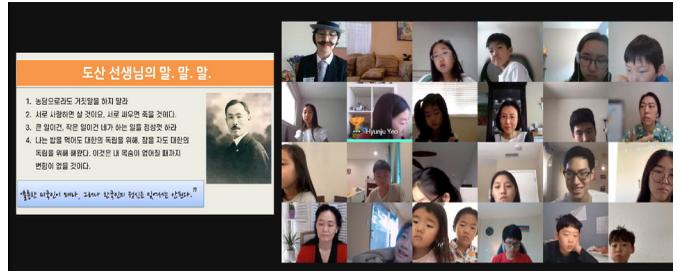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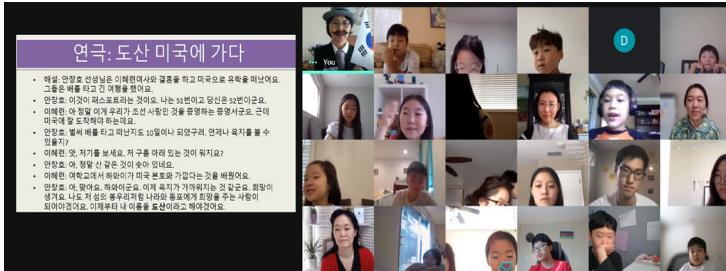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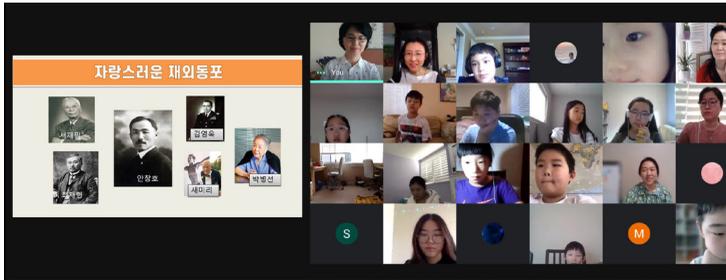
나라를 위해 일하기 위해 김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난 후에는 더 많은 사고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죽어도 슬퍼할 시간이 없었고, 안락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도 해야 했습니다. 3.1운동이 있을 때에 김구는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임시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였고 특별히 광복군 특공대를 만들어서 일본을 공격하여 우리의 힘으로 독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과 소련의 공격에 항복하면서 계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스스로 독립을 이루고 싶었지만 코앞에서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5학년 때 Science Camp를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친구들과 조를 나누었습니다. 배낭과 침낭 같은 준비물을 다 준비하고 출발하기만 하면 되는데 전날 팬데믹의 선포로 학교가 문을 닫고 캠프가 취소되었습니다. 캠프를 계획할 때는 마음이 신나고 친구들과 같이 자는 것이 기대가 컸는데 취소되고 나니 너무 속상하고 슬펐습니다. 작은 일 하나도 계획이 취소되면 실망스러운데 잃었던 나라를 되찾는 계획과 꿈이 실패한 김구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공대 계획이 성공했다면 우리 나라는 더 멋진 독립과 통일 한국을 이루지 않았을까요? “백범 김구 선생님! 우리 힘으로 독립하고 통일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선생님의 정신과 노력을 기억하고 이렇게 배우며 더 강하고 멋진 대한민국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한국학교 역사문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백범 김구는 큰 아들이 폐병에 걸렸을 때 아들이라고 특별하게 먼저 페니실린 주사를 줄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페니실린 주사는 부족하고, 아픈 사람은 많은데 가족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미국에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 사람들은 서로 먼저 맞으려고 돈을 내거나 몰래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백범 김구처럼 자기 차례를 지키고 기다리게 진짜 주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맞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아들한테 먼저 주사를 주지 못한 결정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저도 살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바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보다 나라를 더 사랑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자서전인 백범일지를 보면 김구 선생님은 아름답고 높은 문화를 가진 한국을 원하셨습니다. 한국은 선생님이 원했던 나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외국에서 한국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K-pop이나 미나리 같은 영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도 한국학교에서 배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주위에 알리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검은 색 안경을 쓰시고 웃으시는 김구 선생님의 모습이 담긴 이 책의 표지를 볼 때 이제 저의 마음 속에 존경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합니다.

1 한국 역사문화 1탄

세계를 누빈 재미동포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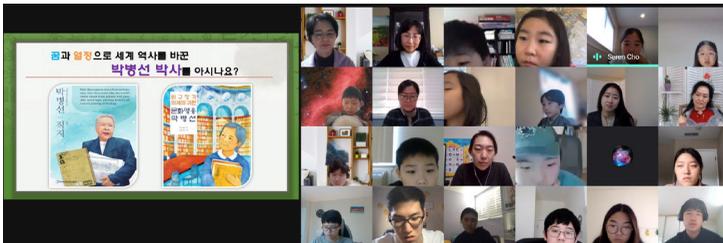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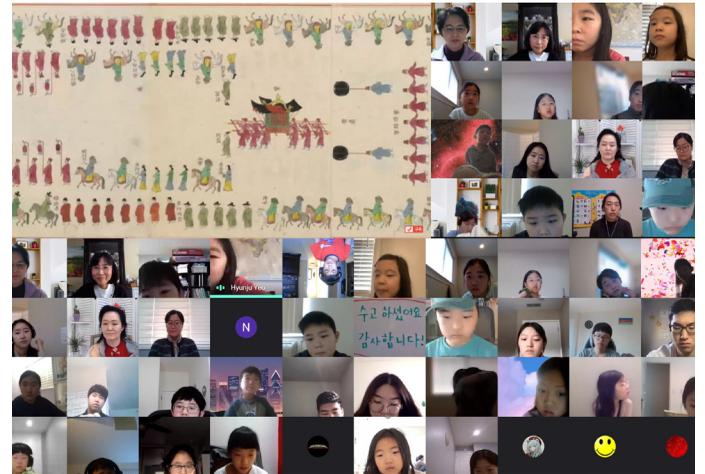
본교에서는 2020~2021학년도 한국역사문화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로 정하고 지난 10월 10일에 그 첫 시간으로 <세계를 누빈 재미동포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최미영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준비된 파워포인트와 동영상, 그리고 학생들의 역할극과 퀴즈 등이 포함된 강의를 했는데, 안창호 선생님은 1902년 부인 이해련 여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첫 재미동포입니다. 본교와 가까운 샌프란시스코시에는 안창호 선생님이 조직한 공립협회와 흥사단 그리고 대한인국민회 본부가 있었던 사적지가 남아 있고, 안창호 선생님이 인터뷰했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도 본교가 위치한 지역의 신문이어서 학생들이 찾아가 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차과 캠프’라는 미국 최초의 한인 타운을 건설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차세대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독립운동을 위해 전 세계를 다니신 분입니다. 전체 수업 후 4주 동안 학생들은 각 반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학습지를 반별로 공부하고 각자 좋아하는 재미동포 위인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동영상 제작, 위인 소개 포스터 만들기, 삼면책 혹은 미니북 만들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인종학 모델 커리큘럼 (Ethnic Studies Model Curriculum)에도 안창호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지속하여 강조하셨던 정직과 단결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2 한국 역사문화 2탄

직지와 의궤를 전 세계에 알린 박병선 박사님

2020년 11월 21일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직지와 의궤를 전 세계에 알린 박병선 박사>라는 제목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원은경 교감 선생님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준비된 파워포인트와 동영상, 그리고 학생들의 역할극과 퀴즈 등이 포함된 재미있는 강의로 잃어버린 유물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박병선 박사님을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박병선 박사님은 역사를 전공한 학자로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첫 여성이었다는 점과 스승으로부터 프랑스로 가면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인이 가져간 의궤를 찾아보라는 부탁을 받고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노력한 끝에 직지와 의궤를 발견하였습니다. 직지를 찾아내어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먼저 금속활자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금속활자 책임을 세상에 널리 알렸고 마침내 직지는 2001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의궤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외규장각 의궤가 조건부이지만 한국으로 반환된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지만, 직지는 아직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는 것에는 아쉬워했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잃어버린 유물이 많음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자랑스러운 유물을 되돌릴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체 수업 후 4주 동안 학생들은 각 반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학습지를 반별로 공부하고 각자 좋아하는 재미동포 위인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동영상 제작, 위인 소개 포스터 만들기, 삼면책 혹은 미니북 만들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 역사문화 3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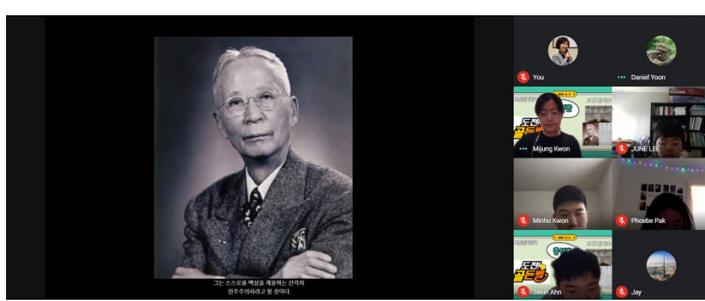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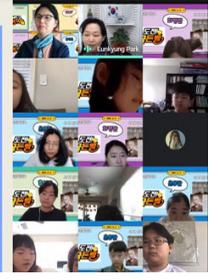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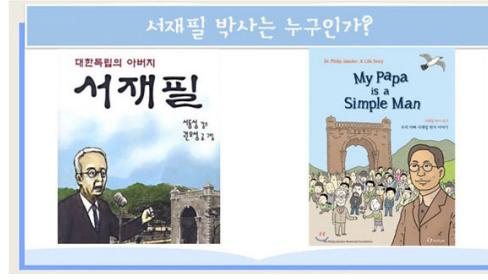
100% 미국인인 동시에
100% 한국인
김영옥 대령님

2020년 12월 12일에 셋째 시간으로 <100% 미국인인 동시에 100% 한국인 김영옥 대령>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최미영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준비된 파워포인트와 동영상, 그리고 학생들의 역할극과 퀴즈 등이 포함된 재미있는 강의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전쟁 영웅으로 그리고 청소년, 여성, 장애아, 노인, 입양아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신 김영옥 대령을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사후에 더 유명해지고 평가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김영옥 대령이 바로 그런 분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편견과 고난을 넘어서 불패 신화를 남긴 전설적 전쟁영웅이자 위대한 인도주의자로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음을 학생들은 동영상과 보조교사들과 함께 하는 역할극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 수업 후 4주 동안 학생들은 각 반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학습지를 반별로 공부하고 각자 좋아하는 재외동포 위인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동영상 제작, 위인 소개 포스터 만들기, 삼면책 혹은 미니북 만들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100% 미국인인 동시에 100%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려준 김영옥 대령의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국 역사문화 5탄

자주, 독립, 민주국가를 꿈꾼 서재필 박사님

2021년 4월 3일에는 다섯 번째 시간으로 <자주, 독립, 민주국가를 꿈꾼 서재필 박사>라는 제목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박은경 교무 선생님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준비된 파워포인트와 동영상, 그리고 학생들의 역할극과 퀴즈 등이 포함된 강의를 해주셨는데, 미주 한인 최초의 시민권자, 한인 최초의 공무원, 한인 최초의 서양 의사, 한인 최초의 국제결혼으로 “American Dream”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조국의 독립과 교육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서재필 박사의 일생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에서 2021년 3월 18일에 승인된 인종학 모델 교육과정에 나오는 재미동포 인물들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독립운동, 새미리 박사, 김영옥 대령을 서로 비교하며 각 반의 눈높이에 맞는 골든벨 퀴즈로 지난 1년 동안 배운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기쁨반 학생들이 퀴즈를 잘 풀어서 선배들과 선생님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강의를 해준 박은경 선생님은 동포 차세대 학생들에게 모국 대한민국의 건국에 민주주의의 뿌리를 심기 위하여 일평생 끊임없이 배우고 일하고 국민들을 계몽하며 헌신한 의사 서재필의 생애와 교훈을 교육함으로써 자신의 발전과 더불어 미국과 연결 고리를 만들며 대한민국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돕고자 이 단원을 설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전체 수업 후 4주 동안 학생들은 각 반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학습지를 반별로 공부하고 각자 좋아하는 재외동포 위인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동영상 제작, 위인 소개 포스터 만들기, 삼면책 혹은 미니북 만들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솜의 자랑

보조교사들의 이야기



전 시 현

1. 5년 동안 했습니다.
2. 열매반의 보조교사로 일했습니다. 열매반은 이미 제가 도움을 줄만한 수준을 뛰어 넘어 엄청난 심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제가 보조교사로 있었지만, 오히려 저도 새로 배우는것이 많았습니다.
3. 팬데믹으로 인하여 보조교사의 역할이 많이 미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카훗을 재밌게(?) 만들었던 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4. N/A
5. 특별히 기억에 남는 행사보다는 매주 조회시간마다 속담공부를 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6. 돌아가고 싶지는 않네요...^^
7.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빛나는 다솜을 만들어 주세요!



유 은 서

1. 다솜에서 4년 동안 보조 교사로 지냈습니다.
2. 제가 지난 1년 간 맡았던 반은 기쁨반입니다. 제일 어린 학생들로 이뤄지게 된 반이며, 이름처럼 언제나 기쁨이 가득 한 반입니다.
3. 팬데믹 상황에서 보조교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역시 장시간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업 중 한 교시 정도를 저와 박주희 보조 교사가 담당해서 지도할 수 있었는데, 전에는 하지 못했던 경험이라 그런지 꽤 인상 깊은 일이었다고 같습니다.
4. 비록 내년엔 제가 이곳에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한 번 더 제일 어린 반을 맡고 싶습니다. 4년 간 사랑반과 기쁨반을 맡아 보니 아무래도 이 반이 제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5. 올해 특별히 기억나는 학교 행사는 개교기념일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즐거웠던 게 신기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6. 제가 만약 한국학교 학생이 된다면 역사 조회 시간에 더욱더 집중하여 최대한 많은 걸 배우고 싶습니다.
7.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보조 교사들을 존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써 주시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시는 모습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희 기쁨반의 안지는 선생님과 박주희 보조 교사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 성명 / 다솜에서 얼마 동안 보조교사를 했나요?
2.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1년을 보냈어요. 지난 1년동안 담임한 반은 어느 반이고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 팬데믹 상황에서 보조교사를 하면서 기억나는 점은? 어려웠던 점? 혹은 보람있었던 일은?
4. 내년에는 어떤 반(어린 반, 큰 학생 반 등등) 을 맡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올해 특별히 기억나는 학교 행사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6. 다시 한국학교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아니면 한국학생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7. 나에게 롤 모델이 되는 선생님 모습을 적어본다면 무엇입니까?



박 주 희

1. 다솜에서 2년 동안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2. 저는 기쁨반을 도왔습니다. 게임과 재미 있는 활동을 모두 zoom으로 하고 breakout rooms 을 통해 older 와 younger 학생들을 나누어 가르칠 수 있었어요.
3.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다른 보조교사들, 선생님들,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어요. 어려운 점은 온라인이라 어린 학생들과 소통이 잘 안되고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린 학생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4. 이번 가을에 대학에 가게 되어서 보조교사를 할 수 없지만, 이번에 어린 학생들을 도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5. 가장 기억나는 행사는 다솜 개교기념일이예요. 각 클래스에서 만든 비디오와 공연들이 참 재미있었어요.
6.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조회와 한국 역사 시간에 더욱 집중해서 배우고 싶어요.
7.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선생님들과 보조교사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강 태 희

1. 2년동안 봉사했습니다.
2. 화평반 / 권민혜 선생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온라인 수업이지만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열심히 수업했습니다.
3.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 집중이 잘 안되어 좀 어려웠습니다.
4. 어린 반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개교기념식 / 17주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학교가 계속 되었다는 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6. 한국역사 / 문화 / 인물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7. 권민혜 선생님께: 많이 부족한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동 진

1. 1년 동안 했습니다.
2. 지난 1년 동안 온유반을 담임했습니다.
3. 팬데믹 상황에서 보조교사를 하면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다 자기 집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게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학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technical issues 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업들이 결국은 잘 되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4. 큰 학생 반을 맡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5. 삼일절 기념식에서 독립운동에 관해 공부한 활동들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아침조회 때 했던 역사문화 presentation 들도 기억이 납니다.
6. 한국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7. 선생님께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인내심이 대단하셔서 존경스럽습니다.



박 비 비

1. 보조교사를 1년 동안 했습니다.
2. 제가 담임한 반은 충성반이었어요. 충성반은 에너지가 많은 반이에요. 수업 중에는 집중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우리 반의 특별한 점은 문장 읽기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는 것이에요.
3. 팬데믹 상황에서 보조교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인터넷 문제였어요. 애들이 카메라가 안되거나 컴퓨터 소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아쉬웠어요.
4. 내년에는 어린 반을 맡고 싶어요. 아직은 큰 학생 반을 맡을 준비가 안됐어요.
5. 기억나는 학교 행사는 개교기념일 행사예요. 각 반마다 비디오를 준비해서 보여줬는데 각반이 한 게임이나 과제를 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6. 다시 한국학교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싶어요.
7. 지난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보조교사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매주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 잘 끝내서 기쁘고 모두 존경스러워요!



권 민 호

1. 올해가 보조교사로서 저의 첫 학년이었습니다.
2. 지난 1년 동안 담임한 반은 충성반이고 특별한 점은 올해 충성반에는 남학생들 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3. 이 팬데믹 상황에서 보조교사를 하면서 기억나는 점은 충성반 학생들과 재미있는 게임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 학생들과 직접 만나서 수업을 못한 것입니다.
4. 내년에는 어린 반을 맡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충성반을 담임하면서 어린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5. 올해 특별히 기억나는 학교 행사는 3월 13일에 있었던 다솜한국학교의 개교 17주년 기념식입니다. 그 이유는 충성반이 다같이 발표를 위해 준비할 때 특별한 추억들을 많이 쌓았고 또한 충성반 학생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했기 때문입니다.
6. 다시 한국학교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발표나 프로젝트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7. 모든 선생님들과 보조교사들,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21-2022에는 꼭!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길 바라요!!

북가주 구연동화대회를 마치고

글_도주희 (이준 학생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다솜한국 학교 충성반에 다니고 있는 이준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한국의 아름답고, 소중한 문화를 배우고 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한국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올해는 온라인 수업이라 쉽지 않은 한해였지만,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알게 되니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준이가 동화구연 대회에 참여하였어요. 처음에 동화구연 대회에 대해 들었을 때에는 ‘못할 것 같은데...잘 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부터 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외우는 것도, 발음도 어려웠어요. 준이는 카메라를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다른 곳을 보며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힘들다고 느낀 준이가 첫 번째 연습에서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엄마와 매일 20분, 다솜 선생님들과 매주 온라인으로 만나 연습하면서 달팽이가 나아가듯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여유 있게 카메라를 보게 되고, 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화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이의 태도가 바뀌고, 자신감이 쌓여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연습을 하면서 준이가 많이 했던 말은, “한 번에 잘할 수 없어?” “빨리 잘했으면 좋겠어” 였어요. 하지만 연습 과정을 통해 저와 준이는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큰 선물이었지요. 이번의 배움으로 준이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대회에서 수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솜의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동화 선정과 연습, 녹음, 대회와 시상식까지 모든 선생님께서 한 팀이 되어 이끌어 주셨답니다. 엄마인 제가 놓치는 부분을 세심히 살피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역시 다솜 최고! 라고 느꼈답니다.

다솜한국학교의 목표를 다시 읽어 보았어요. 학교 목표 그대로 사랑의 학교,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울타리 다솜에서 늘 행복하게 도전하고 눈부시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기대하면서, 마음과 힘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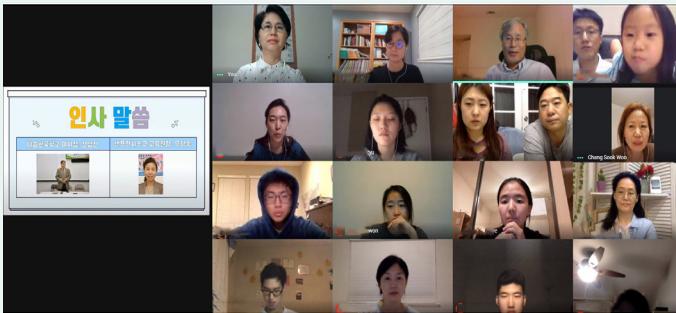


교사 훈련 및 보조교사 훈련 2020년 8월 29일



다솜한국학교에서는 2020~2021학년도 개강을 위한 교내 교사 훈련을 3차례에 걸쳐 마치고 보조교사 훈련을 지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구글 미트 플랫폼으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보조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보조교사들은 재미한국학교협회 웹사이트에 올려진 교수법 및 온라인 수업에 관한 강의를 듣고 온라인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교재픽업 및 학부모의 밤 개최 2020년 9월 11일



다솜한국학교에서는 2020~2021학년도 개강 전날인 지난 9월 11일 저녁 7시 30분부터 구글 미트 Platform을 통해 학부모의 밤 (Parents' Night)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교재 픽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보조교사들에게 대통령 봉사상을 수여했습니다.

개강식 2020년 9월 12일



다솜한국학교 2020~2021학년도 개강식이 지난 9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Google MEET로 개최되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에 이어 박석현 목사의 말씀과 기도, 전남진 이사장님의 격려사와 교장 선생님 인사, 선생님 소개 및 반 배정을 마쳤습니다. 대면 개강식이 아니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응원하는 메시지를 통해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개강식 직후에 학생들은 각 반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아침조회 속담 공부 2020년 9월 19일

2021년도 봄학기 아침조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2021년 5월 1일 교장샘 구성

“티끌 모아 태산”

티끌 mote, small thing
모으 gather, collect
태산 high mountain, a tremendous thing

Many drops make a shower.
Many a little makes a mickle.

바느질 도구

인두 Iron
자 Ruler
실 Thread
가 Scissors
바늘 Needle
골무 Thimble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GO 가다
고맙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remember that a tower built with hard work won't collapse easily
put effort into 탑
공들이다
tower, pagoda
collapse, crumble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sometimes frogs forget that they were tadpoles too.
moral: sometimes a frog does not remember that they were tadpole too.
Frog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대면수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교장선생님과 함께 하는 아침 조회 시간을 매주 9시 30분부터 10시 까지 진행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는 주로 속담 공부를 했고 역사 문화 수업 및 계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배운 속담은 15가지였고 가장 재미있어 하는 속담은 “바늘가는 데 실 간다”였습니다.

추석 행사 2020년 10월 03일

우리의 명절
추석

감 송편
추석
강강술래
가족
보름달

추석에는 송편도 먹고, 강강술래도 하고, 가족과 같이 있는 날이에요.
강강술래는 여자들이 하는 춤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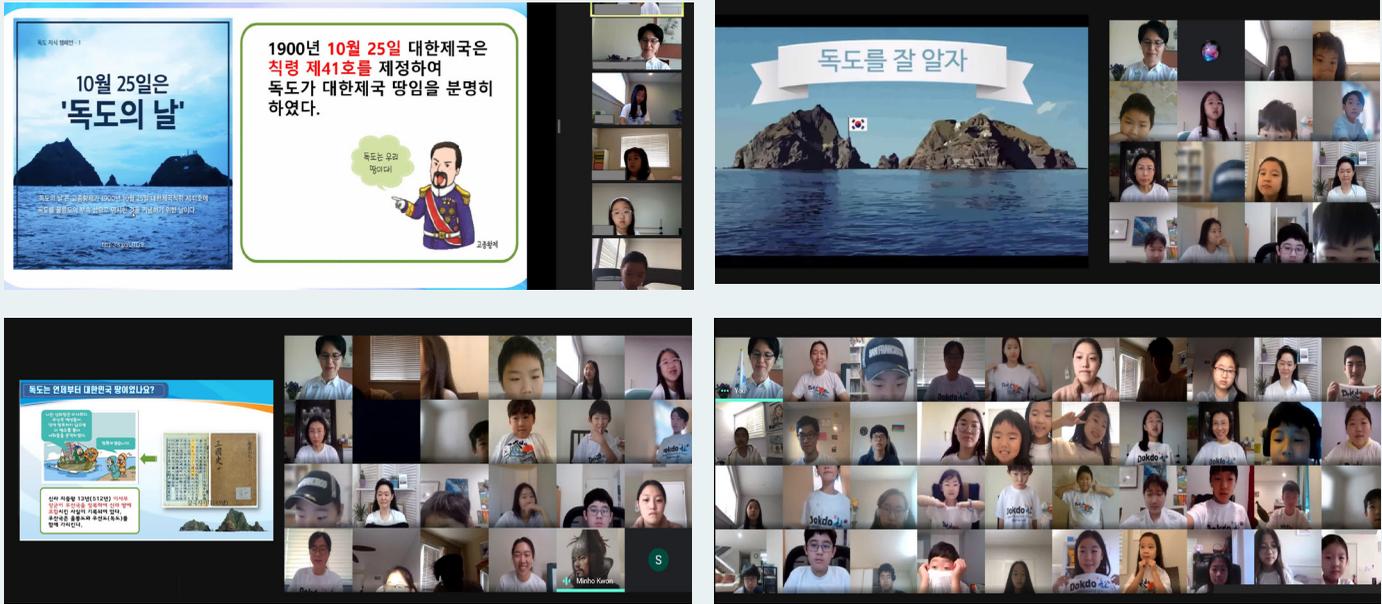
추석은 언제예요?

15
12 Answers

▲ 음력 1월1일
● 음력 8월15일
◆ 음력 1월1일
■ 음력 8월15일

2020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10월 3일에 온라인으로 추석에 관해 공부하며 추석을 지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한복을 입고 추석을 대표하는 물건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기 시작 전부터 예년과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추석에 관해 공부할 지 많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안지은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를 해주셨고 권미정 선생님이 어린 반들을 위한 퀴즈를 박은경 선생님이 큰 반을 위한 퀴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 반에서는 점보드 등을 이용해서 추석에 관한 보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독도의 날 기념 행사 2020년 10월 24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을 맞이한 2020년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2020년 10월 24일에 독도에 관한 계기 수업을 했습니다.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은 독도 티셔츠를 입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렸습니다. 최미영 교장은 전체 강의를 통해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고, 미국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찾으려면 리앙쿠르 암초로 나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독도의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재미동포 학생들은 조선 속종 때, 안용복의 활동과 같이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당당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근속 교사 표창 2020년 12월 19일



원은경 교감 선생님과 박은경 교무 선생님이 15년 근속 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솜한국학교에서 만 15년 이상을 가르쳐 오신 분들로 다솜의 산 역사와 같은 분들입니다. 15년 이상의 세월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오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제자들을 키우시기를 기원합니다.

보조교사 사은회 2020년 12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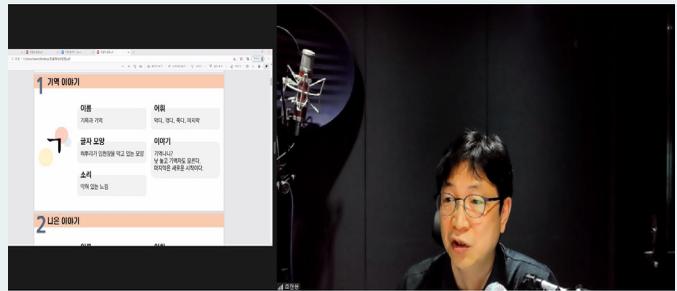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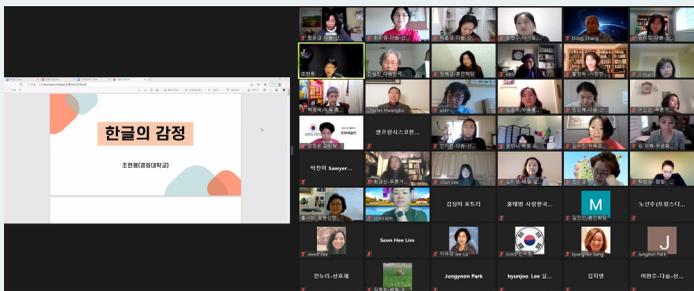
12월 19일 하교 후에 구글 미트로 보조교사 사은회를 했습니다. 보조교사들은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함께 하면서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을 돕고 아침조회 시간에는 역할극을 담당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준 보조교사들께 감사합니다.

한국 역사문화 교재 출판기념식 2020년 12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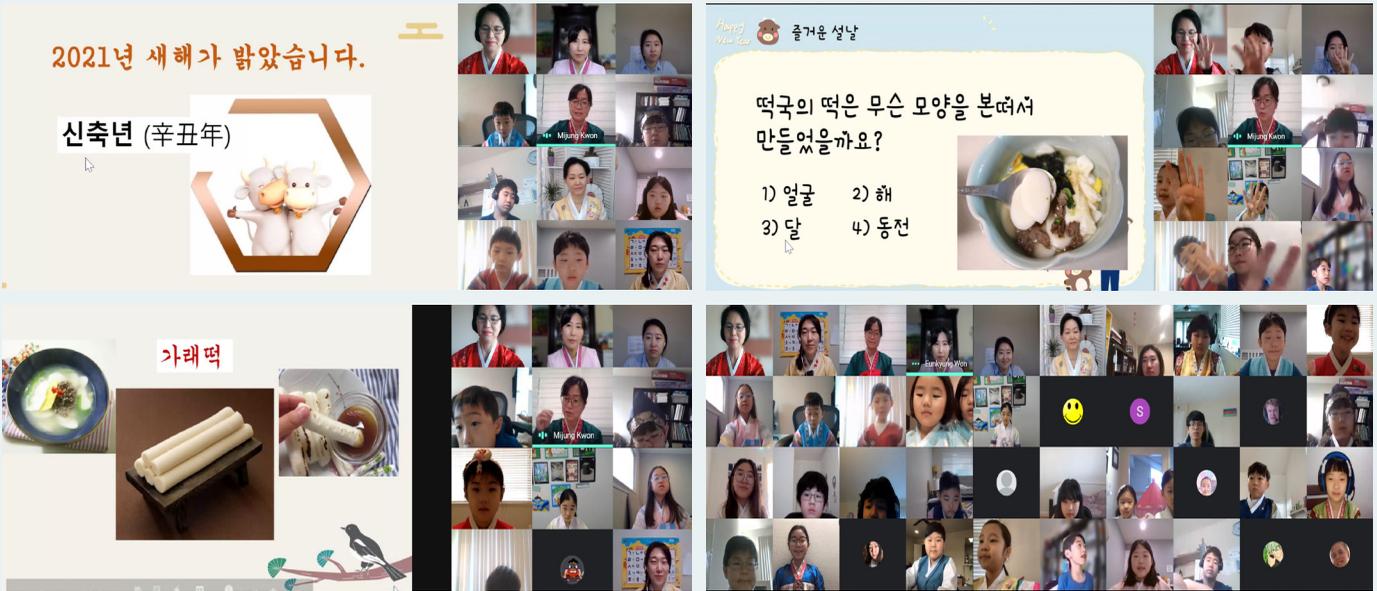
이중언어로 배우는 한국 역사문화 교재 'Beautiful Korea · The Life of Koreans(아름다운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삶)' (ISBN 978-0-9997153-4-5)의 출판기념식이 지난 12월 19일에 있었습니다.

<한글의 감정> 특강 2021년 1월 23일



1월 23일 미국 서부 시간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한글의 감정>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조현용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었는데 다솜한국학교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비롯하여 미국의 LA, 뉴욕, 뉴저지, 시카고,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텍사스, 워싱턴 주 등의 한국학교 교사들과 한국어를 정규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뉴질랜드, 모로코, 프랑스, 과테말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까지 65명의 선생님이 참석하여 좋은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설날 행사 2021년 2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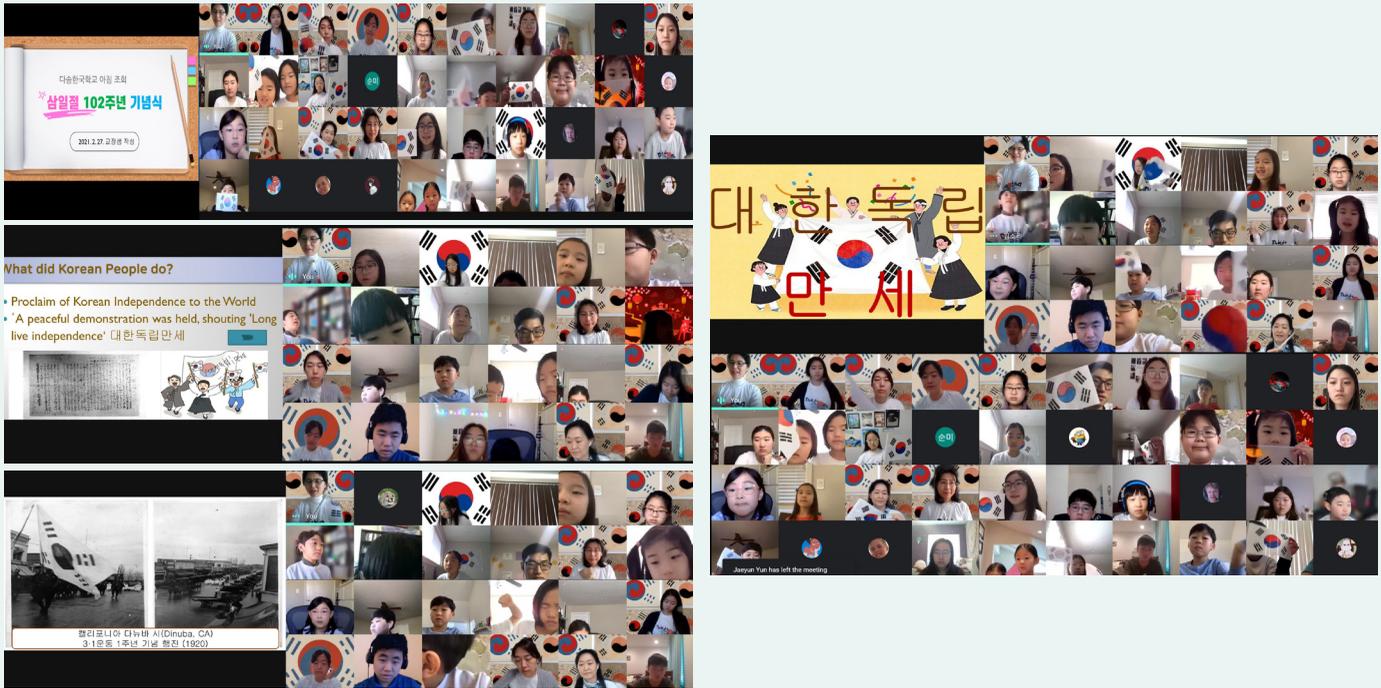
본교에서는 2021년 신축년 설을 맞이하여 지난 2월 13일에 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비록 만나서 함께하는 설 행사는 아니었지만 함께 한복을 차려입고 권미정 선생님과 권민혜 선생님이 준비하신 강의로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한민족의 설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1주일 전에 학생들에게 교재를 배부하면서 가래떡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학생들은 가래떡을 예쁘게 썰면 떡국에 들어가는 떡이 되는 것을 실제로 집에서 체험해보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썰어놓은 가래떡으로 떡국, 떡만두국, 떡볶이 등을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동영상과 사진을 함께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재외동포문학상 및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상장 전수식 2021년 2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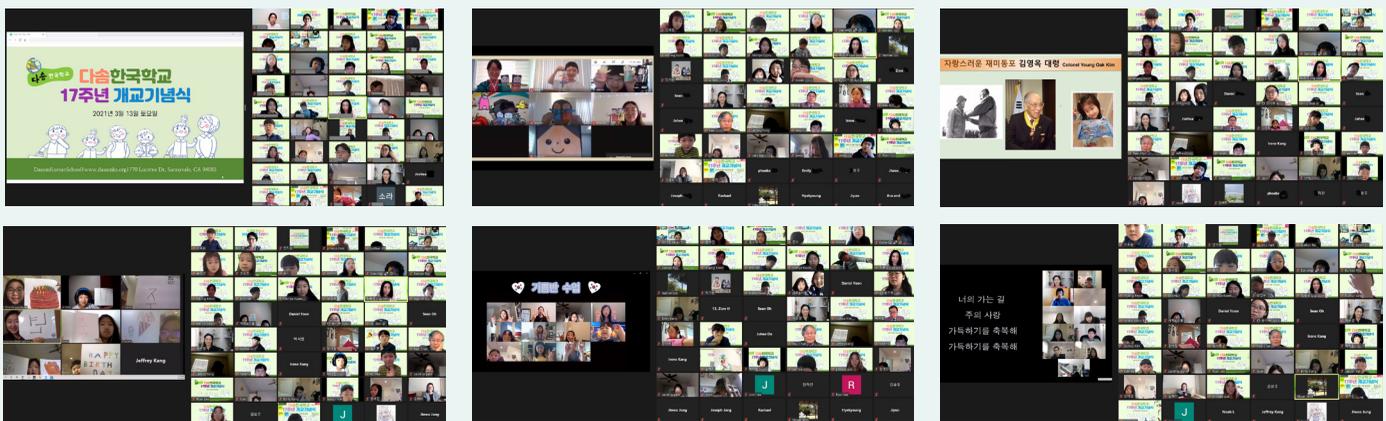
팬데믹으로 미뤄졌다가 2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개최된 2020년 재외동포문학상 및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상장 전수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본교 열매반 장하진 학생이 재외동포문학상 청소년 글짓기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장과 상금을 받았고, 다솜한국학교는 한글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글쓰기를 장려하는 '한글학교 특별상'으로 상패와 상금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에서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화평반 윤지유 학생의 상장 전수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삼일절 계기 수업 2021년 2월 27일



삼일절 102주년을 맞이하여 2월 27에 삼일절 계기 수업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손태극기와 삼일운동 때 사용하던 태극기 혹은 데니 태극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 등을 화면의 배경으로 하여 삼일절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신 신채호 선생님의 말을 다시 새기며 손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쳐보았습니다. 동시에 21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독립운동과 같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개교 17주년 기념식 2021년 3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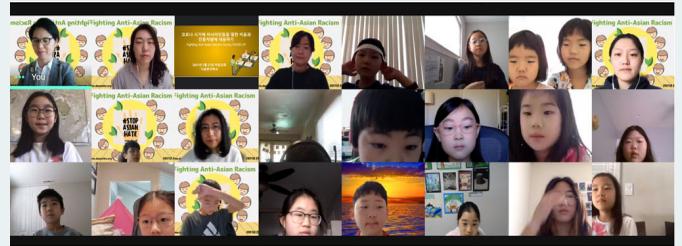
2021년 3월 13일에 본교에서는 개교 17주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기념식과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개교 기념식은 취소되었고 1년을 기다려서 개교 기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개교기념식이었지만 학생들은 개교기념식 배너를 배경으로 띄우고,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발표하며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년말 발표 때에 학생들은 개교기념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F 교육원 UCC 공모전 시상식 2021년 3월 19일



SF 한국교육원(원장: 우창숙)에서는 2021년 1월에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This is Korea.)”이라는 주제로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3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대회 ‘대상’ 수상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이남현, 이준건 학생의 ‘태극기를 통해 표현된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대응에 관한 특별수업 2021년 3월 27일



코로나-19기간 동안에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대응에 관한 특별 수업을 3월 28일에 진행했습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비드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택격리 등으로 모두 힘든 상황에서 전염병 만크거나 급증하고 있는 인종혐오 범죄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최미영 교장 선생님은 강의에서 최근에 더 많아진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차별에 관해 동포 학생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수업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뿌리를 알고 금지와 자존감을 갖는다면 차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인종 차별 및 혐오 사건을 반대하는 포스터와 희망 포스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는 법, 불의에 대하여 안전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17회 북가주 구연동화 대회 시상식 2021년 4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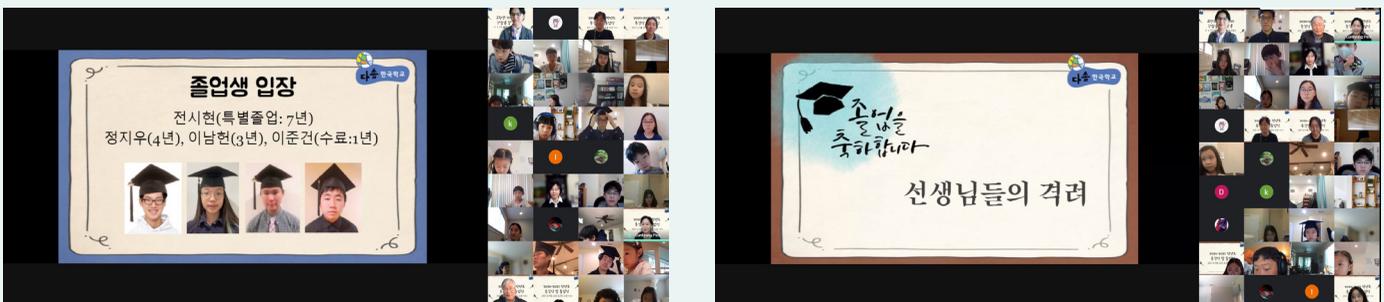
제17회 구연동화대회 시상식이 지난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본교 대표로 대회에 참가한 총성반 이준 학생이 <다함께 영차, 영차!>라는 제목의 동화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담임이신 권미정 선생님과 원은경 교감 선생님이 시상식에 참석하셔서 이준 학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동영상 촬영으로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묵묵히 열심히 연습해 준 이준 학생과 부모님 그리고 매주 정성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권미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2021학년도 종강식 2021년 5월 22일



2020~2021학년을 마치며 5월 22일에는 Google MEET로 종강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원은경 교감 선생님의 사회로 시작된 종업식은 국민의례와 박석현 목사님의 기도과 말씀, 전남진 이사장님의 격려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동영상을 감상한 후, 교장선생님은 학사보고를 해주시고 온라인 수업 중에서도 최선을 다한 학생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봉사상, 이사장상,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상 및 모범상을 받은 학생들에게 상장이 수여되었고 가장 큰 상인 1년 개근상은 20명의 학생에게 수여하였습니다. 북가주 구연동화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이준 학생의 발표가 이어졌고, SF 교육원 UCC 콘테스트에서 은상을 수상한 이준건, 이남현 학생의 "태극기를 통해 표현된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동영상은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9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2021학년도 가을학기 개강을 알리는 광고로 종강식을 마쳤습니다.

2021년도 졸업식 2021년 5월 22일



졸업생: 전시현(특별 졸업, 7년), 정지우(4년), 이남현(3년), 이준건(수료 1년)

2020-2021학년도 다솜한국학교 졸업식이 5월 22일 Google MEET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졸업생이 졸업 모자를 쓰고 <위풍당당 행진곡>에 맞추어 입장하는 것 대신 졸업모를 쓴 모습을 한 명씩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졸업하는 4명의 졸업생들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다솜 웹사이트 사진첩에서 찾아 성장하는 모습의 사진을 모으고 재학생들의 축하 인사를 담은 동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졸업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전시현 졸업생은 2년 동안 학생으로 5년 동안 보조교사로 봉사함으로써 다솜 역사상 가장 오래 보조교사를 한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은 각자 졸업에 대한 감회 및 다솜에서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졸업장을 받고 졸업 모자의 태슬을 묶기는 것으로 졸업을 선포하였습니다. 권민호 보조교사와 김성희 선생님의 바이올린 듀엣 축하연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을 축하하며 졸업생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전남진 이사장님의 기도로 화상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인 졸업생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 다숨, 9월 개강을 위한 보조교사 훈련: 2020년 8월 31일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신문

HME > 뉴스 > 특이

다숨한국학교, 9월 개강 앞두고 보조교사 워크숍 실시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8.31 11:25

올해 보조교사 맡은 8명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진행 방식 설명하고 학사일정 등 공유



미국 다숨한국학교는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구글 미트 플랫폼으로 2020~2021학년도 개강을 위한 보조교사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 다숨한국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숨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2020~2021학년도 개강을 위한 교내 교사 워크숍을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데 이어, 보조교사 워크숍을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구글 미트 플랫폼으로 진행했다.

최미영 다숨한국학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월 중순부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 수업에서 보조교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해 보조교사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숨한국학교 보조교사는 10학년 이상으로 주로 이 학교 졸업생이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보조교사를 맡은 8명이 이번 연수에 참가했다.

보조교사들은 사전에 재미한국학교협의회(MAAS) 플랫폼에 있는 교수법 및 온라인수업에 관한 강의를 듣고, 훈련 당일 다른 보조교사들과 나눔 내용과 온라인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보조교사들은 주로 컴퓨터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발표했고, 2년 이상 경험을 가진 보조교사들은 교실에서 수업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학급관리에 관심을 보였다.

보조교사들의 발표 후에는 각 반별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와 교과서교재도구보조교사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올해 학사 일정과 수업 요일에 대해 공유했다.

다숨한국학교는 오는 9월 12일 가을학기 개강이 앞서 9월 9일에 한 차례 더 보조교사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수 기자

3. 다숨한국학교 교사훈련 완료: 2020년 9월 9일 주간현대

10 September 3, 2020 - September 9, 2020

로컬 뉴스

HYUNDAE NEWS USA

다숨한국학교 교사(보조) 훈련 완료

9월 12일, 2020-2021 온라인 수업 9월11일(금) Parents' Night

새해배설사에 위치한 다숨 한국학교(교장 최미영)에서는 2020-2021학년도 개강을 위한 교내 교사 훈련을 3차례에 걸쳐 마지막 보조교사 훈련을 지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구글 미트 플랫폼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이 러스로 인해 교실 수업이 중단되고 3월 중순부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 보조교사들이 자신들의 역량 발휘할 기회가 적어진 것 같다

다숨한국학교가 표기를 배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미영 교장은 "지난 2004년 개교 당시의 사정을 보이며 17년 동안 학교가 많이 성장하였"면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

들이 더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올해 학사 일정과 주일 시간에 관해서 보조교사들과 나누었는데 예년처럼 영의 역사보안 조의를 하고 내용은 재외동포 인물(안동환, 사재원, 최재원, 강영옥, 박병신)로 정했다고 했다. 또한, 교실 수업을 할 때는 전체 학생이 듣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반별로 수업을 하므로 토요일마다 모든 학생이 다 함께 듣는 기회를 통해 많은 제도와 숙담 등을 배운 후에 각 반으로 들어가서 3시간의 수업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보조교사들은 자신들이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였는데 한류와 여러 가지 디지털 플랫폼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 이상 교장은 "다숨한국학교는 10년 동안 수고해 온 5명의 보조교사에게 대령분 봉사를 수여하였다. 올해 보조교사 수 총 8명이며 다숨 보조교사 심사를 함께 함으로 보조교사 연수회를 무사히 마쳤다.



다숨한국학교는 오는 9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개강식을 마치고 반별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9월 9일에는 2차 보조교사 훈련이 있고 훈련 직후에는 교과서와 교재를 상호제안장 도고의 주자점에서 파악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한국 및 한국 이사분과 교육을 돕기 위해 9월 11일 금요일 저녁에 Parents' Night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다. <김정열 기자 정리>

4. 장하진 학생, 재외동포문학상 수상: 2020년 9월 14일 한국일보



전체 한인사회 로컬경제 스포츠

사회일반

다숨한국학교 장하진 학생 우수상

댓글 2020-09-14 (월)

▶ 재외동포문학상 초등부 글짓기 부문



다숨한국학교(교장 최미영) 장하진(사진) 학생이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한 제 22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에서 글짓기 초등부 우수상을 수상했다.

"아주 특별한 산책"이라는 제목의 글은 지난 2월 돌아가신 외할머니께 바치는 것이라고 밝힌 장하진 학생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바꾼 글이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큰 감사함을 느낀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다숨한국학교에서는 올해 3명의 학생이 작품을 출품했고 장하진 학생의 우수상과 더불어 한글학교 특별상도 수상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의 한글 문예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이같은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수상작품을 모아 9월 중에 '2020 재외동포 문학의 장'을 발간, 배포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10월까지 관할 공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2. 재외동포 그림일기대회 대상에 윤지유 학생: 2020년 8월 18일 연합뉴스

연말뉴스

[게시판] 재외동포 그림일기대회 대상에 윤지유 학생

송고시간 | 2020-08-18 15:05

▲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임영달)은 제2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 그림일기 대회 대상 수상자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서니베일에 있는 다숨한국학교 윤지유(10세) 학생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 대회 대상 수상작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제공)

<저작권자(사)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8/18 15:05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의 취재진이 취한 자료의 편집을 담당합니다. Copyright ©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5. 다솜한국학교 학부모의 밤 행사 개최: 2020년 9월 14일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신문

HOME > 뉴스 > 특집

미국 다솜한국학교, 새 학기 앞두고 '학부모의 밤' 행사 개최

온 세평원 기자 | 승인 2020.09.14 12:00

코로나19 시기 고려해 개강식 전 학부모들과의 시간 존배



미국 다솜한국학교는 9월 14일 저녁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학부모의 밤 (Parent's Night)'을 개최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미국 서니베이브 소재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새 학기 개강을 하루 앞둔 9월 11일 저녁(현지시간) 구글 미트(GOOGLE MEET)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해 '학부모의 밤 (Parent's Night)'을 개최했다.

다솜한국학교는 개강식 때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오리엔테이션을, 이번 학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강식 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학교 측은 "온라인 수업 상황이 되기전 자녀들의 가정의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개강 전에 자녀를 만났습니다"며 "부모님들도 배워야 하는 온라인 수업 관련 플랫폼 및 홈페이지 배운 수업 상황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려 학생들이 부모의 도움으로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행사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다솜한국학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학교에 지속해 자녀를 보내는 일이 쉽지 않지만, 중기를 내어 주심에 감사한다. 특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교사들이 부족함이 있을 것을 다해 많은 준비를 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리면서 전 이사장은 "다만 수업과 비교해 온라인 수업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온라인 수업에서 부모님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힘이 되시길 바란다. 협조를 부탁하며 힘을 모아 지혜를 이 어거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우정숙 샌프란시스코 교육원장은 "다솜한국학교 학부모님들을 뵈게 돼 진심으로 반갑다"며 "코로나와 신종 바이러스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다솜 선생님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세대 교육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특히 다솜한국학교는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 열정을 쏟아붓는 학교로 유명하다. 이번 학기에도 학부모님들과 학교가 잘 협력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다솜한국학교는 9월 14일 저녁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학부모의 밤 (Parent's Night)'을 개최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최미영 교장은 간단한 학교 소개에 이어 새 학기 학사일정과 각 주간 일정에 대해 공지하고 교과서 및 교재에 대해 안내했다.

또 최 교장은 어휘 조회의 역사문화 조회, 그리고 제기 수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학부모들이 궁금해 할 반 행정 방법 및 여름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 그리고 교사 반 수 및 보조 교사 인수의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각 반별로 입문생선님과 함께 하는 더 자세한 인사가 이어졌다.

6. 다솜한국학교 추석 수업: 2020년 10월 7일 한국일보



전체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핫이슈 한국홍소평 케이톡 COVID-19 지식록 K스토

사회일반 다솜한국학교 추석수업

댓글 2020-10-07 (수)



<사진: 다솜 한국학교>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지난 3일 추석맞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과 교사들은 한복을 입고 추석을 대표하는 물건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했으며 안치는 선생의 강의로 추석의 뜻과 시기, 음식, 놀이, 옷 등 다양한 측면을 공부했다. 엄마가 직접 만든 모듬전과 송편, 추수과일인 배 등 인상적인 추석 음식 및 물품을 서로 소개했으며 온라인 퀴즈인 '카훗' 게임을 통해 이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도 했다. 추석 수업후에는 각 반에서 한국어 공부와 함께 추석 관련 수업을 한 차례 더 진행했다. 점포도 꾸미기, 추석상 차리기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다.

7. SF서 활동한 안창호 선생 주제로 뿌리 교육: 2020년 10월 11일 코리아데일리

다솜한국학교, SF서 활동한 안창호 선생 주제로 뿌리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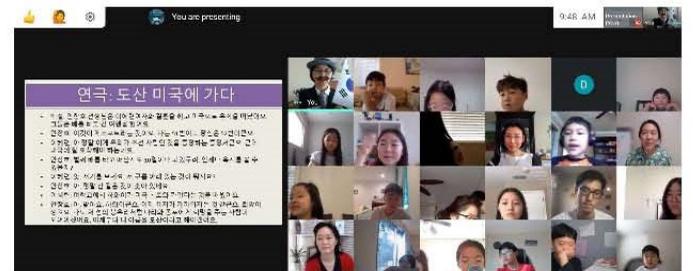
by KDT posted Oct 11, 2020

캘리포니아 북부 서니베이브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세계를 누빈 재미동포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을 주제로 한국인의 독립정신과 뿌리에 대해 교육했다.



2020-21학년도 한국역사문화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자랑스러운 재미동포를 찾아서'로 정한 다솜한국학교는 10월 그 첫 시간으로 안창호 선생을 주제로 공부했다.

강의를 맡은 최미영 교장은 안창호 선생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강의를 했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 찾아 안 선생이 누구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교장은 "안 선생은 1902년 부인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첫 재미동포라고 할 수 있다"며 "본교와 가까운 샌프란시스코에는 안 선생이 조직한 공립협회, 흥사단, 대한국민회 본부가 있었던 사적지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안 선생이 인터뷰했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도 본교 인근에 있어 찾아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역사 교육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 2020 국경일 행사-애국가 제창 보도: 2020년 10월 14일 한국일보



전체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핫이슈 한국홀쇼핑 케이톡 COVID-19 지식록 K스토

사회일반 애국가 제창의 감동

댓글 2020-10-14 (수)



<유튜브 캡처>

'대한민국의 하늘을 연 날인 개천절(국경일) 기념식이 지난 3일 유튜브로 상영됐다. 이날 SF 총영사관이 사전제작한 동영상에는 한국어 이머전 수업을 하는 SF릴리엔탈 학교, 임마누엘 한국학교, 가나다한국학교, 한울한국학교, 다솜한국학교 학생과 교사, 피시픽콰이어 단원 등 59명이 부르는 애국가 제창이 감동을 더했다. 또 한인단체장 및 각계 인사, 한인입양인 등의 응원과 격려, 박준용 SF총영사의 기념사, 런던 브리드 SF시장 등 미정부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국경일 기념식 영상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nKNPuiW7to8>)에서 볼 수 있다. 애국가 제창에 참여한 학생들.

9. 다솜한국학교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 수업: 2020년 10월 15일 한국일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전체 한인사회 로컬경제 스포츠 케이톡 COVID-19 지식록 K스토리 부동산

사회일반 다솜한국학교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 수업

댓글 2020-10-15 (목)



<사진 다솜한국학교>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2020-2021학년도 한국역사문화 교육과정 대주제를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로 정하고 지난 10일 첫 시간으로 '세계를 누빈 재미동포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을 주제로 수업했다. 최미영 교장의 안창호 선생 분장과 학생들의 역할극, 안창호 선생의 SF크로니클지 인터뷰 읽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안창호 선생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꿈을 찾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10. 다솜한국학교, '자랑스런 재외동포' 수업: 2020년 11월 24일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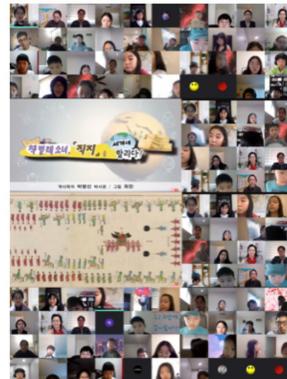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전체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핫이슈 한국홀쇼핑 케이톡 COVID-19 지식록 K스토리 부동산

사회일반 다솜한국학교 '자랑스런 재외동포' 수업

댓글 2020-11-24 (화)



<사진 다솜한국학교>

서니베일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지난 21일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 2편으로 '직지와 의례를 전 세계에 알린 박병선 박사'에 대해 공부했다. 박병선 박사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교장각 의례(조선왕실 고문서)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썼으며, 국립도서관 베르사유 분관 참고에서 직지를 발견해내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3년 앞선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11.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의례를 찾은 박병선 박사': 2020년 11월 27일 주간현대

10 November 26, 2020 - December 2, 2020

칼럼

HYUNDAE NEWS USA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의례'를 찾은 박병선 박사"

다솜한국학교, 2020-2021 한국역사문화교육 교부

세니베일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 교장 최미영은 2020-2021학년도 한국역사문화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로 정하고 지난 11월 21일에 그 둘째 시간으로 '직지와 의례를 전 세계에 알린 박병선 박사'라는 제목으로 공부했다. 박병선 박사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교장각 의례(조선왕실 고문서)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썼으며, 국립도서관 베르사유 분관 참고에서 직지를 발견해내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3년 앞선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박병선 박사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교장각 의례(조선왕실 고문서)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썼으며, 국립도서관 베르사유 분관 참고에서 직지를 발견해내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3년 앞선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박병선 박사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교장각 의례(조선왕실 고문서)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썼으며, 국립도서관 베르사유 분관 참고에서 직지를 발견해내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3년 앞선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학생들은 외교장각 의례가 조근부터 차차 한국으로 병인양요 때 약탈되고 (역사) 직지는 아직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는 것에는 아쉬웠다. 학생들은 판매되어 버린 유물이 많을 수 밖에 없었고 앞으로 자랑스러운 유물을 되찾을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했다. 앞으로 4주 동안 학생들은 눈앞에 놓여진 재외동포를 찾아 공부를 하고 각자 좋아하는 재외동포 유물에 관한 프로젝트를 해보기로 했다. 프로젝트는 동영상 제작, 유인 소개 포스터 만들기, 산책의 혹은 미니-만들기 등이 포함된다.

이번 수업은 통해 우리 학생들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교장각 의례를 찾아낸 것에 감사하듯 배우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배울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는 지난 10월에 배운 '세계를 누빈 재미동포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과 함께 공부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장구학교 인문학 수업에서 배우게 될 교과안 이해하고 코멘터리로 들어있는 내용이니, 학생들이 장구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한층 더 이해하고 더 배워야 할 것이다. 민족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데스크 기사>



12. 다솜한국학교 김영옥 대령에 대해 배우는 시간 가져: 2020년 12월 14일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신문

HOME > 뉴스 > 북미

다솜한국학교, 故김영옥 대령에 대해 배우는 시간 가져

☞ 서정필 기자 | ☎ 승인 2020.12.14 14:41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 세 번째 순서

‘100% 미국인인 동시에 100% 한국인 김영옥 대령’ 주제 학습



다솜한국학교는 12월 12일 역사 교육 시리즈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 세 번째 시간으로 '100% 미국인인 동시에 100% 한국인 김영옥 대령' 수업을 진행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 소재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12월 12일 역사 교육 시리즈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 세 번째 시간으로 '100% 미국인인 동시에 100% 한국인 김영옥 대령' 수업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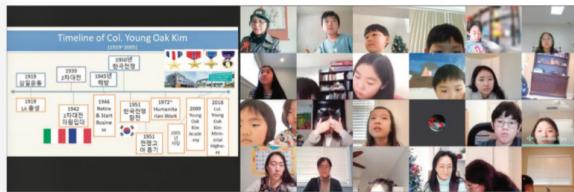
최미영 교장은 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준비된 시청각 자료와 동영상, 그리고 학생들의 역할극과 퀴즈 등이 포함된 재미있는 강의를 펼쳤다.

13.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 - 김영옥 대령: 2020년 12월 17일 주간현대

14 December 17, 2020 - December 23, 2020

칼럼

HYUNDAE NEWS USA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 (3)

100% 미국인인 동시에 100% 한국인 김영옥 대령

다솜한국학교 한국 역사문화 교육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다솜 한국학교(교장: 최미영)에서는 2020~2021학년도 한국 역사문화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로 정하고 지난 12월 12일에 그 셋째 시간으로 '100% 미국인인 동시에 100% 한국인 김영옥 대령'이라는 제목으로 강무했다.

최미영 교장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준비된 파워포인트와 동영상, 그리고 학생들의 역할극과 퀴즈 등이 포함된 재미있는 강의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진행 양상을 그리고 항산, 여승, 장 애아, 노신, 양양아 등의 사회적 약

자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신 김영옥 대령을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전쟁의 영웅은 시후에 더 유명 해지고 평가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김영옥 대령이 바로 그런 인물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편견과 고난을 넘어서 불태 신의를 남긴 전설적 전쟁영웅이자 위대한 인도주의자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아이에게 미국인들을 위한 활동에 양심성을 학생들은 동영상을 보조교사들과 함께 하는 역할극을 통해 알게 되었다.

강의를 한 최미영 교장은 자랑스러운 영웅 김영옥 대령은 우리 모두가 학생들이 인생에서 꼭 모드로

를 해보기도 했다.

프로젝트는 동영상 제작, 워딩 스킵, 포스터 만들기, 생애록 혹은 미니북 만들기 등이 포함된다.

이번 수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100% 미국인인 동시에 100%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리준 김영옥 대령의 끝없는 노력과 인내에 관해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 공부해줄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는 지난 10월에 배운(세계를 누빈 재외동포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 11월에 배운(학자와 의객을 전 세계에 알린 박명선 박사) 외에 재미 리 박사과 서희림 박사 등이 포함된다.

이 인물들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영어로 배우고 공부해오 수업을 배우게 될 30년간 이어질 20년 차세대들에게 들어있는 내일이다. 학생들이 한국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친구들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서정필 기자>

앞으로 4주 동안 학생들은 각 반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된 학습지를 받들고 공부하고 각자 좋아하는 재외동포 위인에 관한 프로젝트를

14.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김영옥 대령”: 2020년 12월 17일 한국일보

San Francisco - 한인사회



다솜한국학교,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김영옥 대령' 수업

(한인사회)



<사진: 다솜한국학교>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 3번째 수업으로 지난 12일 전쟁 영웅이자 인도주의자인 김영옥 대령에 관해 공부했다. '100% 미국인인 동시에 100% 한국인 김영옥 대령' 제목의 이번 강의는 파워포인트와 동영상, 역할극과 퀴즈 등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됐다. 다솜한국학교는 향후 4주간 각자 좋아하는 재외동포 위인을 주제로 영상과 포스터, 미니북 제작 등 프로젝트를 하고 새로운 재외동포 위인을 배우며 민족의 뿌리를 계속 공부해갈 예정이다.

15. 다솜한국학교, 한국역사문화 교재 발간: 2020년 12월 25일 한국일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전체

한인사회

로컬경제

스포츠

케어북

COVID-19 지식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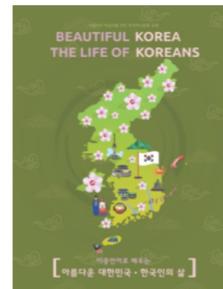
K스토리 북등

사회일반

다솜한국학교, 한국역사문화 교재 발간

댓글.. 2020-12-25 (금)

▶ “아름다운 대한민국·한국인의 삶”



서니베일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지난 19일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배우는 한국 역사문화 교재 "Beautiful Korea 'The Life of Koreans(아름다운 대한민국 한국인의 삶, 사 진)"을 발간하고 출판기념식을 치렀다.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계속 동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역사문화 교재를 발간해오고 있다.

최미영 교장은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정규학교에서는 이중학 프로그램을 통해 각 소수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게 되었다"면서 "이 교재가 한국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생각할 때 이중언어 교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 이중언어로 배우는 한국역사문화 교재 발간: 2020년 12월 24일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신문

HOME > 뉴스 > 북미

다솜한국학교, 이중언어로 배우는 한국역사문화 교재 발간

ⓒ 서정필 기자 | 2020.12.24 16:30

'Beautiful Korea-The Life of Koreans(아름다운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삶)

12월 19일 출판기념식 가져



다솜한국학교는 12월 19일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이중언어로 배우는 한국역사문화 교재 'Beautiful Korea-The Life of Koreans'을 발간하고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 소재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12월 19일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이중언어로 배우는 한국역사문화 교재 'Beautiful Korea-The Life of Koreans(160쪽, ISBN 978-0-9997153-4-5)'를 발간하고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계속 동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역사문화 교재를 발간해 오고 있다.

17. 다솜한국학교, '한글의 감정' 주제 온라인 특강 개최: 2021년 1월 25일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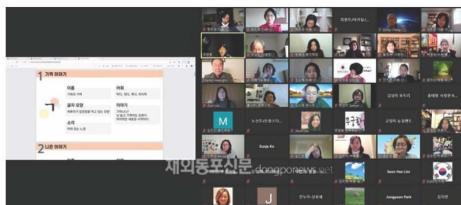
HOME > 뉴스 > 북미

다솜한국학교, '한글의 감정' 주제 온라인 특강 개최

ⓒ 서정필 기자 | 2021.01.25 13:33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조현용 교수 초청

미국 전역과 뉴질랜드, 모로코, 프랑스 등에서 교사 65명 참가



다솜한국학교는 1월 23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조현용 교수 초청 온라인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 소재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지난 1월 23일 미국 서부 시간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조현용 교수 초청 온라인 특강을 개최했다.

'한글의 감정'을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다솜한국학교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비롯해 LA, 뉴욕, 뉴저지, 시카고, 플로리다, 오를라모마, 텍사스, 워싱턴 주 등 한국학교 교사를, 한국어를 정규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뉴질랜드, 모로코, 프랑스, 과테말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까지 모두 65명의 선생님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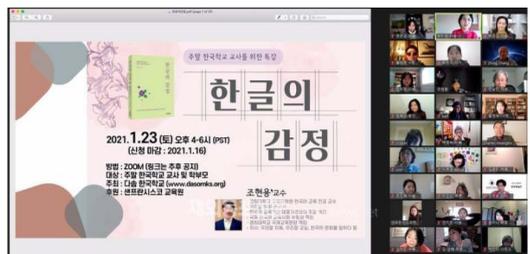


다솜한국학교는 1월 23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조현용 교수 초청 온라인 특강을 개최했다. 강연하는 조현용 교수 (사진 다솜한국학교)

최 교장은 그러면서 특강 규모에 대해 "처음에는 다솜한국학교와 주변의 몇 학교만 함께하자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많은 선생님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주변 학교 소속 선생님 뿐 아니라 대면 만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남친 다솜한국학교 이사장님의 기도와 우창숙 샌프란시스코 교육원장의 축사가 있었고 강사 소개 후 조현용 교수의 강의가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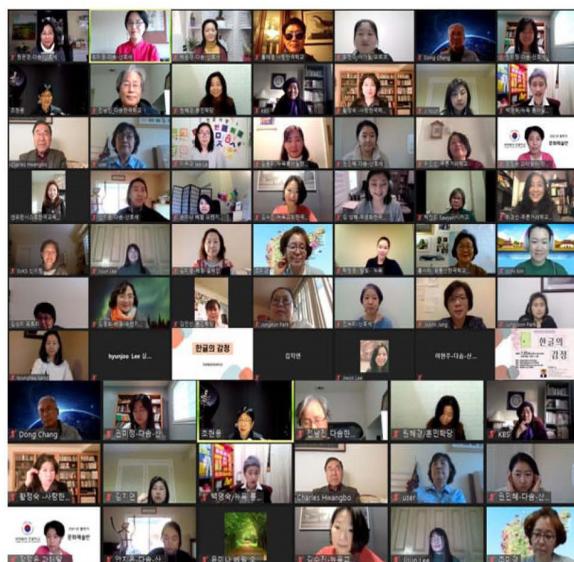
지금까지 한글 관련 강의가 한글의 창제 목적, 제자 원리, 발음기관 등 이론적이고 분석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어 왔다면, 이번 강의는 한글에 담긴 생각과 우리말의 느낌을 찾아보고 세종께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말의 소리와 단어를 글자로 표현하려고 하셨을까를 상상해 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다솜한국학교는 1월 23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조현용 교수 초청 온라인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강의를 지켜본 선생님들은 한글 자음의 이름과 각 자음이 나타내는 느낌, 그리고 느낌을 보여주는 단어의 예를 설명으로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하여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들은 "이빨 모양을 상형화했고 솟는 느낌을 가진 시옷, 솟아오르는 것을 막는 느낌의 지읒, 다시 솟는 느낌과 차가운 느낌의 치읓의 예로 '솟다', '지붕', '차다' 같은 것을 들 수 있다"는 내용을 듣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단어를 제시하며 '공통으로 느껴지는 것을 찾도록 해본다면 어휘 학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후부터 히읗까지는 '지치기 티피하라고 불렀다는 것도 독특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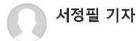
다ս한국학교는 1월 23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조현용 교수 초청 온라인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 다ս한국학교)

조 교수는 "모음은 자음보다 발음의 느낌을 더 명확하게 해준다. 밝은 느낌과 어두운 느낌, 무거운 느낌과 가벼운 느낌이 글자 모양에 반영돼 나타나는데, 중고등학교 때에는 느낌으로 배우기보다 문법 용어인 모음조화로 배웠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은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다른 시각에서 볼 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연을 마친 뒤 참가 선생님들은 "그동안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우리 말의 어휘가 가진 느낌에 관해 잘 알게 됐다"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며 잘 활용하겠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한 자리를 마련한 다ս한국학교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ս한국학교 측은 "전 세계의 선생님들이 함께하시는 이런 특강이 가능한 것은 코로나19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벽 1시인데 강의를 들은 프랑스와 모로코 선생님도 계셨고, 재외동포신문에 연재되는 조현용 교수님의 '우리말로 깨닫다'를 읽으며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 이번에 듣게 돼 기쁘다고 한 과테말라 선생님도 함께 할 수 있었다. 주말 한국학교와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함께 한 자리였다"고 이번 강연의 의미를 전했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18. 다ս한국학교 특강, 조현용 교수: 2021년 1월 26일 한국일보



<사진 다ս한국학교>

다ս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지난 23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조현용 교수를 초청해 '한글의 감정' 특강을 가졌다. SF를 비롯해 LA, 뉴욕, 뉴저지, 시카고, 플로리다, 텍사스, 워싱턴 등 미 전역은 물론 뉴질랜드, 모로코, 프랑스, 과테말라 등의 한국학교 및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65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글에 대한 생각과 우리 말의 느낌을 찾아보고 세종대왕이 어떻게 우리말 소리와 단어를 글자로 표현하려고 했는지 상상하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글 자음의 이름과 각 자음이 나타내는 느낌, 그 느낌을 보여주는 단어의 예를 설명하는 등 학생들의 어휘에 큰 효과를 가져다줄 색다른 학습방법을 함께 배웠다. 최미영 교장은 "한글창제 목적, 제자원리, 발음기관 등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이전 한글강의와는 달랐다"며 참석교사들이 매우 만족해했다고 말했다.

19. 미국 다ս한국학교, 설맞아 온라인 기념행사 개최: 2021년 2월 16일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신문

HOME > 뉴스 > 북미

미국 다ս한국학교, 설맞아 온라인 기념행사 개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1.02.16 13:34

「설날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가래떡 썰어보는 시간도 가져



미국 서니베일 소재 다ս한국학교는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온라인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다ս한국학교)

미국 서니베일 소재 다ս한국학교는 2월 13일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으로 직접 교실에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설'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Chinese New Year'도 'Lunar New Year'도 아닌 우리말 '설날'에 대해 공부한 뒤 카훗 게임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점검했다.



미국 서니베일 소재 다ս한국학교는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떡국에 공부하는 학생들 (사진 다ս한국학교)

앞서 학교 측은 일주일 전 학생들에게 교재를 배부하면서 가래떡도 함께 보내 학생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가래떡을 직접 썰어보는 체험활동을 하게 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떡국과 떡만두국, 떡볶이 등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담아 함께 공유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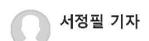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은 올해 설 행사에서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 키만 한 웃으로 하는 큰 웃음을 못한 것이라며 교실로 돌아가면 꼭 다시 해보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 서니베일 소재 다ս한국학교는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율놀이에 공부하는 학생들 (사진 다ս한국학교)

이날 학생들은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한자성어를 배우며 올해 계획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마음 먹는 일을 계속하기로 다짐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20. 올림픽 2관왕 새미 리 박사 수업:
2021년 2월 26일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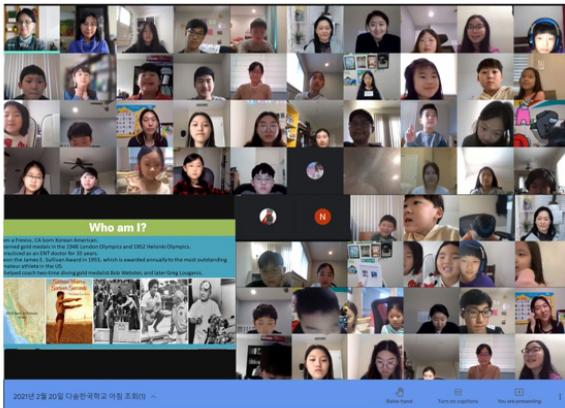


전체 한인사회 로컬경제 스포츠 **케이북 COVID-19 지식톡 K스토리 부동산**

사회일반 **다이빙 올림픽 2관왕 새미 리 박사 수업**

댓글 2021-02-26 (금)

▶ 다ս한국학교,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수업 일환으로



다ս한국학교 학생들이 지난 20일 '꿈'을 통해 다이빙 올림픽 2관왕 새미 리 박사에 대해 배우고 있다. <사진 다ս한국학교>

다ս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지난 20일 '차별을 이겨내고 올림픽 2관왕이 된 새미리 박사'를 주제로 수업했다.

다ս한국학교는 2020-2021년도 한국역사문화 교육과정 대주제를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로 정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인물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20일에는 온갖 차별을 이겨내고 1948년 런던 올림픽과 1952년 헬싱키 올림픽 다이빙 금메달 2관왕을 받은 새미리 박사에 대해 공부했다. 새미리 박사는 이비인후과 의사로, 또 여러 다이빙 선수들의 멘토와 코치로 살며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인물이다.

한 학생은 '꿈을 마음속에 품고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새미리 박사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백인들을 제치고 다이빙의 새로운 역사를 쓴 새미리 박사의 런던 올림픽 결승 동영상 보여 감탄을 자아냈다.

한편 다ս한국학교는 향후 4주간 각반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된 학습지를 공부하고, 삼천책과 미니북 등의 프로젝트를 할 예정이다.

21. 올림픽 제패한 의사 새미 리 박사에 대해 배워:
2021년 2월 22일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신문

HOME > 뉴스 > 특미

다ս한국학교 학생들, 올림픽 제패한 의사 새미 리 박사 대해 배워

송 서정원 기자 | 승인 2021.02.22 13:13

▶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 시리즈 네 번째 주인공으로 소개



다ս한국학교 역사문화 수업 시리즈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 네 번째 시간 '차별을 이겨내고 올림픽 2관왕이 된 새미리 박사' 수업 모습 (사진 다ս한국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 소재 다ս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2월 20일 역사문화 수업 시리즈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 네 번째 시간으로 <차별을 이겨내고 올림픽 2관왕이 된 새미리 박사> 순서를 진행했다.

이날 수업에서 소개된 새미리(1920~2016) 박사는 1948 런던올림픽과 1952년 헬싱키올림픽 수영 다이빙 종목에서 연속해서 금메달을 따냈으며, 이후 이비인후과 의사로 환자들을 치료 하면서 여러 다이빙 선수들의 멘토와 코치 역할도 함께 해 온 인물로 생전에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직접 강의에 나선 최미영 교장은 학생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강의안과 관련 동영상상 준비하는 한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학생들의 역할극과 퀴즈도 진행했다.

최 교장은 "새미리 박사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약속한 두 가지 꿈, 올림픽 챔피언과 의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올림픽 금메달을 두 번이나 받았다. 의사로서 성공하면서도 계속 차별을 받았지만 선수로서, 그리고 여러 다이빙 선수들의 멘토가 되는 코치로 살았다"며 "이러한 새미리 박사의 인생은 매우 값진 것이고, 우리 재미 한인 학생들이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ս한국학교 역사문화 수업 시리즈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 네 번째 시간 '차별을 이겨내고 올림픽 2관왕이 된 새미리 박사' 수업 모습 (사진 다ս한국학교)

수업을 마치면서 새미리 박사님이 자랑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묻자 학생들은 "꿈을 마음속에 품고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는다고 대답했다.

특히 학생들은 동영상 중 1948년 런던 올림픽 다이빙 결승에서 10m 높이의 다이빙대에서 자유롭게 3바퀴 반의 공중제비를 돌며 다이빙을 하는 모습이 나오자 모두 감탄하기도 했다.

강의를 마친 후 최미영 교장은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재미 리 박사에 대해 배움으로써 차별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도전 정신을 배웠다”며 “수영장 사용이 수요일에만 허락돼 수영장이 아니라 모래 구덩이에서 점프하며 백인 선수들이 휩쓸었던 다이빙 무대에 새로운 역사를 쓴 것에 대해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안타까움과 함께 감탄했다”고 전했다.

향후 4주 동안 학생들은 각 반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학습지를 반별로 공부하고 삼면책과 미니북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다ս한국학교 역사문화 수업 시리즈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 네 번째 시간 '자별을 이겨내고 올림픽 2관왕이 된 재미 리 박사' 수업 모습 (사진 다ս한국학교)

다ս한국학교는 이번 수업에 앞서 <세계를 누빈 재미동포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 <직지와 의례를 전 세계에 알린 박병선 박사>, <100% 미국인인 동시에 100% 한국인 김영옥 대령>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수업 주인공은 서재필 박사다.

학교 측은 “이분들은 앞으로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정규학교 인종학 수업에서 배우게 될 코리아 아메리칸 모델 커리큘럼에 소개된 분들”이라며 “학생들이 정규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한국 학교에서 미리 배우고 익혀서 다른 민족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서정필 기자

22. SF총영사관, ‘재외동포문학상’ 및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상장 전수: 2021년 3월 1일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신문

HOME > 뉴스 > 북미

SF총영사관, ‘재외동포문학상’ 및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상장 전수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3.01 18:02

대외 입상자인 다ս한국학교 강하진윤지유 학생과 최미영 교장 초청해 상장 전수하고 격려



주샌프란시스코한국총영사관은 지난 2월 25일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과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주최한 '제2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에서 입상한 한국학교 학생들을 대외관저로 초청해 상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사진 다ս한국학교)

주샌프란시스코한국총영사관(총영사 윤상수)은 지난 2월 25일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과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주최한 '제2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에서 입상한 한국학교 학생들을 대외관저로 초청해 상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는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다ս한국학교 학생들로, 이 학교 장하진 학생은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청소년 글짓기 부문에서 우수상을, 윤지유 학생은 '제2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에서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다ս한국학교도 한글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글쓰기를 장려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에서 '한글학교 특별상'을 수상했다.

정과용 부총영사의 사회로 진행된 전수식에서 윤상수 총영사는 장하진 학생에게 상장과 상금을, 다ս한국학교 최미영 교장에게 상패와 상금을, 윤지유 학생에게 상장을 전수했다.

윤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미리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글과 그림일기에 놀랐다”며 “앞으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잘 배우서 다른 민족 친구들에게도 전하는 훌륭한 사람이 돼 달라”고 격려했다.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청소년 글짓기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장하진 학생이 윤상수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로부터 상장을 받고 있다. (사진 다ս한국학교)

이러한 수상소감 발표에서 장하진 학생은 “할머니와 보냈던 즐겁고 귀한 시간을 아주 특별한 산책이란 제목의 글로 쓰면서 할머니와의 좋은 추억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됐다”며 “격려해 준 가족과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2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에서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윤지유 학생이 윤상수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로부터 상장을 받고 있다. (사진 다ս한국학교)

'31운동과 유관순 열사'란 제목으로 한국학교 31절 수업에 대해 그림일기를 쓴 윤지유 학생은 “그림일기를 쓸 수 있어서 좋았고 또한 대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한국학교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잘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에서 '한글학교 특별상'을 수상한 다ս한국학교를 대표해 최미영 교장이 윤상수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로부터 상패를 전수받고 있다. (사진 다ս한국학교)

최미영 다ս한국학교장은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도록 상장 전수식을 마련해 준 총영사관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를 배움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긍지를 갖고 다른 민족 친구들에게 널리 알리는 자랑스러운 재미 한인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총영사관은 2020년 국경일 기념 동영상 애국가 부르기에 동참한 다ս한국학교 학생 8명에게 감사장과 마스크를 부상으로 전달했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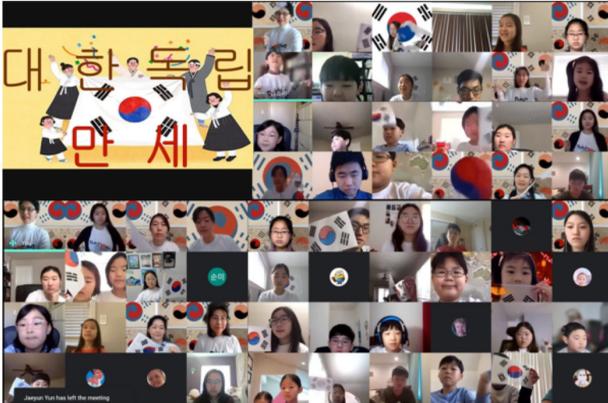
 이현수 기자

23. 다ս한국학교 삼일절 수업: 2021년 3월 2일 한국일보



다ս한국학교 '삼일절' 수업

2021-03-02 (화)



다ս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지난 27일 삼일절 수업을 통해 삼일절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진행과정에 대해 배웠다. 이날 학생들은 순태극기와 삼일절 태극기, 데니 태극기(교종이 외 교고문인 오언 데니가 1890년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하사한 것으로 한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 등을 배경화면으로 하여 삼일절 수업을 진행했다.



25. 재외동포문학상 등 상장 전수식: 2021년 3월 4일 한국일보



재외동포문학상 등 상장 전수식

2021-03-04 (목)

- ▶ 윤지유 학생 '그림일기대회 대상', 장하진 학생 '청소년 글짓기 우수상'
- ▶ 다ս한국학교 '한글학교 특별상'



앞줄 왼쪽부터 최미영 다ս한국학교 교장, 윤지유 학생, 윤상수 SF총영사, 장하진 학생 <사진 다ս한국학교>

2020년 재외동포문학상 및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상장 전수식이 지난달 25일 SF총영사관에서 열렸다.

이날 재외동포문학상 청소년 글짓기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장하진 학생(다ս한국학교)이 상장과 상금을 받았고, 다ս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한글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글쓰기를 장려하는 한글학교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한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에서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윤지유 학생(다ս한국학교)도 상장을 받았다.

정광용 SF부총영사의 사회로 진행된 전수식에서 윤상수 SF총영사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잘 배워서 다른 민족 친구들에게도 전해주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장하진 학생은 할머니와 보냈던 즐겁고 귀한 시간을 "특별한 산책"이란 글로 표현했고, 윤지유 학생은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2020년 삼일절 수업에서 "삼일운동과 유관순 열사"라는 제목으로 그림일기를 그려 상을 받았다.

24. 다ս한국학교 상장 전수식: 2021년 3월 3일 SF총영사관 보도자료



제목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및 제2회 재외동포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수상 전수식
작성자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작성일	2021-03-03

윤상수 총영사는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전수식을 2.25(목) 오후 3시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리셉션홀에서 개최하여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재외동포문학상 청소년 글짓기 초등부 우수상은 다ս한국학교 장하진 학생이, 재외동포문학상 한글학교 특별상은 다ս한국학교와 그의 참석하지 못한 콜로라도 통합한국학교 김동현 학생이 장려상을 전수하였습니다.

한편 교육부 주관 제2회 재외동포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상 윤지유 학생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을 전수하였습니다.

26. 개교 17주년 기념식: 2021년 3월 18일 한국일보



<사진 다솜한국학교>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지난 13일 개교 17주년 기념식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박석현 목사, 전남남 다솜한국학교 이사장의 격려사에 이어 각 반별로 1년간 배운 내용을 발표했다.

27. SF 한국교육원 UCC 공모전 시상식: 2021년 3월 25일 주간한대

HYUNDAE NEWS USA 칼럼 March 25, 2021 - March 31, 2021 15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시상식 모습

SF 한국교육원 주최 UCC 공모전 시상식 열려

은상 '태극기 통해 표현된 대한민국의 역사'
다솜한국학교, 이남현, 이준건 은상

SF 한국교육원(원장 우창숙)에서는 지난 1월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This is Korea)"이라는 주제로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3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시상식이 개최되었는데, 우창숙 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대회에는 지난 대회들에 비해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고 수준도 높아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한인 학생들의 작품 수준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 외에도,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타민족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여 더욱 의미 있는 대회가 되었다"고 표명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수상 학생이 모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참석한 학생들이 순서대로 나와서 자신의 영상을 소개하였고 상장을 받았다.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대회 '대상' 수상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이남현, 이준건 학생의 '태극기를 통해 표현된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상을 수상했다. 태극과 4괘에 숨어 있는 수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태극에는 근정권, 삼성 권

리시 S-20로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표현했고, 건곤감리 4괘는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대한항공 비행기, 배, 독도의 감치와 거북, 신기전을 그려 넣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표현한 내용을 담은 4분 17초짜리 동영상에 담아내었다.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상식에 참석한 최미영 다솜한국학교 교장은 "한인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동영상 실력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타민족 학생들은 K-드라마와 K-POP 등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이번 대회 수상 작품을 통해 볼 수 있었다"고 칭찬하였다.

<데스크 기자>

28. SF 한국교육원 UCC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1년 3월 25일 한국일보



사회일반 SF교육원 'UCC 공모전 시상식'

2021-03-25 (목)

- ▶ 수상작 20편..상금, 상장 수여
- ▶ 대상 UC버클리 주혜일리 학생



SF교육원 주최 한국말리기 홍보콘텐츠대회 수상자들, 맨왼쪽은 우창숙 SF교육원장. <사진 SF교육원>

SF 한국교육원(원장 우창숙)은 지난 19일 SF총영사관 리셉션홀에서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This is Korea)"이라는 주제로 열린 UCC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개월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50여편의 작품이 출품돼 총 20편의 수상작에 총 1,800달러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대상은 UC버클리의 이자트 주혜일리, 금상은 콜라라도통합한국학교의 엘리자베스 주현, 은상은 풋힐고등학교의 소피아 허(Heo), 샤론 허, 다솜한국학교의 이남현, 이준건 학생이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입상자 19팀 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5팀 20여명이 참여했다.

우창숙 SF교육원장은 "작품을 통해 제작자들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와 역사에 대한 열정과 깊이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이번 홍보콘텐츠대회가 참가자들의 한국어 학습의욕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어 학습 및 올바른 역사, 문화 전달에 계속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임병준 심사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뛰어났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많은 노력이 엿보여서 좋았으며 대부분의 작품이 충분이 완성도가 있어서 20팀만 결정하기에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으로는 몬트레이 국방외국어대학(DLI) 임병준 교수, 브리검영대 백준오 교수, UC버클리 고기주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한국말리기 홍보콘텐츠대회는 SF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말하기대회와 더불어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경에 교육원 홈페이지와 한국어수업이 진행되는 각 학교와 기관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 수상작은 SF한국교육원 홈페이지(www.kecs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9. 아시아계 인종차별 및 혐오 대응교육: 2021년 3월 30일 한국일보



<사진 다ս한국학교>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ս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27일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대응에 관한 특별수업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차별의 부당함과 대처법을 배웠으며 인종차별 및 혐오 사건을 반대하는 포스터 등을 만들었다.

31. 다ս한국학교, 서재필 박사 수업: 2021년 4월 8일 한국일보

사회일반 | 다ս한국학교, 서재필 박사 수업

댓글 2021-04-08 (목)



다ս한국학교 학생들이 지난 3일 서재필 박사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다ս한국학교>

다ս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지난 3일 '자주, 독립, 민주국가를 꿈꾼 서재필 박사'를 공부했다.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 5번째 시간으로 진행된 이날 수업에서 학생들은 미주 한인 최초 시민권자이자 공무원, 서양 의사이자 국제 결혼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선구자 서재필 박사가 조국의 독립과 교육,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 일생을 배웠다.

학생들은 서재필 박사의 일대기를 통해 민족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배웠을 뿐 아니라, 도입 부분에서 안창호 선생, 새미 리 박사, 김영옥 대령 등 그동안 배운 재미동포 인물들에 대해 골든벨 퀴즈를 통해 복습하기도 했다.

30.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방안 - 특별수업: 2021년 4월 1일 현대뉴스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방안 나누기

27일, 다ս한국학교 학생들 특별 수업

다ս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코로나-19기간 동안에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대응에 관한 특별 수업을 진행했다. 2020년 3월 초에 시작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택격리 등으로 모두 힘든 상황에서 전염병 만병에 급증하고 있는 인종혐오 범죄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공부했다. 학생들은 부모님이나 친구 혹은 뉴스를 통해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을 들었다

부모님과 선생님과 학교에 그런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기로 했다. 강의를 맡은 최미영 교장은 최근에 더 많이진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차별에 관해 동포 학생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수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뿌리를 알고 긍지와 자존감을 갖는다면 차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음을 배웠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인종 차별 및 혐오 사건을 반대하는 포스터와 회화 포스터를 만들어 보았다.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는 법, 불의에 대하여 안전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데스크 기자>

32.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 제 5탄:
2021년 4월 8일 현대뉴스

종합 18 April 8, 2021 - April 14, 2021 HYUNDAE NEWS USA

<자주, 독립, 민주국가를 꿈꾼 서재필 박사>

3일,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 제5탄

서니베일시에 있는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에서는 2020-2021학년도 한국 역사문화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로 정하고, 지난 4월 3일, 다섯 번째 시간으로 <자주, 독립, 민주국가를 꿈꾼 서재필 박사>라는 제목으로 공부하였다.



박은경 교무 선생님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준비된 파워포인트와 동영상, 그리고 학생들의 역할극과 퀴즈 등이 포함된 강의를 해주셨는데, 미주 한인 최초의 시민권자, 한인 최초의 공무원, 한인 최초의 서양 의사, 한인 최초의 국제결혼으로 "American Dream"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으나 조국의 독립과 교육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서재필 박사의 일생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도입 부분에서는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3월 18일에 승인된 인종학에 나오는 재미동포 인물들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독립운동, 세미리 박사, 김영옥 대령을 서로 비교하며 각 반의 눈높이에 맞는 골든벨 퀴즈로 지난 1년 동안 배운 내용을 점검하였다. 가장 나이가 어린 기쁨 반 학생들도 퀴즈를 재미있게 풀어내서 선생님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1864년 전라남도 보성에서 출생한 서재필의 전 생애는 우리 민족이 역사상 가장 고단하고 험난했던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

가가 탄생하게 되는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1880 년대의 조선 말기의 혼란과 열강의 각축, 일제의 침략, 대한제국의 멸망,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펼쳐진 파란만장한 서재필의 인생을 학생들에게 소개 하였다.

강의해준 박은경 선생님은 동포 차세대 학생들에게 모국 대한민국의 건국에 민주주의의 뿌리를 심기 위하여 일평생 끊임없이 배우고 일하고 국민을 계몽하며 헌신한 의사 서재필의 생애와 교훈을 교육함으로써 자신의 발전과 더불어 미국과 연결 고리를 만들며 대한민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돕고자 이 단원을 설정하였다고 했다.

서재필 박사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끈 도산 안창호,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그리고 감옥에서도 독립 만세를 부르다 숨진 유관순 열사 등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정규학교에서 배우게 될 인종학 학습 지도안에 나오는 인물이다. 우리 학생들은 그분들의 생애 관해 한국학교에서 잘 배우서 다른 민족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33. 2020-2021학년도 다솜한국학교 종강식과 졸업식:
2021년 5월 26일 코리아데일리

5/26/2021 "수고했어 애들아", 다솜한국학교 종강식과 졸업식 - 사회 - Korea Daily Times 코리아 데일리 타임스-

"수고했어 애들아", 다솜한국학교 종강식과 졸업식

by KDT posted May 26, 2021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는 화상 모임으로 2020-2021학년도 종강식과 졸업식을 지난 22일 진행했다.

이날 원은경 교장의 사회로 시작된 종강식에서 박석현 목사는 "코리아아메리칸이라는 듀얼 헤리티지를 가진 우리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가진 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한국과 미국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진=다솜한국학교 최미영 교장>

5/26/2021 "수고했어 애들아", 다솜한국학교 종강식과 졸업식 - 사회 - Korea Daily Times 코리아 데일리 타임스-

전남진 이사장은 "1년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어려웠을 텐데 무사히 마치고 종강식을 하게 되어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님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목표를 세워 살아가고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기르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의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10분 가량의 동영상을 감상했다.

최미영 교장은 학사보고와 함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이 성장했다고 격려했다. 또 한 "한국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를 배우는 것은 김영옥 대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 한국인 100% 미국인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봉사상, 이사장상,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상 및 모범상 및 가장 큰 상인 1년 개인상등이 20여명의 학생들에게 수여됐다.

북가주 구면통화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이준 학생의 발표, 샌프란시스코 교육원 UCC 컨테스트에서 은상을 수상한 이준건, 이남현 학생의 '태극기를 통해 표현된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동영상 상을 관람했다. 9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2021학년도 가을학기 개강을 알리는 광고로 종강식을 마쳤다.

졸업식에서는 전시현(명예졸업), 정지우, 이남현, 이준건 학생이 졸업했다. 졸업생들은 다솜을 통해 성장하고 선생님들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는 감회를 발표했다.

(박현중 객원기자)

Korea Daily Times Page view Today : 3525 Yesterday : 11373 Total : 11315029



교장 최미영



교감 원은경



교무 박은경



웹간사 김원구



교사 여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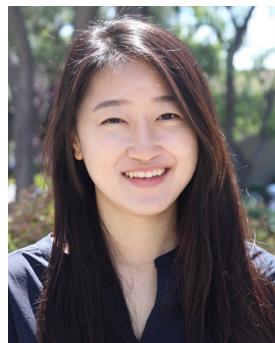
교사 장신복



교사 권미정



교사 전누리



교사 권민혜



교사 안지은



교사 백지현



목사 박석현



이사장 전남진



직전 이사장 정철화

다솜 학생 온라인 등록 안내

본교에서는 웹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학생 등록을 받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종이로 학생 등록을 받는 방식에 비해 아래와 같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 간편한 등록 학생 정보 관리 (웹 database로 관리)
- 등록비 결제 자동화 (신용카드 및 개인 수표 결제)
- 학부모의 계정(User Account)에 과거의 모든 학생 등록 정보와 영수증 PDF 파일 보관
(다년간 재학 후 졸업이나 수료한 경우에 계정을 통해 졸업장 혹은 수료증 PDF 발급)
- 학부모의 계정을 통한 공지 및 소식 전달

학생 등록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말까지이며 정원이 차면 바로 마감됩니다. (정원이 차면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실 수는 있습니다.) 5월 말까지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 받고, 6월 1일부터 신입생 등록을 받습니다. 재학생 학부모는 학생을 등록했던 User Account로 로그인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등록을 위해서는 다솜 웹에 User Account가 없는 학부모는 우선 User Account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User Account를 신청하면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되고 이메일에 들어 있는 웹 링크를 클릭해 답해야 User Account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솜 웹 “커뮤니티 / 웹 이용 안내” 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혹 Username이나 Password를 잊어서 로그인을 못 하시는 분을 위한 도움말도 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User Account로 로그인한 후에 학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해 웹 이용 안내 페이지에 준비된 도움말 제목들입니다. 이 도움말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웹 계정 만들기 (Creating User Account)
- 로그인 아이디(username)나 비밀번호(password)를 잊었을 때
- 학생을 학교에 등록하는 방법 (Registering Students)
- 학생 등록 확인, 수정, 취소 및 PDF 영수증 내려받기

아래 그림은 온라인 학생 등록 메뉴 페이지입니다. 가을학기 및 1년 등록의 2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등록하셔야 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잘 읽어 보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vent	Class Begin	Register
2018-2019 One Year (Fall+Spring) (1년 등록)	09-08-2018 9:30 am Sat	Register (Students)
2018-2019 Fall Semester (가을학기 등록)	09-08-2018 9:30 am Sat	Register (Students)

 The Young Korean American Academy

2021 SUMMER CAMP

DISCOVERING KOREA THROUGH MEDIA :
The Impact of Korean people and culture



July 26 - 29, 2021 (Mon~Thu)

10:00am-12:30pm

Google Meet Platform

Contact Email: staff@echo-korea.org

Registration: www.echo-korea.org

주최:  ECHO-KOREA

후원: 재외동포재단,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독도재단, 산호세 중앙병원, 흥사단 실리콘밸리 지부,
전주시 한지산업지원센터, 해봉재외동포교육재단, 청주 고인쇄박물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다솜 한국학교

www.dasomks.org